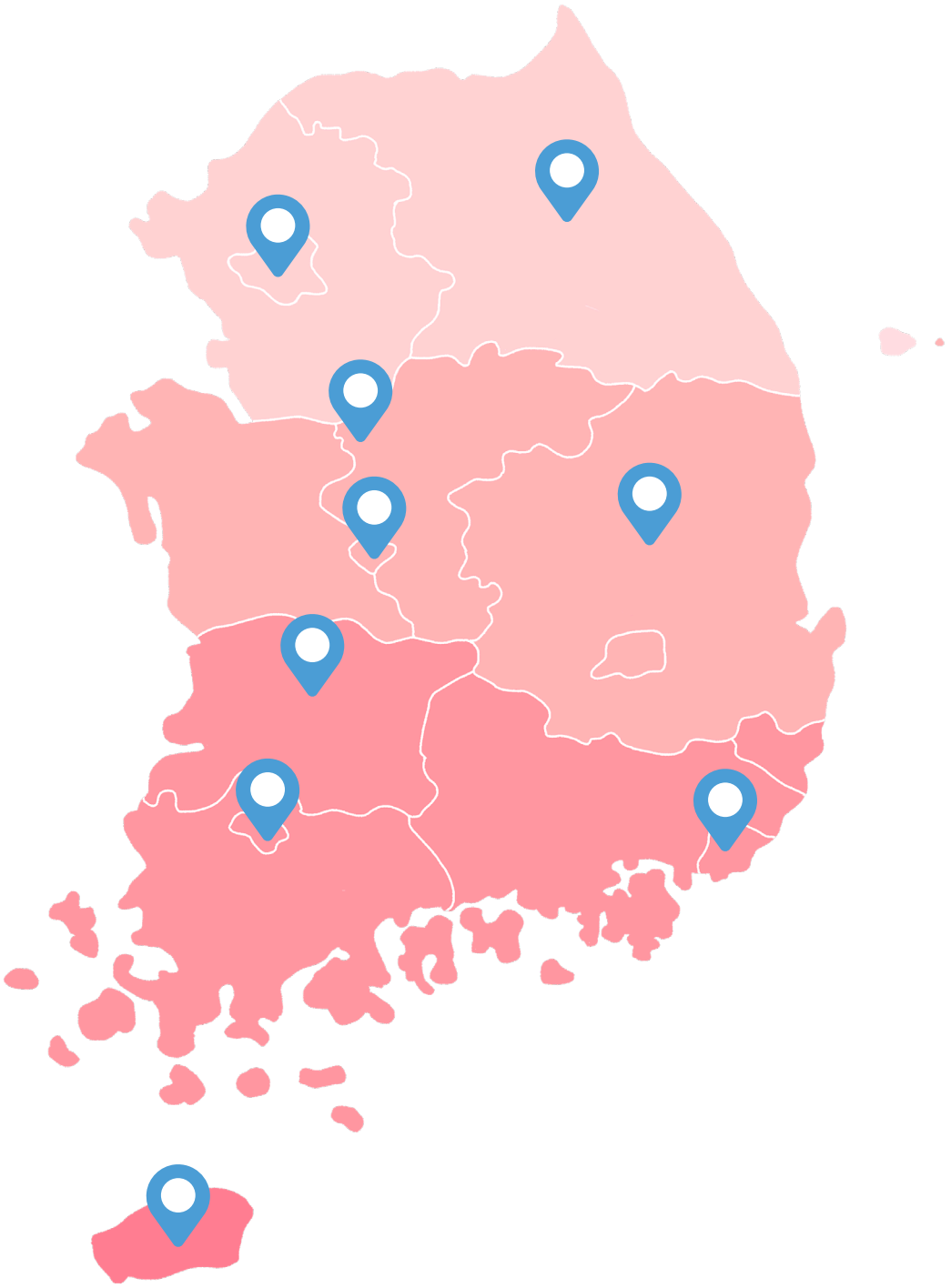
2021년 5월~6월 9개 권역별 총 9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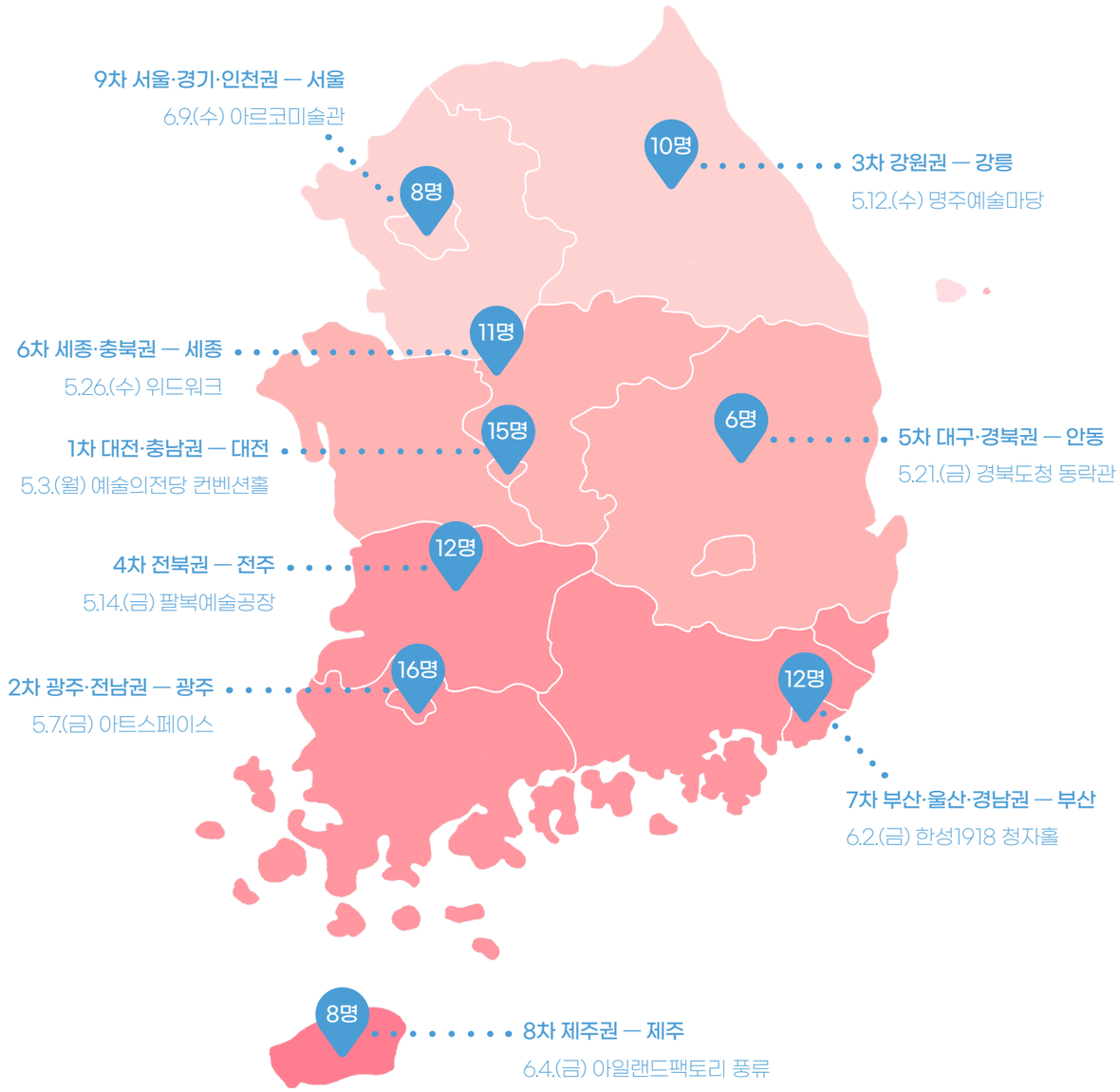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 관련 지역 예술현장의 의견 수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 소위원회

2021
현장소통 소위원회
지역간담회 결과자료집



총 참여인원 : 지역 예술인 98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현장소통 소위원회(이하 현소위)는 예술 현장과의 유연한 소통으로 예술위원회의 방향성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안건에 대한 공론화 추진 및 의견 수렴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소위 위원은 1.예술계 각 분야(장르)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안건을 상정하여 공론화하고, 예술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 2.분야(장르)별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간담회와 토론회 및 포럼 등을 개최할 때 주재 및 진행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소위에서는 예술인이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며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예술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대대적인 간담회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논의됐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행사를 기획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역간담회' 역시 올해 초에 진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그렇게 된다면 '지역'별 이라는 간담회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 아래 시기를 기다려 2021년 5월~6월 2개월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9개 권역별 총 9회 개최된 지역간담회는 주로 지역 현장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의 틀을 ①창작활동에서의 어려움, ②지원사업 및 심의제도 관련 개선 사항, ③지역문화 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 ④기타 제안 사항으로 잡되,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도록 예술인들의 사전 신청과 의견접수를 열어두었습니다.

이 지역간담회 회의록 자료는 최대한 예술가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그대로 담길 수 있도록 편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술가들의 몇몇 발언들에서 기존의 사실과 어긋나거나 현행 제도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고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장의 목소리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편집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의 맥락을 파악하고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술인 개인의 서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특정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되, 예술인 개인의 활동과 서사가 드러나는 부분은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본 간담회의 취지를 살리고자 예술위원회의 답변이나 문화재단 측의 이야기는 과감히 많이 생략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이에 답변이 간략하거나 맥락이 건너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권역별로 9회차 회의록을 진행된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권역별 첫 페이지에는 개별 간담회에 대한 현소위의 간략한 소감과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회의록 전체 편집본을 실었으며, 실제로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의견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요청하신 부분과 본 간담회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경우는 마지막에 간략하게 첨부하였습니다. 최대한 공정한 시각으로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번 간담회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현장 예술인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참여해주신 예술가, 지역 관계자분들, 그리고 지역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2021 현장소통 소위원회 지역간담회 총론 2

2021 현장소통 소위원회 지역간담회 결과 보고 6

2021 현장소통 소위원회 지역간담회

대전·충남권 — 대전 12

광주·전남권 — 광주 34

강원권 — 강릉 52

전북권 — 전주 74

대구·경북권 — 안동 100

세종·충북권 — 세종 114

부산·울산·경남권 — 부산 134

제주권 — 제주 154

서울·경기·인천권 — 서울 178

Ⅰ. 지역간담회 개요

○ 행사명 : 2021 현장소통 소위원회 지역 간담회
○ 목적 :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 관련 지역예술현장 의견 수렴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 소위원회,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 운영일정 : 2021.5월~6월(2개월 간) / 9개 권역, 총 9회 개최

회차	권역명	일시	개최지	세부장소	참여위원
1차	대전·충남	5.3(월) 14:00	대전	예술의전당 컨벤션홀	**신민준,** 김대현, 이건명, 이일록, 홍태림
2차	광주·전남	5.7(금) 14:00	광주	아트스페이스	**홍태림,** 유은선, 이건명
3차	강원	5.12(수) 14:00	강릉	명주예술마당	**김재훈,** 김선영, 이건명, 홍태림
4차	전북	5.14(금) 14:00	전주	팔복예술공장	**김근,** 김대현, 송원, 이건명, 이일록
5차	대구·경북	5.21(금) 14:00	안동	경북도청 동락관	**이일록,** 김선영, 이건명, 박경주, 홍태림
6차	세종·충북	5.26(수) 14:00	세종	위드워크	**이건명,** 송원, 홍태림
7차	부산·울산·경남	6.2(수) 14:00	부산	한성1918 청자홀	**이일록,** 김선영, 이건명, 김재훈, 홍태림
8차	제주	6.4(금) 14:00	제주	아일랜드팩토리 풍류	**홍태림, 유은선,** 김재훈, 이건명
9차	서울·경기·인천	6.9(수) 14:00	서울	아르코미술관	**김선영, 이시백,** 김근, 김대현, 유은선, 이건명, 이일록, 신민준, 홍태림

ㅇ 참여자 현황

회차	권역명	총인원	예술인	사무처	지역재단	기타
1차	대전·충남	41	15	9	6	11
2차	광주·전남	38	16	13	9	0
3차	강원	15	10	5	0	0
4차	전북	29	12	9	6	2
5차	대구·경북	24	6	9	8	1
6차	세종·충북	27	11	7	9	0
7차	부산·울산·경남	33	12	14	7	0
8차	제주	23	8	8	7	0
9차	서울·경기·인천	26	8	16	0	2
	계	**256**	**98**	**90**	**52**	**16**

(단위:명)

Ⅱ. 현장소통 소위원회 소개

ㅇ 현장소통 소위원회는?

- 목적 : 예술현장과의 유연한 소통으로 예술위원회의 방향성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안건에 대한 공론화 추진 및 의견 수렴
- 구성 : (내부) 내부 위원 간 협의
  (외부) 현장소통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 : 장르, 지역, 성별, 세대 등 고려

ㅇ 현장소통 소위원회 구성원(*2021년 5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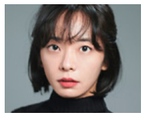
홍태림(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문화비평 웹진 '크리틱-칼' 발행인



김대현
문학평론가



송원
연극연출가
배우



김선영(선아린)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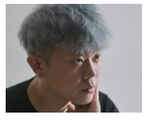
이시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소설가



신민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활동가
시각예술가



김근
시인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김재훈
작곡가
기획자



유은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원 강사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사회적기업 다문화극단 ㈜샐러드
대표



이건명
해금연주자
예술기업<설탕한스푼> 대표



이일록
독립기획자

ㅇ 공론화 의제선정 절차

- 안건 제안 → 안전 접수 및 담당자 지정 → 공론화 절차 진행 → 종결 및 결과 통보

ㅇ 소통창구



홈페이지 (https://sotong.arko.or.kr)



페이스북

일러두기

* 권역별 본문에서 **굵게** 표시된 부분은 핵심적인 주장이라 생각되는 문장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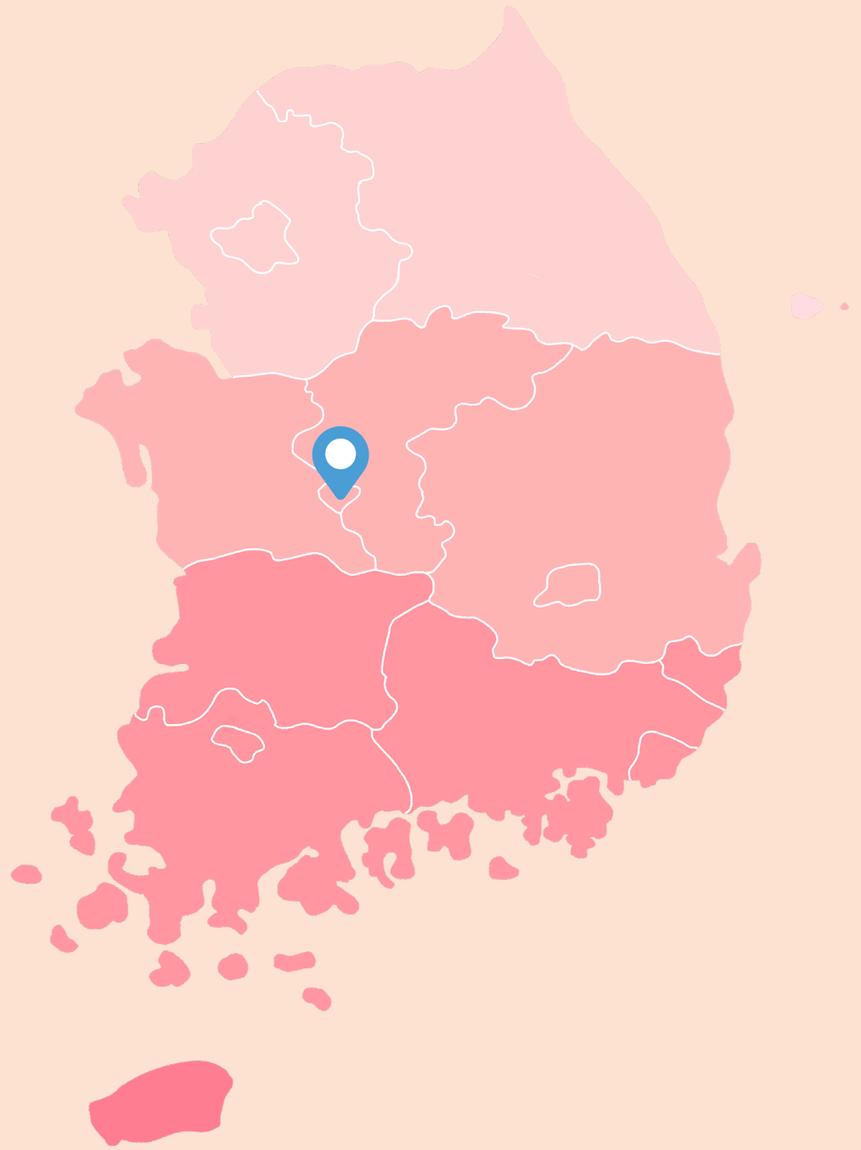
** 권역별 본문에서 밑줄이 표시된 부분은 모범사례 및 구체적 대안이라 생각되는 문장을 표시하였다.

*** 권역별 본문에서 *기울어져* 표시된 부분은 핵심적인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개인 예술가의 서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표시하였다. 이 표현은 되도록 자제하려고 노력했다.

**** 예술가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비문, 줄임말, 비표준어 등에서 최소한의 교정만 하였다.

대전·충남권 — 대전

2021. 5. 3.(월)
대전예술의전당 컨벤션홀



대전·충남권 간담회는 초반부에 간담회의 개최 의도와 달리 질의응답 위주의 다소 딱딱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참여 예술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대했으나, 초반에는 넓은 의제보다 심사위원 풀에 대한 심각성, 심의제도, 예술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한 깊은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중반 이후로 참여한 청년예술인의 다양한 의견이 모였으며, 예술 공간 등 지역 예술 다원의 부재와 홍보 시스템의 미진함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대비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제	주요 의견
지원사업 및 심의제도 관련	**○ 정책 지원 기조의 일관성 필요** - 보편지원&집중지원, 예산삭감 등의 혼선 - 사후지원을 통한 대안 모색 **○ 자생력을 길러주는 지원제도의 필요** - 1년 단위 지원의 한계 **○ 예술계 일자리 창출 사업의 문제점** - 기존 예술가 일자리 지원의 소외 - 연수단원 지원 사업 보완점 **○ 공모사업 평가 피드백 필요** **○ 심의위원회 풀(Pool) 운영의 문제점 및 한계** **○ 심의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 대책** **○ 심의 기준의 투명성 제고** **○ 비대면 지원에 대한 사업적 대책 및 방향 제시 필요** **○ 보조사업을 통한 자립의 한계와 예술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적 문제** **○ 사후평가 제도 필요**
청년 예술가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	**○ (청년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필요)** 보조금 수혜를 위해 개인전 개최 횟수, 수상 실적 등이 필요한데 장소 대관에 많은 비용이 필요함 - 실력 있는 청년들의 예술계 진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청년예술가들이 이미 자생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필요** **○ (예비 예술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필요)** - 지역거점 대학교 학생회장으로서 느낀 청년예술 활동의 한계점 - 대학생(예비 예술인)이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고충과 문제점, 보완점 등 - 예술 전공자의 졸업 후 정보 획득을 위한 플랫폼, 정보창 필요
중앙과 지역 간 예술 격차 완화	**○ 지역과 중앙 사업 지원율에 따른 선정 배분** **○ 지역 예술 활동 인프라 부족 및 네트워크의 한계**
기타	**○ 거버넌스에 대하여, 온라인과 예술은 공존할 수 있는가** **○ 대관 장소 증설 및 전시 대관비, 수수료, 입점료 등에 대한 지원** **○ 민간 예술시장 성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방안 필요** **○ 예술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국민지원** **○ 코로나19로 대회, 공연 취소로 인한 예술계 입시생들의 어려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이하 현소위 위원)

현소위 위원1 안녕하세요. 원래 작년에 지역간담회를 권역별로 9개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엄중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도 행사의 취지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권역별로 많은 예술인들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가장 넓은 곳을 섭외하여 지역간담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역간담회 첫 장소가 충남권이거든요. 마흔네 분이라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야기들은 잘 듣고 잘 정리해서 저희 현장소통 소위원회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론화해야 할 사안들과 제도개선으로 이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이어내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 대전에서 연극하고 있는 복**입니다. 심의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심의제도를 들여다보면 의문이 가는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 풀(Pool)제가 구성되어 있는 거로 아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에 의해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는지,** 이게 추천인지 말 그대로 뺑뺑이인지, 이것에 대해 궁금증을 풀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관들도 심의위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예외의 경우인 건지 아니면 사무관도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심의 결과를 지켜봤을 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는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데 사무관들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그것의 연장선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 저는 보이거든요. 또 **어떤 이유로 사무관들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심의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현소위 위원1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풀(Pool)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Pool)의 규모는 1,517명으로 알고 있고, 장르별로, 문화일반으로 나이대로도 분류되어 되어있습니다. 심의는 그 안에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저희 사업과 관련된 심의위원 풀 안에서 무작위로 추출해내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각예술 관련 사업이라면 그 장르 위원과 사무처가 몇 배수를 풀(Pool)에서 추출하고 시스템에 넣어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담 심의 위원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 사업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 풀(Pool) 안에서 전문성 있는 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풀(Pool) 밖에 계신 분도 모셔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Pool)이 1,500명에 이르는데 몇 년을 진행해보니, 심사하신 분이 계속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심사를 못하신 분들은 계속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균을 내보니까 한 번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절반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심의위원 풀에 들어갔는데 한 번도 안 부르더라, 나 이거 안 하겠다, 왜 나는 안 부르는 거냐' 고. 그런 점을 고려해 어떤 특정 섹터를 나눠 그 안에서 무작위로, 배수 안 만들고 무작위로, 여러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퍼센티지도 많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완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풀(Pool)제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양은 구비를 했는데 실질적인 심의를 위한 기반을 만들지 못한 것을 보완해야 하고, 그중 하나가 20~30대 분들이 심의위원에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40대가 400명이에요, 30대는 그 십 분의 일 밖에 없어요. 50명이 안됩니다. 20대는 아예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지역, 세대, 성별을 나름 다 배분해서 쿼터제로 넣으려고 하는데도 이 부분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풀(Pool)제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지적해주신 부분도 많이 공감합니다.
사무관 심의 이야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 심사를 간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사무관이라고 칭했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진흥원에서 한 30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심의를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 측면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말이라는 게 생산되는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위원회 선생님 말씀취지를 보면 현재 사업부서장이 지역에 지원사업 심의를 다니는 경우라기보다는 아마 임금피크제 분들과 같이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현업에서 떨어져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내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네. 그리고 저는 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어떤 사업에서 특수성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국제 사업이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정확한 룰이 있지 않을 경우는 제도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은 무작위로 추첨하고, 어떤 사업은 예술위원이 2, 3 배수 추첨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추천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술위원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풀(Pool)을 구성해놨으면 랜덤 방식을 정확히 해야지. 물론 그 풀(Pool) 안에 있는 분을 추천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저는 블랙리스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이후에 저희 심의제도는 심사의 전문성은 다소 포기하더라도 참여성과 공정성

부분에 비중을 뒀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예술계에 어떤 표본 집단이 있고 그 안에서 랜덤을 통해 심의위원을 구성했을 때 참여와 전문성을 함께 반영할 수 있고, 심의 자체가 비평 기능도 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의 수도 5~7명 제한이 있고, 예술위원회 사업들 중 목적이 굉장히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부터 다양성 부분까지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 같은 경우 절대로 관객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전체 무작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전문성 외에 국제교류 예술 활동에 감각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무작위 추출로 돌리는 게 맞는가. 물론 그렇게도 고려해 봤습니다만, 심의 결과 총평을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이대로 나갔을 때 오히려 신청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일부 특수성 있는 사업은 도저히 랜덤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합의된 상태입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 풀(Pool)을 확보하는 게 숙제이고, 지금은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복**

저도 **심의위원 풀(Pool)제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했었거든요. 제가 2016년도인가, 2017년에 심의위원 풀(Pool)제 구성의 심의위원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촉해서 제대로 심의를 볼 수 있을까, 그들의 전문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저 역시 처음 심의 때 멍한 상태에서 심의를 봤던 기억이 나요.. 다른 심의위원을 따라가는 입장밖에 될 수 없었던 기억이요.. 이렇게 본인, **타인 추천을 받아서 옳게 심의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저도 안 나오지만 노력하는 방향을 찾아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화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이**입니다. 공정성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들을 위촉도 해야 하고,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충돌이라는 부분. 이번에도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통과했습니다만, 공적 부분만 포함이 됐더라고요. 사적 이해관계는 필터링이 안 되는 반쪽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원과 심의 관련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예술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스태프들이 왜 지역에까지 와서 심의하느냐. 이해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특정 단체에 대해 우호적일 수 있다는 우려이고, 그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된 마당에 **우리 문화예술계에서도 지원제도와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이 이제는 마련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연구과제는 정책과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셔야겠죠.
또 한 가지는 **지원을 하다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지원 기조가 바뀌는 걸 매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하고, 어떤 때는 보편 지원을 한다고 소액 다건으로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예술인들도 헷갈리죠. 선택과 집중, 경쟁력 강화, 뭐 이런 거 대의명분 세울 때는 그럴싸해요. 보편 지원에 대한 명분도 비슷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권에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법적으로도 보장된 독립적 기관이니 그런 부분을 마련해줘야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신뢰감을 얻지 않을까 합니다.

이**

안녕하세요, 음악 활동하고 있는 이**입니다. 제가 매년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공모사업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피드백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떨어질 때도 있고 붙을 때도 있지만 피드백이 있으면 다음 공모사업에서 장점은 강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하여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

지원사업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책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 보편성 등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방식은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은 사후지원 아니면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후지원을 안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방이 됐건 서울이 됐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은 사후지원을 통해서 그 집단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대전도 제가 연극 활동을 관장하고 있지만 1년에 20개가 넘는 작품이 올라갑니다. 따지면 거의 30개 정도예요. 그중 지원금을 안 받은 작품이 한두 작품이고 나머지는 모두 받았어요.. 보편적 지원에서는 약소한 금액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업들은 한번 하고 끝납니다. 1~2년 뒤에 남는 한 작품이 있을까 합니다. *분명 좋은 작품이 있거든요. 있지만 우리가 집중을 못 해주기 때문에 상품이 안 되고 롤모델로 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후지원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에 대한 철두철미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제 머리로 짜는 건 어렵지만 **사후지원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게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

대전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극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한 30년 동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개인 예술가 활동과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연수단원 제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획 파트나 신입단원이나 이런 부분을 연수단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고 덕을 보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장기적인 어떤 활동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선에서 1년까지, 그 이후에 6개월 정도 50% 지원을 받잖아요. 일례로 저희는 10, 20, 30년 차의 단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0년 차 된 배우가 9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신입단원이 들어와서 183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월급을 나눠주는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자괴감이 생겨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단원은 10년 차 단원인데, 정작 연수단원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이제 배워가면서 그 월급을 다 받아가는 거죠. 그러다 지원제도가 끝나면 그만두기도 하고. 저희가 보장해줄 수 있는 측면이 없어요. 대신 저희 같은 경우는 97년부터 4대 보험을 시행한 선두적인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보험제도에 적용받을 수 없고, 정작 30년 차 배우가 150만 원 받고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청년예술가 활성화 측면에서의 제도는 좀 더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받쳐주고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심의에서 단체 내의 인건비는 지출할 수 없다, 대표는 지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동인 극단으로 보조사업에서 월급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작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걸리는 거예요. 과연 **자생적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지원제도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세 번째로는 공연예술특성화 극장이라는 사업을 대전에서 나름대로 야심 차게 준비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렵게 진행했고 올해도 열심히 단원들과 논의해서 꾸려보자고 정리했는데, 한참 뒤늦게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전체 소극장에 다 나눠주기로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재단과 중복되면 지원 신청할 수 없다고. 공연예술특성화 극장이라는 건 그야말로 공모를 할 때부터 특성화극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 맞는, 그 장르에 맞는 성격의 극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고 해놓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보편적 지원이라는 건지. 그 안에서 **전업으로 꾸려나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시행해 나간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흥 예술인 사업을 보고, 어쨌든 저희 작품 반응이 좋아서 같은 예산에 같은 작품으로 올해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 줄은 거예요. 다른 단체 예산을 보면 실제 예산의 크기와 움직임을 아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깎였어요. 2~3명 출연하는 다른 단체보다 열악한 조건으로 예산이 심의된 거죠. 도대체 이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심의가 결정된 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연수단원제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저희가 가르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 활동할만하면 떠나거나, 아니면 저희가 안고 있어야 해요. 그 예산을 다 안고. 절대로 월급을 줄일 수 없거든요. **연수단원의 연차적인 지원이나 단체 내에서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을 보완할 수 있었으면 해요.** 사회적 기업처럼 연차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80%, 60% 이런 식으로. 그것도 지금은 6개월만 50%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단체에서 알아서 벌어서 단원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엔 중복지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차단되어 있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서류에 대한 절차는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회계업무, e나라도움, 여러 가지 정산보고에 대한 서류들. 이런 걸 최대한 간소화해주는 것이 현장 사람들의 일인데 꼴랑 얼마 받고 정산하고 처리하느라 기운다 빼고. 이것도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연말 되면 정산하느라 바쁘고 정산과 동시에 신청하느라 바쁩니다.** 신청하는 기간은 3주, 결과 나오는데 2달씩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올 한 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나중에 안 되면 이제 우리 뭐 하지? 그제야 다른 걸 찾으면 막막해요. 이런 부분은 회계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기간도 회기별로 한다든가 2년 차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1년 살이 먹고 사는 하루살이도 아니고 그런 감정으로 사는 게 안타깝고, 여러 특성이 있는 단체들이 해체되고 있는 위기가 많이 있어요.*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단체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나름 고용보험이다 해서 개인 예술가들 4대 보험도 좋은데, 한편으로 먼저 4대 보험과 단체 특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팀에서는 우리도 이제는 다 그만두고 해체하고 각개전투로 살아가야겠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면 좋겠습니다.

복**

이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공정한 예술 생태계, 지역 격차 완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어떤 사업은 서울에 100% 가기도 하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과 균등하게 간 경우도 있습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같은 경우는 보편적 지원인지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에 발맞춰서 움직여야 한다고 하면 **지원율에 맞춰서 지역과 중앙과 서로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이 10개 중에 8개를 냈는데, 지역이 아우성 한다고 지역 5개, 서울 5개 주면 그것도 불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율을 따져서. 제가 알기로 창작 산실 같은 경우는 지역이 선정되는 경우가 극히 가뭄에 콩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지원이 많고, 지역은 가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몇% 냈고, 중앙이 몇% 냈으며, 심의위원은 중앙의 누구누구가 들어갔고 지역의 어떤 위원이 들어갔다. 이런 걸 투명하게 공지하시고,** 선정할 때도 지역이 60%면 지역 60% 주고, 서울이 80% 내면 서울 80% 주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주고 공시하면 돼요.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서울 공시율 따지면 80% 냈고, 지역이 20% 냈다.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지역은 항상 홀대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진흥원이었을 때부터 지역은 홀대받았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은 화이트 리스트였고. 지역은 언제나 블랙리스트였다. 아마, 들은 분들 있을 겁니다. 지역과 서울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비율을 따져서 가는 방법도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저는 대전에서 연극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심의 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답변이 오기를, 심의 지침에 의거하여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총점 외에는 점수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답변의 이유가 공정성을 위해서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충분히 공정하게 심사했다면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해진 지원금 내에서 어떤 팀을 선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겠지만, 저희도 지역에서 작은 대회를 할 때 심사위원들의 심사 내용을 녹취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의문이 생기는 팀들이 요청하시면 그 녹취록을 들려드리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연극제 같은 경우도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단체에서 작은 대회를 할 때도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녹취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공정하게 심사하셨다면 저희도 충분히 납득이 될 거라는 의견입니다. 심사위원들의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다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심의 규정이라는 부분을

바꿔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위원회 지금 심의 지침이 총점이나 평균은 공개할 수 있고, 총평은 어차피 다 공개가 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다섯 명의 심사위원의 개별 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 궁금한 건 전체적인 심사 내용이에요. 심사위원들이 서로 이야기한 내용이 납득이 된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공정한 내용이 있고 어떤 특혜가 아니라 이런 사유로 이 팀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이면 떨어진 팀들, 선정된 팀들이 납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복** 이 부분은 젊은 세대가 올라올수록 더욱 심각하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심사위원들이 몇 가지 경우에 따라 구성되면, 주무부서장이 심사위원님들께 사업의 목적과 신청건수, 부정수급, 성희롱, 장기미정산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정보를 드리고 진행합니다. 사무처에서 심의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 외에도 심사위원분들이 심의를 공정하게 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관기관의 법무, 평가담당, 언론 쪽에 계신 몇 분들을 간헐적으로 참여시켜 모니터링하는 공정 심의 평가 담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역할은 심사 과정에 불공정한 발언이 있는지 등의 대해 과정을 참관하시고, 결과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주십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녹취를 하고, 심사과정을 정보공개 청구 들어왔을 때 공개하는 경우까지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견으로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때로는 심사위원분들이 부담감도 있는 발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 저희는 사단법인, 기구니까 가능하고 기관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이나 어떤 걸 발견됐을 경우에 감사를 요청했을 때는 녹취록만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거죠. 그걸 갖추고 있어야지, 그게 없을 때(심사 녹취가 없을 때) 부정행위를 가릴 수 있을까요?

예술위원회 심사위원분들도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현재 심사위원 분들에게 권한과 대비해서 너무 무거운 책임을 드리는 구조로 가게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예전에 실시했었던 책임심사위원과 같은 제도를 둬서 신청 예술가분들로부터 이의가 들어왔을 때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선정된 단체의 사후평가까지 연계되는 책임 심사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심사과정 전체를 녹취해서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심의과정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개별점수에 대한 공개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저도 말씀드린 부분이 녹취해서 무조건 공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지금보다는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별 점수, 우리 단체뿐만이 아니라 타 단체의 총점까지 알고 있어야 납득이 될 것 같아요. 비교가 가능한 기준이라든지.

예술위원회 전체 순위요?

이** 네, 그런 부분이 같이 공개된다고 하면. 물론 사람마다 각각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그렇지만 **여럿이 함께 보고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학교 이**입니다. 자기 편곡과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계속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음악대 학생들 위주로 많은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술의 주관적인 면을 보완시키기 위해 각 분야의 대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심사평이 예를 들어 이유, 점수, 부족한 점, 순위 등을 평가받은 예술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대와 연주 기회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숨어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되었던 공연을 학교와 같은 큰 시설뿐 아니라, 문화동아리 등 작은 시설까지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종합해봤을 때 예비 예술인들, 대학생들이 점수에 합당한 심사평이 필요하지, 점수만 받는 또는 불합격을 통보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학교 예술대학 윤**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술 분야 대학생과 갓 졸업한 학우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전은 지역 소속 4년제 대학 중 3개의 대학이 예술대학이 있고, 그 외에도 실용음악과 등 많은 예술계열 청년들이 양성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예술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서울로 나가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전은 예술인들이 살아남기에 지원이 부족하고 문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청년예술인으로 살기에는 불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정보가 많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문화예술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분명 대전시에도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을 테고, 그러한 지원을 받아 창업이나 경험을 쌓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테지만, 예술 관련 지원이 다른 전공 분야보다 적고 정보 공유와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문화예술 불모지 노잼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타 지역들의 경우 부산과

경상남도는 문화예술 창작지원 공간 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는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창작공간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의 경우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창작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존재합니다. 서울은 많은 대학교들이 있고 예술인들이 모이는 중심지이므로 많은 지원과 공간이 충분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전시나 공연을 한번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무리가 되는 돈이 듭니다. 대관비부터 도록, 팸플릿 비용, 그 외 연습실 공간이나 작업할 때 드는 재료값까지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우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더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면을 부담하여 전시나 공연을 한번 열게 되어도 그만큼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자가 나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제한되게 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창작지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전시나 대관을 할 수 없으며 졸업한 학우들이 쓸 수 있게끔 대여·지원하는 공간이 따로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술계열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지원체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학교 내 전시 외에 다른 전시를 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예술인 패스카드의 경우도 개인 전시나 공연을 몇 번 이상 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의 금전적 문제와 공간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학의 도시, 교통의 도시라고 불리지만 문화적인 부분에서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의 예술대학 관련 학우들에게 지원이 부족해지고 졸업만 하고 타 지역이나 타 대학으로 떠나는 악순환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전 내 예술전공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전에서의 예술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게끔 실질적인 지원과 그에 따른 홍보방법,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 간담회가 오늘 처음이고 9번을 하는데 청년예술인 정책은 지역의 현실을 좀 직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다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데, 통계를 보니 2020년 3~4월까지 수도권 인구 유입의 75%가 20대입니다. 출산율도 봤더니 세종이 1.47%. 결혼하면 1명 하고 0.47명 더 낳는 거네요. 서울은 0.74%. 결혼하면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꿈을 품고 서울로 간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결국은 지역에서 양성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서 애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난달 발표를 보니 수도권 인구가 50.2%, 신용카드 사용액도 72.1%, 1,000대 기업 본사가 수도권에만 75.4%. 왜 20대가 수도권으로 가는지 이런 수치가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에 청년예술인들이 남아있으려면 시장이 형성되어야 해요, 문화예술시장.** 그냥 문화예술 지원금 10억 주고 20억 배분하니까 창작지원을 지역에서 하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모든 역할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7:3, 수도권이 7 지방이 3. 청년 인구들은 다 지역에서 커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지역과 수도권이 이런 격차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지역에서 어떻게 청년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10억이니 20억이니, 예술창작 지원금, 청년 쿼터제로 너희들끼리 경쟁해서 얼마 줄 테니 가져가라. 이런 형식의 청년예술인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청년예술 지원 관련된 정책이 뭔지 궁금해요. 찾아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비전과 정책 방향, 세부 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알려주시고 **수도권과 지역은 상황이 다르니까 지역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정책 비전은 뭐다,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걸 제시해야 희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고**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젝트 고**입니다. 저희는 민간예술 단체로써 청년예술가들을 돕기 위해서 자선 전시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전시회의 자체적인, 절대적 수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지원 사업을 나라나 시에서 주관하는 경우도 좋겠지만, **결국 예술계 전체 파이를 위해서는 민간예술 단체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주셨지만 일단 저 역시 이야기를 하자면,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술가 자체에 해주시는 것도 있고, 예술단체에 해주는 것도 많은데, 민간에서 전시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돈이잖아요. 가장 큰 게 대관비입니다. 제 생각에 **갤러리 카페도 많고, 화랑이나 민간에서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의 지원금을 드리고 청년예술가들이 개인전이나 단체전을 할 수 있는 벽을 낮춰주면. 이런 전시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내고 싶습니다.

이**

저는 디자인과 섬유 도자를 전공하고 졸업하고, 1인 사업장 대표로 캐릭터 일러스트 작가 활동 중인 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작가이자 작은 사업자로서 핸드메이드 도자기, 스티커 등 다양한 굿즈 상품들의 판매로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주로 백화점이나 소품샵 입점, 또는 플리마켓 등에 행사에 참여하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작년 6월 첫 사업자 등록 후 지난 11개월간 현재 진행 중인 것 포함하여 17개 입점을 했고, 그중에 최대 42.7%까지의 판매 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수료와 입점료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엔 오프라인의 높은 수수료는 이해하려고 해봤습니다. 특히 높은 임대료를 포함한 역세권 입점 같은 곳이요. 그런데 하지만 온라인 행사 수수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S 비용이라며 고정된 1만 원을 포함한 37%의 수수료. **제가 가장 힘든 점은 이 수수료가 간이과세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수수료율이라는 점입니다. 즉 작가나 어떤 상황이든 사업자 등록증 기준에 상관없이 부가세가 포함된 수수료를 직접 내라는 거죠.** 여기서 간이과세자란 연 8,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을 말하며 이는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사실상 이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수수료를 계약 후 입점 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되려 간이사업자라 입점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프리랜서 예술 작가들에게 연 8,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사업장과 같은 규모로 수수료 부과는 솔직히 쉽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는 작가들의 작품의 판매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가격 상승의 영향은 자연스레 소비자들에게 이어지죠. 요즘 플리마켓이 예전보다 비싸다는 인식도 강해졌어요. 사람들도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과 가격경쟁을 하다 보면 저도 작가들도 판매가액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저와 같은 작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노동력과 디자인 값을 첫 번째로 제외해버립니다. 자신의 가치를 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죠. 작품을 만드는 최소한의 재료값 혹은 그마저도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대량생산이 이뤄지는 상품과 비교했을 때도 터무니없는 가격인 거죠.** 좋은 예시로 제게 수수료 없었던 행사가 단 두 차례 있었습니다. 소정의 입점비만 있었던 문화예술철도 영등포에서 예술상품마당, 입점비와 수수료 둘 다 없었던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인절미에서 주최한 플리마켓이었습니다. 이때 셀러들은 부담 없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켓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켓들의 수수료가 없었던 이유는 구나 시에서 공간 제작 또는 일부 지원금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발돋움하는 청년예술 작가들에게 지원을 통해 열리는 공간 대여 등, 입점료를 낮춘 예술 마켓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처음에는 작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과의 소통 창구도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이 자신의 가치를 더 이상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

저는 대전에서 연극하고 있는 최**이라고 합니다. 일단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심의 제도나 예술 생태계에 대한 조성이라든지, 청년예술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틀어서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극에서 중요한 건 시장인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시장인데, 저희같이 연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작품을 고르고, 연습하고, 공연하는 과정을 밟잖아요. 이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쓰고, 나중에 결과보고 해야 하고, 처음 진입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제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홍보인 거 같아요. 서류 쓰는 것도 힘든데, 공연 만드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서 홍보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서류를 쓰고 공연을 만드는 건 좋은데 홍보는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공연을 만들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연극시장 자체가 이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전에서 매년 30개가 넘는 작품이 올라가는데, 연극하는 저조차도 관심 갖지 않으면 어디서 뭘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홍보가 잘 되면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연을 한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홍보가 돼서 관객들이 지원받은 공연을 보게 되면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재미가 있다 재미가 없다 솔직하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단체는 지원금에 비해 그만한 작품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그렇지만 이 연극이라는 게 재미가 있으면 홍보를 해서 관객들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다른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원은 잘해주는데 그 이후에 사후 평가나 이런 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관객 모집도 잘되고 잘했으면 내년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받은 지원금에 비해 가치를 만들지 못했다면 다음번에 감점요소를 줘야 저 같은 신입들을 위한 어떤 길이 뚫리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연수단원 이야기하시면서 90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5명이 있는데, 전부 다 맨날 0원이거든요. 그냥 연극이 좋으니까 다른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홍보가 되고 관객들이 모이고, 작품에 대한 어떤 지원금과 비평가나 시민 관객들의 평가가 기록으로 남겨진다면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연극문화가 발전되고 자연스럽게 발전된 문화를 관객들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도 청년예술가 서류를 냈었거든요. 떨어졌습니다. 원래 서류 발표가 4월 초였어요. 그런데 지원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4월 말에 발표가 났어요. 원래 4월 초에 발표 나면 4월 말에 공연해서 연극제도 나가고, 여기저기 평가도 받아보자 했는데 계속 안 나오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날짜를 맞춰주면 단체들이 연간 계획을 세우는 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대관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저에게 빚과 같은 사업이었는데요. **사업에 비해 발표 기간이 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나오는 이런 식은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

저는 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창작공간이라든지 세부 지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대관 장소의 점진적인 증설과 대관료 지원입니다.** 서울을 보면 혜화, 성수, 인사동같이 전시공간이나 공연이 활발한데 반해 대전은 딱히 생각나는 곳이 없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일차적인 대관 장소를 지원이나 증설을 하면 기존 예술가나 신규 예술가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관 장소를 365일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열어서 기초 계획서를 세워 온라인 예약을 하던지. 그런 방식은 추후 협의하면 되겠죠. 신규 예술가가 자유롭게 참여하면 지역의 공연이 자유롭게 활성화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예술가랑 기획팀이 같이 협업하면서 홍보 문제도 해결되고. 대전에서 접근성 좋은 곳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면 플리마켓 같은 것도 활성화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관 장소의 증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복**

중앙과 지역 간 예술 격차 완화가 참 어려운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금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예술을 30년 좀 넘게 했지만, 옛날에 없던 시절이 오히려 더 격차가 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는 공연하면 공연장이 찼거든요.* **지금 예술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지원금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원금이 시민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자생력은 절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지원금이 아니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 돈 받아도. 아까 청년 정책에 대해 얘기했지만, 어제 그제 발표한

아르코 청년 지원금을 봤는데 작게는 400만 원 제법 많이 받는 게 1,500만 원, 보통은 700~8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청년예술가에게 주지만 제가 보기에는 빚더미에 앉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저 혈기 넘치는 청년들이 이 돈 받아가지고 얼마나 혈기 넘치게 작품 활동을 하겠어요. 자기 돈, 빌린 돈 다 부어서 할 거예요. 제가 청년 나이일 때는 솔직히 극단을 만들거나 제작을 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났고, 선배들 따라다니는 시대였다면 *요즘 세대들은 진취적입니다. 졸업하고 나서 자기들 사업장 만들고, 자기들 세계관 가지고서 예술 활동하고 이런 시기거든요. 그들이 가장 힘든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지역 간 격차가 없어지고 청년예술가를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직접 지원할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실패한 정책이 있지만 이제 보완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지원정책으로 국민한테 어떻게 티켓을 지원할 것인가. 그 티켓이 공연장 안으로 들어오게끔 예술가와 예술 단체들은 얼마나 뛰어나게 노력을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것인가.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과 지역의 예술 격차를 줄이려면 각 지역구마다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티켓 지원이 됐건 어떤 지원이 됐건 국민한테 갈 수 있는 정책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역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됐죠.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대형 뮤지컬, 대형 공연들 쪽으로 티켓의 거의 70%가 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의 관객을 뺏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을 밑으로 내려보내서 지역문화재단에서 티켓 정책이라던가 국민한테 되돌릴 수 있는 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져서 예술 생태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서**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이야기처럼 예술기관의 설자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취업 준비생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이번에 대전 충청권이 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역 인재 할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 예술 관련 기관이 수도권에 비해 너무 적어서 저희 같은 예술인들은 이런 사실을 체감할 수 없습니다. 기관 채용공고를 봐도 그마저도 3년 내지 1년 정도의 관련 직무 경력을 요구하거나, **전공 공부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기업처럼 인턴제 같은 게 활발해져서 경력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마저도 기회가 너무 적어서 힘든 실정이에요.** 전문 순수 예술인의 길과는 조금 다르게 예술 관련 직종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소위 위원2 예술 관련 일자리 중에서도 예술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업무를 이야기해주셨는데, 사례로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뉴딜 일자리라고 시 자체에서 지원금을 부여하고 자치구 문화재단이나 관광문화재단을 연결해서 인턴을 뽑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예술인 복지재단이나, 제도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공공기관 단기 인턴으로 7개월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처럼 **중앙단위 차원에서는 예술창작만이 아니라 예술경영이나 행정 쪽에서도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경력을 쌓고 이직이 많은 것 같거든요.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공감됩니다.

한** 공연기획과 연출 쪽을 맡고 있는 한**라고 합니다. 일단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을 보면 작년 상반기 때는 횟수 같은 게 60~70%까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관객 비율로 따지면 공연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미술, 더 많은 예술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대한 예술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사업적인 면에서 대책이나 방안을 내지 못하고 그저 예술 단체에게 비대면 방안을 내뱉고 맡아서 해보라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러다 보니 예술 단체는 가장 접근성이 높은 동영상을 생각하게 되고, 이에 대한 플랫폼은 네이버TV나 유튜브 딱 두 군데 정도로 한정적입니다. 이 와중에 모바일 빅데이터에서 발표한 얘기에 따르면, 10대에서 70대까지 유튜버가 가장 많은 사용량을 보이고 지금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술인들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좀 더 퀄리티 있게 영상을 만들고 올리려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예술인에 대한 사례비, 음향비, 조명비에 영상 제작비, 영상 임차료, 영상 편집기에 대한 예산 부담이 점점 늘어납니다.** 퀄리티는 올려야겠지만 부담감 또한 같이 올라가고 있고, 아까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이 1,500명에서 2,000여 명까지 올랐다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지원 사업에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좀 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청년예술가가 됐든 예술가가 됐든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작년에 기존 사업과 큰 차이를 봤을 때, 아트 체인지업과 코로나19 긴급 창작지원 사업밖에 없었다고 생각됐거든요. 아트 체인지업이 작년에는 문화재단 쪽에서 진행했다면 올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측에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외에도 **비대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이랑 큰 차이 없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 저도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사업 같은 공연예술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 아트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이 어려운 점도 있었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도 홍보를 같이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다른 단체에 대해서 봤었을 때 충분히 좋은 기획 의도와 좋은 음악들도 많이 만들었지만, 알고 있는 예술인들만 알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확산세가 더 뛰지 않았을까 하는, 사후 대책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한**

저는 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무용을 10여 년째 하고 있는 대학 입시생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예술가의 꿈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입시 준비생들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작년 코로나19로 각종 대회와 공연들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작년 입시 준비생이 재수강을 하거나, 많지는 않지만, 소수가 자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고3인데 휴학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재수생들과 선배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선배들의 강압적 행위나 행태들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중간에 자퇴하거나 검정고시를 본다는 친구들도 생기고, 꿈을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주제와 다르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젊은 예비 예술가들이 희망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

저는 온라인 미디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기술과 융합이라는 사업 공모 마감을 했잖아요. 온라인 미디어라는 사업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급조돼서 했지만, 이번에 중앙으로 가면서 지역단체는 또 소외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유튜브 채널도 열심히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지만, **지역에서 온라인 미디어나 여러 가지 융합된 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인프라도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홍보도 굉장히 안 되어 있고, 어떤 팀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도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산업진흥원이라든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그전에 활동들을 쭉 훑어서 리서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중앙에 있는 팀이나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아무리 잘하고 싶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도 협업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매칭이 돼서 서울에 있든 다른 지역에 있든, 경제적이거나 시간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미디어 자체가 창작 활성화인지 새로운 유통구조인지, 솔직히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도 어렵고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기초예술 분야가 좀 고루하기도 하고 신념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에 막 맞춰가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를 그 바탕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토론회가 소통한다기에 왔는데, 줌(Zoom)으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진예술가, 중견, 아니면 장르별로요.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도 그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들과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 구조인가 이런 생각이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청년예술가 이런 이야기가 있네, 이런 부분도 의아했고요. 또 하나는 지역재단이 지역 예술가들과 현장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소통하고 있는데, 지역재단이 같이 이야기하는 구조가 되던가 해야 하는지, 왜 갑자기 예술위원회에서 다이렉트로 하시는지. 오늘 대부분이 예비 예술가 내지는 신진예술가였어요. 이럴 거면 신진예술가끼리, 중견끼리 아니면 장르끼리, 좀 더 심도 있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보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답변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는 답변을 들으러 왔다기보다 저희 얘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다들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이야기를 듣고자 왔다면 저희 이야기를 실컷 하고 가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권역별로 간다면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보고서가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 특색에 맞는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충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권역별인가. 오히려 한두 분이 오셔서 미리 논의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제가 주제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의미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특성별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권역도 필요 없다고 보고요. 제가 국민참여 예산에 좀(Zoom)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권역별보다 지역별로 해서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훨씬 소통이 좋고, 우리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도 이야기가 같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그다지 다르지 않거든요. 이번에 온라인 미디어도 지역에서 하지 않고 왜 중앙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구**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지역 문화예술 거버넌스의 활성화입니다. 예술인들에게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문화예술 거버넌스가 더 대두되어야 하고,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더 필요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예술인들이 설자리를 잃었고,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더욱 지역 문화예술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시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시, 예술인들은 항상 어떻게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지, 기초 광역에서 더 나아가 중앙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예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매뉴얼 수립과 함께 기초, 광역, 중앙에 더 탄탄한 문화 거버넌스의 성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축을 위한 많은 방안들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서의 전문가와 문화예술 종사자들, 시민들과의 주기적인 공론의 장 마련입니다. 이 공론장의 예로 중구 문화재단의 라운드 테이블, 거버넌스 테이블, 협치 테이블이나 성북문화재단의 성북문화시각네트워크, 공유성북 원탁회의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개인, 단체 예술인, 문화예술 교육자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종사자,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의 주기적인 대책 또는 청년예술인의 네트워크, 청년예술인과 중견 예술인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분야별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등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문화예술 사업들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며, 문화예술 종사자들과 시민들의 니즈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이런 주기적인 공론의 장이 잘 마련되어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이 가능하면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 지역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져 지역 예술이 더 활성화될 것이며, 지역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사업제안과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초, 광역, 중앙의 소통과 거버넌스 구축이 더 쉬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서 문화예술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저는 미술디자인 전공하고 있고, 개인 창업으로 사업하고 있는 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 취업 강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 4학년이자 졸업을 앞둔 시기에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강화 사업에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면으로 대전의 여러 대학에서는 코업이나 ITP나,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중소기업을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전 활동을 도와주는 방식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개체가 적어서 학생의 수요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에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소위 위원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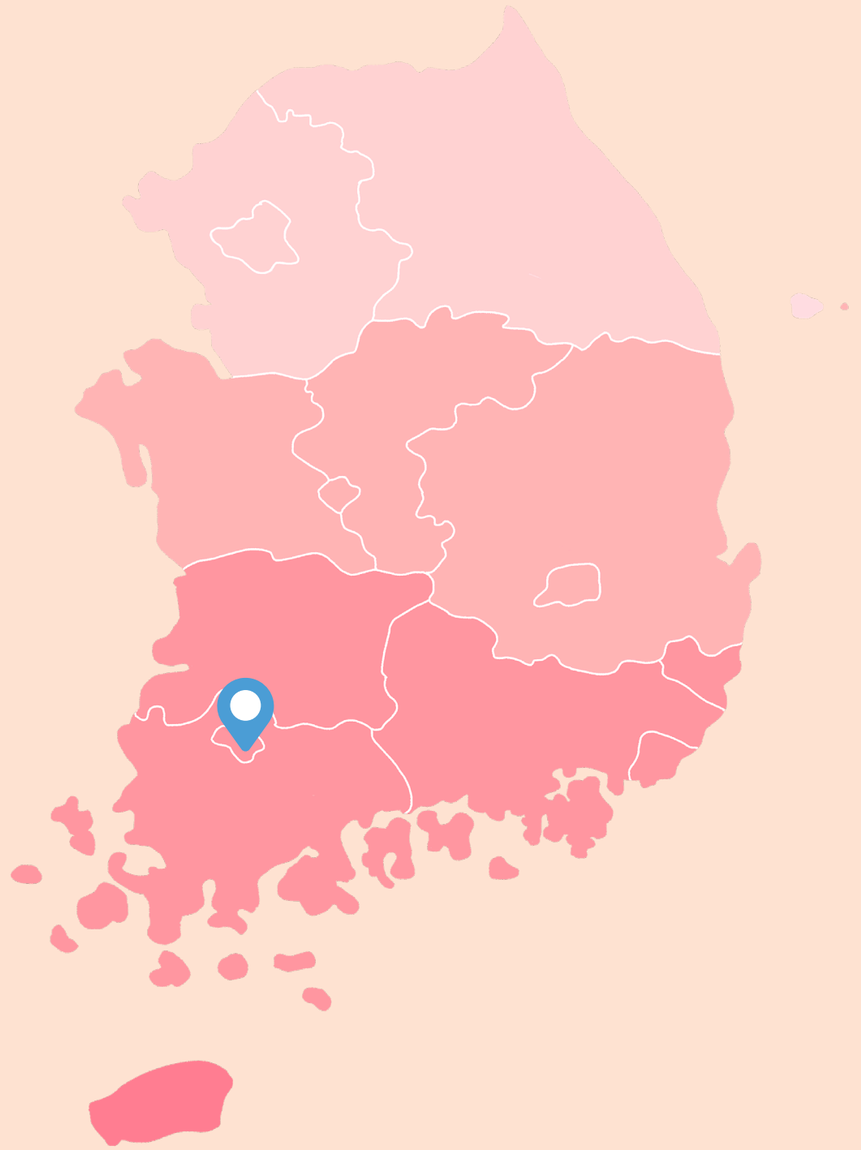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앞으로의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역할이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기관에 제출하고, 현장에 의견을 수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예술위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in.

기타 의견

- ○ 예술계 공정생태계의 필요성
- ○ **(거대 화랑, 갤러리 주도 시각 예술 생태계 문제)** 예술 생태계 진입 장벽이 낮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로컬씬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지역 활동 로컬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 활동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필요
- ○ 지역 예술가 간 간극 완화, 지역 작가들의 활동 기회 및 복지 확대 필요

광주·전남권 — 광주

2021. 5. 7.(금)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광주·전남권 간담회에는서는 현장의 어려움 중에서도 현장 예술인 중심의 예술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심의제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뤘는데, 패자부활 제도 및 지속가능성 확보 제안과 심사위원 및 심사평가 기준 보완 등 심의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무분별한 온라인 중심의 지원에 따른 소극장 지원 대책을 촉구했으며, 타 권역과 더불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향후 방향성과 중견예술인에 대한 지원 및 행정용어의 어려움 해소 그리고 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관해 이야기했다.

주제	주요 의견
창작활동의 어려움	○ 비대면 예술 활동의 가능성 ○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창작활동 방안 ○ 창작활동 공간 확보의 어려움
지원사업 및 심의제도 관련	○ 패자부활 제도에 대한 필요성 ○ 지원사업 일정에 대한 일관성 ○ 온라인 지원에 대한 현장 예술인들과의 공동연구 및 안전성 확보 ○ 민간소극장 지원 혹은 활성화 방안은? - 지역민간공연장에 대한 지원정책과 상주단체의 민간공연장 확대 등 ○ **(아르코 창작 지원금)** 반복적으로 받는 작가도 있지만, 매번 탈락하여 한 번도 못 받는 경우 신청이 무의미함→작가들이 고루 받을 수 있는 기회 희망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상주단체 무료공연, 소극장 지원사업 관련 1 단체 1작품의 나눠주기식 운영 문제 ○ 지원 자격의 진입장벽 및 수상 실적 가점에 대한 문제 ○ 정산에서의 수익금 처리 문제로 인한 자생력 강화의 한계 ○ 지속하던 지원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에 따른 문제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본인 아티스트 사례비 지급 불가 문제 - 개인으로 지원한 아티스트들에게는 스스로 사례비를 책정할 수 없음 ○ 지원절차, 정산절차의 간소화 필요성 ○ 중견 예술가, 우수단체 보호를 위한 제도 요구 ○ 지원사업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데에 따른 사업 이해도 저하 ○ 심의 방법 및 기준의 다양화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	○ **(계약서 작성과 예술인 권리 보호)**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임에도 시행하지 않는 단체 존재하고, 개별 예술가들은 이에 맞설 힘이 없음 - 재단 도움 요청, 신고하라는 것 이상의 강력한 방침과 제도 안정 필요 ○ **(예술인에 대한 공정 보장 약속)** 프리랜서 활동 시, 고용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계약, 정당한 보상, 안전한 일터를 제공받지 못함 -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속 수혜를 위해 문제 호소도 어려움. 예술인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 논의 필요
중앙과 지역 간 예술 격차 완화	○ 지역문화 예술 지원금 확보, 중앙 정책의 지역 평준화 등
기타	○ 예술인 인정 시스템의 보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이하 현소위 위원)

현소위 위원1 한국문화예술문화위원회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광주·전남권 지역간담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갑자기 말을 시작하려면 쉽지 않겠지만 창작활동 관련해서 소소한 것도 좋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진 여러 창작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 광주 소극장협회 ***이고 한 극단을 이끄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연극 분야를 한지 광주에서만 올해 30년째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지원사업에 대한 고민도 많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단체들은 잘해서 뽑으셨겠지만. 올해 꼭 해야만 하는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들이 따로 있거든요. **예술가로서의 목소리로 지역을 대변하거나 특화하기 위한. 그런데 패자부활전 같은 창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나 관계자를 예술가 개인 나름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측에서 그런 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현장 예술인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했고 그래서 비대면 공연을 지원하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살펴보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쪽으로 방향성을 너무, 실험이나 전혀 근거 없이.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한데 선진화된 외국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해 실험을 하고. 공연장의 안정성을 확보해놓고 나서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현장 예술인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실험 없이 바로 온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 관객을 만나야 하는 현장 공연 예술인들은 아직도 온라인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실험 없이, 증거 없이 계속 온라인 쪽으로만 확대해가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저는 소극장협회이다 보니 극장들을 지켜드려야 해요. 극장들은 지금 아사 직전에 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온라인 쪽이니까 우리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실험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인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영화관은 돼요. 근데 왜 공연장은 안 되나. 그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쪽에서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호나 현대나 CJ는 되는데 우리 민간 예술인은 왜 안 되냐는 거죠.** 이 부분에 답변을 주십시오.

예술위원회1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에 추경으로 했던 온라인 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술 활동이 공연장에서 이뤄지지 못하면서 어쨌든 예술 활동이 지속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큰 규모의 추경사업으로 진행되었고, 각 지역의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희 작가들은 아르코 창작지원금에서 받을 수 있는 게 그 지원금 한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에서 받는데 **서울의 지원금이 지방보다 금액 차원에서 다르잖아요. 누구나 지원받기를 바라는데 보면 지역의 숫자가 적거니와 받는 작가들 이름을 보면 한 2~3년에 걸려서 받는 사람이 계속 되돌이표로 받거든요.** 작가들의 기준이나 수준이 꼭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폭넓게 보고 더 다양한 작가들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몇 번 봐도 그 사람들이 자꾸 기간 지나면 또 받고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숫자 면에서도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작가들이 지원받아서. 작가들한테는 어떤 수익이라는 게 없잖아요. 시집 낼 때나 소설 창작을 할 때 그 책으로 말하는 건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비로 내야 하는데, 자비로 출판해서 보내주는 우편료까지 다 한다면 자괴감이 드는 작가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받은 사람이 자꾸 몇 년 지나면 또 받는 것은 좀 더 깊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소위 위원2 좀 전에 작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참여자분 말씀과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면 지원 심의할 때 최근 실적을 3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이 된 사람들은 계속 실적이 있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계속 거기서 누락이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관련 논의를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이게 상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심의제도와 관련된 건데 저는 전통 쪽을 맡고 있는데 이 분야도 심의위원이 너무 적어요. 왜 그런가 보니 그동안 관례상 심의위원은 그쪽에서 요청해서 가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공개 모집할 때 신청서를 냈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아직 모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위원이 더욱 다양해져야 하고 계속하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수준에서 같은 맥락으로 선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보완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의할 때 보면 저희 작품을 어디에 발표했느냐가 나오거든요. 그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기존에 인정받은 사람만이 발표할 기회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신입이나 알려지지 않은 작가지만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발표 지면이 없었다면 이미 탈락한 거거든요. 어디에 발표했던 지면 약력을 넣으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 않나. 왜냐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계속 올라갈 기회가 없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강** 관련해서 첨언을 드려도 될까요? 연극 같은 경우 **지원서류 신청서에 수상 실적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의 평가 기준에 보면 가점이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연극만 보면 연극단체가 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 소속이 되지 않으면 경연대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광주에서 생활문화단체로 많은 단체들이 생겼어요.

실상 광주 연극협회 소속 단체는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 수상내역을 꼭 넣어서 가점까지 줘야 하나. 이제는 그것에 대한 평가기준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상주 예술단체 부분이에요. **상주 예술단체가 지금은 관 기관, 공공극장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공극장이 몇 개나 될까.** 제가 보기에는 가동률은 충분한데. 상주 예술단체가 갖고 있는 건 극장의 가동률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술단체의 자립,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공공 문화예술기관에 있는 곳만 해야 하고, **예술단체가 자립하려면 이것에 수익을 내서 차기 작품을 제작하거나 내년 운영경비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정산 과정에서 수익금 내역서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겠냐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공연이 무료인 거죠.** 정산상에 수익금 처리가 안 되거든요. 안 그러면 올 회계분기 안에 그 수익금 처리를 못해서 반납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의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많이 바꿔주시면 좋겠고, 예전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 사랑티켓 제도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로 현장과 소통을 하는 게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싶고요. 오늘 소통위원회 하면서 말할 데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메르스 사태 이후에 티켓 지원이 있었어요. 일시적인 지원인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티켓이 사라져서 민간소극장은 얼마만큼 피해를 받느냐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학교 단체 공연, 문화티켓을 쓰는 학교는 사랑티켓을 거의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대학로는 아시다시피 오픈 2시간이면 사랑티켓이 매진이에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 학교에서 단체 공연을 관람하는데 그걸 많이 이용했고 그 이익이 문화체험관과 학생에게 직접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너무나 많은 혼란이 생긴 거죠.** 5천 원만 부담하면 공연을 봤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1인당 2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전년도 예산 규정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이 미처 안 되어있고, 교육부와는 전혀 소통이 안 된 부분인 거죠. 그런데 다시 코로나 사태가 왔고 여러 가지 긴급 지원이 있지만, *소극장을 운영 입장에서는 파생적 지원금 같은 것들이 자체 데이터화 되고 그것이 극장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지원사업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소위 위원1 사랑티켓은 코로나 관련해서 나왔던 티켓을 사주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강** 네, 신청하면 24세까지. 노년층은 65세부터 사랑티켓을 등록하고 신청하면 1년에 1인 4장씩 구매할 수 있는. 그리고 단체들도 년 2회 단체에서 구매하고 관람할 수 있는 제도였거든요.

현소위 위원1 저희가 이름은 다르지만 공연장, 미술관 티켓 지원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과 사랑티켓이 성격이 달라서 말씀 주신 거죠?

강** 많이 다르거든요.

장** **창작활동을 준비하는 공간, 그리고 준비된 창작활동을 실험적으로 표현해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문제는 대학 예술인이든 청년예술인이든 기성 예술인이든 모두에게 절실하거든요.** 이런 공간적 지원에 대한 고민이 정책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창작활동 지원금 예산이 전보다 증액된 건 환영스러운 일인데, 사실 저희 예술계 영역에서 지원금만으로서 창작 활동하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지원이 더해지는 형태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먼저 투자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분야의 예술계가. 그래서 개별 분야 예술계에 대한 예산도 증액이 되는지 그런 고민들이 있는지.**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공공예산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가장 잘못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금액만으로 창작하다 보니 계약서 작성도 어렵고, 공정한 보상도 어렵고, 적절한 사회보험 가입도 어렵고. 공적 영역에서 이런 문제를 시작되게 만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별 사안에 대한 예산 증액도 고민이 되고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현소위 위원2 공간 지원 말씀하신 건, 공간이 부족한데 그런 사업이 있는지 물어보신 거죠?

장** 네, 지원이 늘어날 수 있는지.

현소위 위원2 현재 대관료 지원이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건 연습실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서울문화재단은 연습실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의 지원은 중요하지만, 대관료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오히려 지역별로 이런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면 지역에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심의한 적이 있는데 가슴이 아팠던 게 실제로 공연 연습실 쓰고 있는 게 다 지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30만, 많게는 60~80만 원, 그 정도 지원사업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데 선정되는 건수는 많지 않아요. 지역에 그런 사업이 없다면 광주문화재단에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는 연습실은 아니지만, 대관료 지원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공연장 대관료만 했었어요. 그런데 공연하러 들어가면 조명, 음향, 장비나 인력비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게 지원이 안 됐었는데 점차 개선돼서 몇 퍼센트까지 지원이 되는 등 점차 좋아지고 있고. 자꾸 공론화가 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우선 지역 예술인들의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각예술 파트에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중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전시 사전 연구랑 전시 지원, 비평 발간 지원이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청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사전 연구 지원사업을 받은 예술가들은 그다음 해에 그 사전 연구를 배경으로 전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비평이라든지 사전 연구 지원사업을 한 번 더 받고 싶을 때는 지원 자격조차도 주어지지 않아요.** 가까운 예로 광주와 전남문화재단은 청년예술가들에게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은 주어집니다. 청년예술가들이 비평 발간 지원을 두 번 받고 싶지만 딱 한 번 하고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서 두 번 받으면 속된 말로 짬이 채워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대선배님들과의 경쟁을 뚫고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 발표 일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보통 12월부터 2월까지는 사업 계획서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보통 발표가 2월 말에서 4월 초에는 나온다고 가정하고 한 해의 일정 다 세우고 있는데,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6월 2일에 결과 발표가 나왔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심사가 지연돼서 6월 초에 나왔다는 건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은 엄청 줄고 지원 수는 급증해서 (원래 4월 초에 나온다고 말씀했지만) 거의 5월에 가까운 4월에 나왔습니다.** 아까 심사위원 선정하는 과정 속에 많은 과정들이 있고 적은 수의 심의위원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살이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예술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건 약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꾸 일을 벌이려고 하는데, 막상 됐을 때는 돈도 못 벌면서 죽어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고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세 번째는 지원사업 심의제도 관련해서 제가 썼던 부분인데 저는 요즘 독립큐레이터로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아티스트 피(artist fee)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독립 기관에서도 다양한 미술기관에서도 아티스트 피(artist fee)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작년에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과 광주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청년예술지원사업 두 가지를 받았을 때 그래도 예술위원회에서 받은 게 더 기분이 좋은 건 스스로에게 기획자 사례비를 측정할 수 있었고,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서는 스스로에게 아티스트 피(artist fee)를 책정하지 못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가님들의 개인전이나 2~3인의 단체전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글을 쓰는 비평가도 있고 그런 다양한 작가들을 섭외해서 하나의 전시를 이룰 수 있는, 독립큐레이터들이 할 수 있는 단체 기획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 **시각예술 분야에는 종사자가 여럿 있는데 왜 하나의 유형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비 책정에 대한 지침이 간단하게 있으면 좋겠는데 여쭤보면 항상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정산절차 간소화 필요성도 주요 의견에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정산절차가 처음에 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짜증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도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은 쉽더라고요. 다만 그 정산절차 과정에서 막연히 지원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결과 발표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을 끼시잖아요. 물론 회계법인에 책정되는 액수가 있어서 그들이 해야 하는 몫이 있지만, 정산절차 자체가 회계법인이 끼면 나몰라 하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소위 위원3 저는 해금 연주자입니다. 해금 연주자로 어릴 때부터 연주했고 지금 두 아이의 아빠로 살면서 예술가 가족을 꾸리고 있어서 오늘 질문에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공감이 가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술가마다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그 지원의 성격이든 정산 과정의 성격이든 저 같은 경우는 과정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산 과정에서도 예술가를 배려해주는 사업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 보니 지금 제가 주로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연계형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청년예술단이라는 지역연계형, 청년연계형 사업을 했다가 저랑 너무 잘 맞는 걸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는 그 재단과 공동기획단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재단이 설립돼서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올해는 지자체랑 연결해 주셔서 지지난 주부터 협치를 조직하게 됐습니다.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경험이에요. *예술가가 지원사업에만 의지해서 지속가능성을 꿈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예술가가 다 유명한 예술가가 될 수 없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명한 예술가보다 나이 들어서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예술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원제도가 가진 문제들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끝까지 꿈꾸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지역에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역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강동구인데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들을 면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술가 사업을 하더라도 소외계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술교육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런 것도 예술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강점을 살리는 부분으로 지역 예술인들과 지역재단을 통해 지자체와 협업해서 자체적인 연계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에서의 궁극적 해결책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 올해로 연극 30년인데 저보다 위에 선배님들이 계세요. 원로 취급이 싫고 중견 예술인으로서 계속 활동하고 싶은데, 중견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다. 청년예술가들도 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명예의 전당 같이 우수 중견 단체들이 버텨줘야만 뭔가 이 도시에서 젊은 청년예술가로, 중견 예술가로 그다음 원로 예술가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디딤돌이 돼야 하는데, 지원금이 다 떨어지면 올해는 못하는 건가. *그런데 청년예술가들은 시대에 발맞춰서 많은 아이템,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지 저같이 30~40년 돼버리면 갖고 있는 레퍼토리나 작품을 보호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나 작품 위주 평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거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쪽에서는 **중견 예술가에 대한, 그리고 우수단체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따로 없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술위원회2 회계검사 같은 경우 다 아시겠지만, 부처 내에서 문화예술 지원 규모가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인 자체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수익이 안 나서 정산 업무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또한 예술가분들이 회계법인을 찾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찾아서 지정해주라는 현장 의견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회계법인 몇 곳을 찾아서 지정하고 대신 단가를 낮추었던 건데 취지와 달리 오해를 하시고,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강**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회계법인을 어떻게 하든 불편함이 없는데 **지원사업 내에 회계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싶어요. 더 싸게 할 수 있을 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쪽에서 회계법인도 그냥 선정이 됐겠어요, 입찰해서 선정이 됐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원사업비 내에 회계비용이 있다면 굳이 그걸 지원사업 내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전체 회계를 맡겨버리고 지원사업은 끝자리가 0으로 안 떨어지더라도 얼마 얼마라고 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냐 하는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 사진 쪽에서 일하고 있고요. 지역문화 재단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좀 이해도가 전남 쪽이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공지사항을 이해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대구 출신인데 직장을 전남 광양에서 다니면서 30년 정도 살게 됐습니다. 전남 문화재단에서 제시하는 공모사업은 이해가 쉽던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의 단체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공모내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공업 도시이긴 하지만 시골이에요. 문화인력이 작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뭘 만들려니까 어렵습니다. 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공모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문화예술인으로 인정받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줬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술위원회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최근에 **예술인 인정 시스템 관련해서 인정받는 부분에서 너무 쉽다.** 여기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에서 전공하고 몇 년간 활동한 뒤 예술인 인정받는 사람과 취미로 하다가 어느 정도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예술인 인정받는 사람이 똑같은 취급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한 번 해줬으면 해서 왔습니다.

현소위 위원1 코로나19로 긴급지원사업을 지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전제 조건이 예술인 증빙이었어요.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폭증해서 예술인 증빙 받으신 분들이 1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중에 60%는 서울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업으로 예술 활동하시는 분과 생활예술, 취미 예술을 하시는 분을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이 예술인 증빙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신기하게 생활문화를 하시거나 취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전업 예술인보다 이 기준을 엄청 잘 맞춰서 오신대요. 근데 심사하는 심의위원들이 보시기에 이건 본업으로 예술 활동하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고 취미나 생활예술 분야는 다른 지원에서 받아야 하는데도 들어오고 곤란하니까. 예술이 본업이 아니고 전업하지 않으신 분들, 창작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예술인 증명에 들어오지 않도록 기조로는 잡고 있는데,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 사례비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비까지 명목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지원사업을 받더라도 개인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활동비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원금 자체가 지역보다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아르코 창작지원금에 지원하는 작가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제대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서류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떨어졌지만, 이번에 지원을 하면서 **심의 절차에서 서류로만 해서 선정된다는 게 잔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의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단계별로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도 들고요. 사실 작가들이 텍스트 작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이원 생중계처럼 심의 과정에 그런 게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만 전시해야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르코 창작지원금 할 때 부산에서 전시가 있는데, 창작물이나 실제적인 건 창작자가 제작하고 부담하더라도 운송이나 발표집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소위 위원1 아르코 창작산실에서 운송이나 발표집 만드는 게 부담된다는 부분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운송이나 자료집 만드는 게 힘들다고 말씀 주신 건가요?

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만 하기 때문에 **광주지역 작가가 타 지역으로 갔을 때는 사실 운송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창작지원금의 분야 자체가 그런 카테고리로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 항목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패자부활전처럼 창작지원금이 실패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창작자가 부담하더라도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소위 위원1 그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생기는 문제이지 않나 싶고, 심의 절차에서 서류로만 떨어졌다는 얘기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신청하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서류 심사 통과하고 면접이 없는 사업이어서 말씀하신 건가요.

서** 저는 이 사업이 절차를 다 밟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1차 심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지역 평준화라던지 분야의 세분화라던지 디테일하고 집중력**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시지원에 지원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분야 카테고리도 없고, 지역도 없고 전부 통합해서 뽑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통합적인 부분에서 섬세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소위 위원1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에 이관돼서 그 안에 시각예술지원사업들이랑 각 지역마다 돌아가는 사업들이랑 여러 가지 성격도 상이할 수 있고 방식도 상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주신 부분은 만약에 창작산실에서 시각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지역 관련된 섹터가 따로 있고, 전시를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세분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서** 어떤 부분이냐면 해외 전시지원처럼 타 도시 전시지원이나 그런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윤** 저는 계약서 작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계약서가 단체와 개인 모두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어떤 단체들은 여전히 이상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란으로 주고 서명하라고 한다든지, 사본까지도 그 단체에서 가져가는 등 피 계약자에게는 사본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런 관행들이 좀 있어서 **계약서를 올바르게, 공정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될 때까지 잘못된 관행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든지 강하게 권장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도움을 청하거나 신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술계, 좁은 예술계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술가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도 물론 해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소위 위원1 장르별로 표준 계약서가 있는 것도 있고 출판계처럼 문체부에서 만든 표준 계약서랑 출협에서 만든 표준 계약서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장르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표준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 공공영역의 사업들은 불공정 행위의 일종으로 봐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도 지원하려고 하고 예술인 신문고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예술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 문제라든지 다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예술 현장에서 그런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계약관계 안에서 예술 창작을 이어나가는 게 정착이 안 된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술위원회, 예술인 복지재단, 문체부도 그렇고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생기기 전에는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유관기관별로 통합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예술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통합체계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예술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피해를 입었을 때 권리 구제가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 저는 소극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극단 대표입니다. 아까 지원을 받는 방법, 받을 수 있는 방법,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정리하다 보니 일단 페이퍼를 잘 써야 하고 국공립 지원받으면 되고 어디서 상을 좀 받으면 되고, **결국 페이퍼를 잘 쓰는 걸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친구들도 없을뿐더러 기획안만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원금을 받아서 대학로 가서 다른 예술단체 만나서 회의 같은 거 하면 극단 대표가 오는 경우가 없고 기획자들이 와서 앉아있고, 기획만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이죠. 서류 업무로 보면 절대로 그 친구들 따라갈 수 없겠다고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담당자님이 지역 최소 보장제도로 25% 정도 하려고 한다고 말씀 주셔서 조금 희망을 품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심의위원이 부족하다고 그 말씀을 반복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중장기 지원사업,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중에서 서울이 10개를 다 가져갔습니다. 예술위원회 사업인지 서울문화재단 사업이었는지 그 뒤로도 보면 2020년에 신나는 예술여행 같은 경우는 연극 30개에서 서울이 16개 인천이 2개, 이런 식입니다. 올해 원로 예술제는 29개 중에서 서울이 11개 인천이 1개, 경기가 2개였습니다. **서울·경기 아래쪽은 거의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은 넘볼 수가 없고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예술위원회가 나주에 있는 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게 하는 심의위원을 부족하다고 계속 안고 갈 수 없지 않겠습니다. 저도 가끔 심의를 참석합니다만, 심의하고 끝날 때쯤 되면 서로 얘기를 어느 정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 양심 있는 심의위원이라면 서울이 1~10등이라도 지역으로 몇 개 해주자라는 최소한 요만큼이라도 이런 분들이 계셔야 하는데 간혹 안 그런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예술위원회 쪽에서는 그런 심의위원들을 (물론 단체도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소극장 지원사업 발표가 얼마 전에 났는데 저희 단체는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진 게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70개 단체를 뽑아서 각각 나눠줬습니다. 예술위원회 사업의 매력은 진입장벽이 높은 대신 지원금이 크다는 건데 작년까지는 특성화 지원사업의 최소 금액이 3,000만 원이라 떨어져도 그만큼 장벽이 높으니까 기분이 덜 나빴지만, 올해는 고작 1,000만 원 지원해주면서. 올해 코로나 지원사업 예술단체들 어쨌든 버텨보라고 250만 원 지원하더라고요. 근데 **예술위원회에서 주는 지원금액이라는 게 너무 나눠주기 식 아닌가.** 70개를 고르고 골라서 나눠서 주는데 원래 발표하려던 시점에서 한참 뒤에 발표한 건 아닌가 싶어,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작은 부분에서 속상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부분 하고, 특성화 극장 두 가지에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소위 위원2 예술위원회 시스템을 보니까 나름대로 공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게 뭐냐면 일단 사무처에서 직원들이 계속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알잖아요. 사무처에서 추천하고 또 예술위원회에서 장르별 위원들이 추첨을 합니다. 서로 추첨하고 랜덤을 돌려서 나름 공정한 것이기는 해요. 누구한테 몇 번 전화했고, 누구한테 몇 시에 전화했고, 안 받았는데 한 번 더 했을 경우 그다음 순번으로 가는 이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술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공정성은 지켜지고 있어요. 아까 서울이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을 쿼터를 정해놓는 건 아니고 지역 안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심의위원을 추천할 때도 지역, 나이, 성별 다 고려해서 하다 보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 추천할 수도 없을뿐더러 실제로도 서울을 우선하여 하는 건 아닙니다.

현소위 위원1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심의에서 지역이 소외되는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지역에서 서류 작성하는 것들이 서울보다 못한다거나 아니면 수월성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그런 예술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줄어들어 왔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최소 보장제를 통해서 지역의 뛰어난 예술을 하는 분들이 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아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지역 예술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심의위원 풀(Pool) 안에서 지역에 관련된,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이해도라던지 그분들과 호흡했던 시간성이 없는 분들이 서류만 잠깐 보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 풀(Pool) 안에서도 지역에 관련된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 지금 특성화 극장 지원사업이, 사업이 합해지면서 예산이 줄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소극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극단까지 꾸려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고작 일 년에 천만 원이라는 지원금으로 기획 프로그램 돌리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방금 심의 관련해서 페이퍼를 어느 정도 블라인드 해서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단체, 지역, 이런 것들을 알고 심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에서 기획 내용만 보고 심의하시는 건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술위원회3 저희가 블라인드 심의하는 건 사업별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심의 같은 경우에는 내용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유** 저는 문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와서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단 심의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력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문학 분야에 한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발표되어 있는 인력풀을 보거나 전년도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원로 문학 작가 명단이 발표된 걸 뒤늦게 확인해보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 상황에서 청년들이 심사를 받거나 문예지 지원사업을 위해서 독립문예지를 발간하기 위해 심사 요청을 했을 때 떨어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로작가 같은 경우에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고 청년들이 실험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 역시 전문성의 분야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감점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끔 **인력풀이 얼마나 자주 갱신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심사위원 분들을 구축할 때 성별, 전문성, 그리고 각 분야, 문학 같은 분야는 시, 소설, 그리고 그림책, 어린이 동화책 같은 이런 식의 분야들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한 명 내지 두 명을 선별하는 건지, 각 분야별로 장르를 따지지 않고 통합적으로 선별하시는 건**지 저희는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문예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계약서 불이행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해당 당사자, 피해자가 1인 시위할 때 예술위원회 측에서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노동 착취 사건이 발각되었고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이행조차 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곳에서 문예지를 계속 발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거고 무급으로 이 사람을 계속 착취할 거고 어차피 우리는 문예지만 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출판사는 문예지를 발간할 수 있으니까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출판사, 그렇게 악덕 출판사에서 계속 문예지가 발간이 되는 것보다는 계약을 공정하게 이행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출판사에서 더 다양한 문인들의 텍스트가 실린 문예지가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소위 위원2 심의위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문학 378명, 시각예술 283명, 음악 175명, 연극 뮤지컬이 221명, 무용이 150명, 전통예술 145명, 문화 일반이 170명 해서 1,500명 정도. 1~2명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최종 업데이트된 자료로 알고 있고요. 이걸 분기별로 한번, 1년에 4번 신청을 받았었어요.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분야' 전통예술이냐, 무용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거기서 세부분야가 들어갑니다. 소린지 기악인지 작곡인지, 문화 일반인지, 축제 기획을 하는지. 전통에서도 전통 전체 심의위원에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을 선발하고 있고 결국은 1년에 4번 업데이트되는 건데 여기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게 원래 지금 공개 모집하다 중단된 상태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서 공고가 나오면 여러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야 하고요.

현소위 위원1 ****관련해서 이야기해주신 것 중에 저희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한 취지는 아니었고 실제로 개입은 했습니다. 내용은 이야기해드리겠고, 그리고 환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까닭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경과를 말씀드리면 ****쪽에 노동 착취를 당하신 거죠. 제대로 된 계약서도 안 쓰시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일하셨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엄청난 노동 착취를 당했구나, 한편에 500쪽이 넘어가는 단행본 세 권짜리를 아무 돈도 안 받고요. 편집위원으로 필자를 추천하는 정도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신 거죠. ****쪽이 문예지 발간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술위원회 현장소통 소위원회, 저희 쪽에 얘기를 주신 거 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를 제기해주신 시인 선생님의 요구입니다.
저는 그 시인분의 말씀을 굉장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당장 겹쳐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교환 필자 얘기가 하나 있었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노동력 착취한 부분이 있었고, 자부담으로 측정된 부분에서 고료조차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관련하여 계약서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없으므로 쌍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법원이 아니다 보니)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문학지원부장님이 대구에 내려가서 ****의견도 청취하고 시인분 의견도 청취하고, 사실관계 확인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원금을 취소하려면 행정적으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 걸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인님이랑 예술위원회 문학부장이랑 현장소통 소위원회 문학 분야 위원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낸 결론은 예술인 신문고에 넣어서 해보자. 그런데 신문고 쪽에서도 계약서가 애초에 없었고 구두로 서로 다른 이야기만 나오면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시인님께서 민사소송을 하신다면 그 결과를 통해 근거를 만들 수 있고 그 민사소송 관련된 변호사 지원은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당사자분이 그 정도까지 하고 싶지 않고 조건을 걸고 싶다, ****쪽에서 공적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야기한다면, 그 조건으로 이행하면 이해하겠다고 최근에 이야기를 주셨어요.
교부가 안 돼서 사업비는 환수할 게 없었어요. 저희가 환수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쪽에 예술위원회는 조건부 교부를 걸기도 했어요.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가 권한의 한계는 있지만, 그 안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많이 부족했지만 일을 했다는 걸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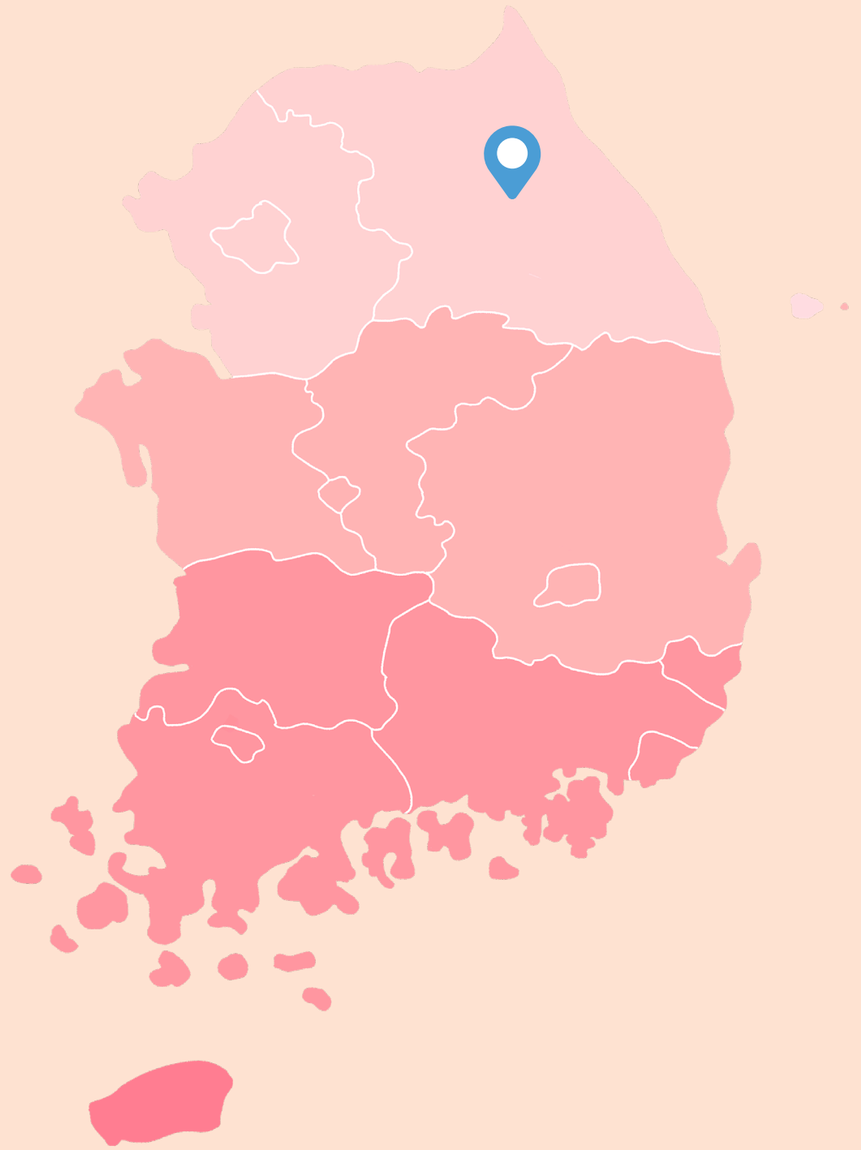
현소위 위원2 심의위원 연령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80년대생이 13명밖에 없네요. 70년생은 70년까지 포함해서 대략 40명대인 것 같고 나머지는 43년생부터 구요. 심의위원 경력 조건들이 있잖아요. 젊은 작가가 활동 10년 이상, 10년이 안 되더라도 심사위원이 판단하기에 뛰어난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 후보군으로 인정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젊은 층에 널리 홍보하셔서 공고가 나면 직접 많이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제도 속에서 가장 공정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으므로 같이 노력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fin.

기타 의견

- ○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정책과 예술위 지원사업 예산확보 방안은?
  -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 배려, 분야별 지원사업 형평성 등
- ○ 창작활동 지원금의 적정성과 선정에 대한 엄격한 공정성 확보 방안
- ○ **(작곡가 창작활동의 어려움)** 연주자비 책정 시, 지원금액이 다른 전공자와 같이 지원되어 자비로 부족금을 충당해야 함 → 작곡 부분은 지원금액 충원 필요

강원권 — 강릉

2021. 5. 12.(수)
명주 예술마당



강릉권 간담회는 소수 인원으로 밀집도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예술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창작에서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예술 활동 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안과 모범사례들까지 소개해 주면서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었다.

주제	주요 의견
창작활동의 어려움	**○ 지역 활동에 따른 인간적으로나 작품홍보 차원 등 고립 문제 발생**
지원사업 및 심의제도 관련	**○ (창작자 지원→소비자 지원으로의 전환 필요)** 전시의 작품구입비 지원 등 소비자에게 작품을 구입하는 경험 지원 **○ 지역 상황에 맞는 예술정책의 부재 및 경쟁적 공모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지역 예술인 대상 창작 후원 공모, 창작지원사업 확충 필요 - 획일화된 형태로 다양성 부족 **○ 예술인 대상 지원사업 수혜 확대 필요** - 코로나19로 공모사업 선정 기준이 높아짐. 전문 기획자가 부재한 이상 선정이 어렵고, 개인 예술가는 더욱 선정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향 발생. 더 많은 예술가들의 수혜를 위해서라도 선정 기준을 낮춰야 하는 시점 **○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문제** - 온라인 콘텐츠는 접근이 어려워 공연실황 중계 외에 뾰족한 방안이 부재하고 문화재단 서류 제출 시, 필수자료로 영상을 제출하는데 높은 제작 비용과 공모사업 선정 시에만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 발생 **○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을 선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계 활성화 방안** **○ 중견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지원방안** **○ 지원사업의 과정과 피드백에 대한 문제** -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모든 과정을 전부 예술가 한 개인에게 맡김. 협업하거나,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전혀 없음 - 사업이 끝난 후, 예술 활동과 작품에 대한 피드백이 없음
중앙과 지역 간 예술 격차 완화	**○ 지방에서 더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활발한 문화교류 필요** **○ 수도권 예술가들의 지역 정착 장려 및 지역 예술단체(예술인)와의 협업 지원**
지역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	**○ 중앙-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정책 및 운영의 연결성** - 방향성, 시기 및 방법적 조율 등
기타	**○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활동과 제도의 활성화** **○ 지역 사회 예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 **○ 지역 예술의 지역성과 공공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이하 현소위 위원)

현소위 위원1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작곡가고 기획도 하는 ***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역 작가님들뿐만 아니라 예술계 전체에 큰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이후로 지원사업들도 많이 바뀌고 이렇게 바뀐 이후로 내 예술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창작활동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굉장히 낮은 자세로 들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가슴속에 품고 왔던 이야기, 해오셨던 생각들 다 듣는 자리니까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예술단체 문화공간 **의 김**라고 합니다. 장르는 연극이고요. 저는 기획자입니다. 제가 단체 대표로서 작품을 기획하고 저희 단원들은 창작하고 대본을 쓰고 연습을 해서 연극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천에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0년에 서울에서 활동하다 내려가서 화천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군 단위다 보니까 전문예술가가 지역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연극 쪽 혜택을 받게 된 거였거든요. 저희가 연극으로 예술 교육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 책임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여기서 떠나면 이 아이들, 청소년들, 어르신들, 군인 친구들, 그런 분들이 예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연극을 기반으로 한 예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내가 이 동네에서 살아가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약간의 사회적인 책임감도 느끼면서 화천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 저는 강릉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역 문화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국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곳도 예전에 들어보긴 했는데 제대로 어떤 곳인지를 잘 몰랐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저기서 경청하는 줄 알고 왔거든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유** 처음 뵙겠습니다. 유**이라고 합니다. 저는 옆에 계신 국악 선생님의 권유로 이 자리에 방문하게 되었고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중견 무용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비영리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단체장이기도 한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연 활동을 한 게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것 같거든요. 강릉시의 방책이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회의 석상을 빌리는 것도, 대화하기조차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거든요.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무대에 서는 걸 너무 즐기는데 서지 못하고, **오히려 저희 같은 중견 무용인들도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이렇게 저희 적은 인원이지만 의견이 잘 전달이 되고 정리가 되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그 방법을 연구하고 토의하는 자리라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저는 소설을 쓰는 주**이라고 합니다. 강릉에 30년 이상 살고 있는데 이곳을 지금 처음으로 와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와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았는데, 예술위원회와 관련되신 서울에 아는 원로작가님께서 참석해보라고 하셔서 왔어요. 문학은 너무 개인적인 작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곳에 와서 이야기하는 게 저 자신을 위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여럿이서 같이 하시는 다른 분야, 공연이나 전시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거로 생각해요. 저는 작년에 1번 신청을 했는데 1차는 되고, 2차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이고 다들 어려울 때니까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알고 별로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직에서 일하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문화예술인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직 특별히 소속되어 있는데도 없고요. 오늘을 계기로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강** 저는 평창올림픽이 열렸던 대관령에서 왔고요. ****연맹이라고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문화가 미흡했었는데, 저희가 기획해서 서울에서 작가님들을 모셔다가 청소년을 위해서 아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걸 대표해서 참석하게 됐는데 저도 고향은 강릉이에요. 가까운 대관령에서 살다 보니까 **지역 문화적으로 아이들이 접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강원문화재단에서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기획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려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저는 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하고 있고요. 강릉에 온 지 12년 정도 됐는데 지금 강릉에서 주로 대중음악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여러 작품들, 지역에서 만든 콘텐츠들, 음악 작업하면서 ***밴드라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대에 실용음악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7~8년 정도 가르쳐왔습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음악 장르 특성상 공연이라든지 작업 의뢰가 들어오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반강제적으로 공모사업을 찾아보게 되고 넣게 되고 하게 됐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올해도 굉장히 많이 낸 것 같은데 된 게 1개밖에 없어요. **경쟁률도 치열하고, 기존의 공모 내용보다 확실히 가이드라인도 올라간 것 같고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힘겹게 음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같이 음악 하는 분들과 예술을 하는 분들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면 어떤 것들이 됐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나눈 많은 이야기가 예술위원회라든지 여러 기관에 전달이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참석했습니다.

김** 저는 강릉에서 미술 장르,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강릉에서 대학교 나오면서 여기서 꾸준히 작업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제가 **계속 지역 내에서 작업하면서도 작품이 판매가 잘 되는 작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사업에 계속 목매게 되더라고요.** 계속 지원하고, 오늘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윤**

저도 미술 장르고 강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것들은 동쪽 수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태백산맥 기준으로 동쪽이 영동 지방이잖아요. 이런 동쪽에 관련된 강원도의 풍경이나 모습들을 그림으로 수집한다고 해서 동쪽 수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에도 이번에 전시 사이트에 강원도의 모습을 그림으로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고 보여드리는 자리도 갖게 됐어요. 이곳에 온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이지만 어느 순간 이게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 **공모사업 같은 게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 더 재미있는 작업을 하고 더 재밌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자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셔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

시각 파트 창작자입니다. 간담회라는 단어를 예술위원회 사이트를 서핑하다가 발견하고 '예술위원회에서 온다고, 강릉을?' 하는 마음에 그날 신청서를 보내고, 며칠 뒤에 생각이 났는데 '내가 이런 자리를 왜 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뭔가 간담회라고 할 때 정책이나 방향성을 알면 움직이는 데 좋잖아요, 수월하고. 그래서 관심은 있는 데 매번 참석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마음이 두 근 반 세 근 반하는 것 같아요. 참석 확정이 안 됐나 하다가 어제 문자가 와서 오게 됐고요. 저는 강릉에서 지내는 창작자이고 길 건너 명주동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겨울을 그냥 맘 놓고 쉬었더니 봄이 괜찮더라고요.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팬데믹을 내가 어떻게 겪나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다들 그러시잖아요. 공모든 뭐든 타이밍에 압박받으면서 펼치기만 하고 경쟁 쪽으로 그러는데, 오히려 마음을 탁 접고 나니까 되게 조용히 편안하게 이야기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명주동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펼치고, 창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이트를 서핑하다가 시기가 지나서 광역문화재단으로 가죠. 강원문화재단으로 가다가 그사이에 복지재단을 지나서 그다음에 약간은 멀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사업을 도와주다가 왔어요. *굉장히 개인적인 삶이기도 하지만 창작자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리듬과 기관들의 흐름을, 제가 그렇게 타고 왔더라고요.* 이 간담회에 왔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고 마음을 두는 곳인데 멀리 느꼈던 것도 같아요. 강릉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정년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올해 경로 우대입니다. 제가 **연극제 미술감독 한 4년 했고요. '** 국제古음악제'라고 바로크 음악 하시는 분들 축제인데, **을 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만 이렇게 열악한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화기본법도 만들고 문화진흥법도 만들고 그런 법 제도를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법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보면 문화예술인들이 오히려 그 지자체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저희 古음악제는 그래도 지자체장이 결단을 내려서 제한적인 인원을 받고 축제를 했습니다. 연주자들에게도 저희가 충분하지 않지만 개런티를 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축제가 취소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술인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들이. 이런 속에서 두서없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정치 권력이나 자치단체장들이 문화계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입니다.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사업이 많이 좌지우지돼요.** 취소된 축제 예산들이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다시 배분되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축제 같은 게 취소가 된다면 출연을 약속했던 예술가라던가 문화 행사에 초대됐던 작가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획된 대로 개런티를 지급하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축제를 취소하게 되면 거기에 관여했던 예술가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아트페스티벌이 취소가 됐거든요. 바로 5일 전에 취소가 됐어요.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취소가 되니까 손실이 너무 크죠. 물론 정산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그 정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아주 기본적인 것도 보상이 되지 않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문화강국을 이야기하더라도 예술인에 대한 대우라든가 예술인을 위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공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국가 차원,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편해요. 굉장히 큰 문화 이벤트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벤트가 지나가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 이벤트를 보게 되면 거대 기획사들의 그야말로 사냥터거든요. 지역인의 예술인들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고용돼서 일하고, 그야말로 푼돈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소위 위원1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제가 아까 이틀 뒤에 강릉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도 축제 기획자, 총감독으로서 강릉시청에서 일방적으로 대관 신청이 취소됐어요. 사실 저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야외공연장인 셈이잖아요. **실제 실내 공연장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가 한 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이 지자체의 인식이 왠지 축제는 다 전파될 것 같고, 코로나로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아티스트와 작가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번에 사유지를 빌려서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것들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주신 것들을 종합해보니 일관되게 코로나 이후 우리의 창작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고, 광역도 그렇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기관의 설계된 지원사업은 필요에 맞게 지원이 잘 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손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공모사업에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래에 강원문화재단에서 나온 강원도 온라인 공연장 공모사업이 있어요. 지원금 1,000만 원 정도 주고 7팀을 뽑는 사업인데, 강릉에 있는 개별 예술가들이 모여 같이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선정되긴 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문제점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에 대한 수요가 많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팀들이 되게 바쁘잖아요. 실력 있는 팀이랑 작업하려면 일정 잡기도 되게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도 지금 영상을 찍어서 최종적으로 납품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예산이란 게 1,000만 원 주어지면 그 안에 영상 제작비부터 출연진의 연주료나 이런 제작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영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퀄리티있는 작품, 좋은 작품을 드리는 게 맞는 거니까. 아무래도 송출하는 거니까 영상이 잘 나와야 하는데, 영상 경험이 있거나 잘하는 팀들하고 하려고 보니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모사업에 예산이 주어지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만한 버전의 영상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차라리 그 공모사업 지원에 대해서 영상 쪽은 나눈다든지 어느 부분은 공모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해결해 주면 아무래도 아티스트 입장에서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작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영상팀들을 찾고 일정 맞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욕심처럼 작품이 나오지도 않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이들 그러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잘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소위 위원2 네,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있었어요. 좋았던 게 재단에서 연주자들에게는 연주비만 줬어요. 제작비를 주지 않고 연주비만 주고, 재단에서 영상업체를 섭외해서 장소와 일정도 다 조율해 주셨어요. 연주 단체끼리 조율하는 것만 맞췄고, 그야말로 정해진 날짜에 가서 공연만 하고 오고 **제작은 재단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예술인한테 주고 너희가 제작까지 하라고 하게 되면 그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재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시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유** 저도 문화재단 쪽에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신청하고 꾸준히 지원받고 있는 상태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영상으로 대부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공연 5일 전쯤에 취소를 당해서 지원금을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제 주위에도 *** 공연 같은 경우 작년에 참석하려던 팀들은 그래도 위약금이 지급됐더라고요. 물론 공연자 개개인에게까지 전달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지만 어쨌든 단체장들, 기관장들에게 위약금이 지급된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되어 있던 공연에 대한 출연진이나 시간이나 노력에 대해서 아무도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적어도 그런 노력에 대한 위약금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너무 치열해요. 경쟁률은 자꾸 높아지고 저는 나이를 먹어가고, 왠지 젊은이들한테 밀리는 느낌도 들고, 중견 예술인으로서 대접은 해주지만 실제 공연계에서 세워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너무나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로 여름은 건강하고 즐겁게 났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연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금전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면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마저도 시에서 단체장이 막는 경우가 많고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건 조금 지양되어야 할 바가 아닌가.**

김** 저는 화천군에 있는데 지역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지자체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예술이 없어도 살 수 있었던 시대에 살았던 분이셔서 예술이 왜 필요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걱정이시니까. 저도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런 문화가 바뀌어나가려면 앞으로 제가 환갑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과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 지역에서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귀촌하셨거나 귀농하셨거나 불임 가정이어서 나이가 젊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으세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 현실이고, 관심 없는 분들이 지금의 지자체장을 찍어 오시니까 그런 분이 유지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군 단위나 인구가 적고 활동 예산이 적은 곳에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셔야지만 이런 군 단위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들도 살아갈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고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지는 않아요.** 저희 단체도 화천군에서 받는 예산은 올해 찾아가는 문화 행사 250만 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따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강원문화재단, 예술교육진흥원, 사회적기업 이런 쪽의 예산을 따와서 화천군에 쓰는 거거든요. 다시 잠깐 지자체로 넘어가면 예전에 군수님 면담을 하는데 예술가들을 안 좋게 생각하시니까. 자기 안 찍어줄 거고, 외지 것이니까 밖에서 굴러온 돌이라고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화천군에 있으면서 벌었던 돈을 PT자료를 만들어서 맨 앞에 예산을 얹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아, 이거 몇 년 동안 타지에서 돈 벌어서 저희가 여기서 쓴 겁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이 돈이 들어간 겁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서 먹고살면서 그만큼 예술적인 혜택을 준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좀 하시는데. 현실이 이러니 지역 군 단위에서 저희같이 예술 활동하며 꾸준히 살아남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쪽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군 단위 예술가나 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아요. 지자체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요. 또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려고 하면 약간의 갑질은 있는 거니까요. 참고사항으로 **문화 행사와 예술 공연은 분명히 다른데** 그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너희들이 나와서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좋은 예술이 지역에 좋게 자리를 잡으려면 지자체에 맡겨 놓거나 강원문화재단에서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쪽에서 좋은 정책이나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 화천군 상주단체로 선정이 됐는데 공연을 하게 될 경우, 아이들이 공연장에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공연장 근처에 살아야 공연을 볼 수 있어요. 거리가 5km, 10km, 15km 떨어져 있는 친구들은 공연을 볼 수가 없어요. 집이 먼 데다가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면 자기 혼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신나는 예술여행 비슷하게 군 단위 20~30명의 작은 학교에 순회공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단체가 갈 수 있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치보다는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의 질을 높이면서 수혜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지역의 적절한 문화예술 사업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공연이나 전시 협업하는 분들 위주일 것 같아서 저는 가서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학은 혼자 하는 거고, 지원금 달라고 하면 자기 달라고 하는 것 같고, 공정성 이야기하면 자기 안 준다고 그러는 것 같고.* 제가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런 데 와서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냥 듣고 가려고 했던 거죠.

현소위 위원1 조심스럽지 않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자꾸 문학이 코로나 영향을 안 받는 예술로 생각되니까 코로나 이후 지원 사업 세팅된 것만 봐도 문학계가 굉장히 배제되어 있다.** 주변에서 많이 듣기도 했고. 그뿐만이 아니더라도 개인 작가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데 이런 점들이 불편하고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써주신 걸 서로 다 모르시니까 그런 생각들을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제가 30년 공무원을 했는데 그러면서 2004년도에 신춘문예를 하면서 창작활동을 계속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사분들은 지원금을 굉장히 당당하게 신청해요. 신청하고 많이들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먹고살지 않냐, 젊은 사람들이나 전업하시는 분들이 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레지던시를 다녀보니 이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 지원금을 받느냐 아니냐가 어느 순간 카르텔화 되어 있는 느낌이다.** 제가 작년에 어떤 문화관에 레지던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카톡이 오는 거예요. 이 문화관 안에서 아르코창작지원금을 받은 작가들끼리 웹진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는 활동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것, 그렇게 했을 경우 계속해서 그게 뒤로 밀리는 느낌이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지금 문화관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천몇 년도 창작 기금 수혜, 그게 작가에게 하나의 스펙이 되는 거예요.** 올해 발표된 거죠. 신청을 한번 해봤어요. 장편을 하나 마무리했길래 아주 정성을 들여서 처음으로 신청을 했는데 뜻밖에 1차에 됐더라고요. 장편이 91편이 들어왔다면서 1차에서 19편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뜻밖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보완자료를 내라기에 약간 설레면서 했는데, 보니까 2차 대상자에 없는 거예요. 19편 중에서 10편을 선정했더라고요. 제가 떨어진 9편에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창작촌에 같이 있던 서울에 있는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단편을 냈대요. 결과 문자가 잘 안 보여서 데스크톱으로 확인해본다고 하셨지만, 결국 그분도 1차만 되고 2차는 안 된 거예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니 결국은 소재, 공감, 보편성 측면에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선정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을 받았으면 나중에 작품을 분명하게 발표해야 할 거 아니에요, 1~2년 안에. 그러면 비교는 할 수 있죠.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해보고 의구심이 들고 개인적으로 서운했어서 역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받은 사람들이 또 받는 느낌,** 그래서 그날 생각했죠. 다시는 신청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특정 단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소위 위원2 사실 저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예술가예요. 특히 **예술가가 어느새 지원사업에 의존해서 예술 활동을 해야 하는 환경 때문에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고 때로는 모멸감마저도 들고, 존재 이유마저도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 이런 환경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런데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요. 예술 활동 증명도 마찬가지죠.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이 들만한데, 지원이라는 이 제도 자체가 예술가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돌아가고, 특히 서울과 지역 간의 깨지지 않는 간극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는 게 필요한데 그전까지 많이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들어왔던 이유 중 하나가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이었어요.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고 현장소통 소위원회가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지원사업을 많이 도전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5개의 지원서를 써서 몇 개 안 됐죠. 저희 어머니도 문인이셔서 지원사업을 도와드리고. 그것도 이제 결과 날짜를 세고 있죠.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또 해요, 왜냐면 살아야 하니까. *일단은 예술 활동이 지속이 돼야 그다음을 계획할 수 있잖아요.* 지원사업이 되는 사람이 또 되는 것은 지원정책이나 지원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지원을 해서 붙어본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무시 못 하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에게 눈에 들 만한 지원서를 쓰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도 기술인데, 그래서인지 **올해 서울에 있는 몇몇 예술계 대학에서는 지원사업 기획안 작성하는 교양 수업이 열릴 정도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졸업을 하고 나서 지원사업을 도전하기에는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예술 활동하는 것만 있지, 이것을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글 쓰는 능력이 없어서 그 수업이 개설됐어요. **사회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지만, 생애주기별로 이런 것들에서 열외 되고 제외되는 대상들을 어떻게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같고요.

예술위원회 아르코 창작기금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참 괴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의기간도 길고, 선정률이 다른 사업 대비 높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00명의 작가분이 고생해서 신청하면 5~7 명밖에 선정이 안 돼요. 또한 심사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지원사업 신청을 못 한다고 해서 그걸 또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1차 심사결과발표를 빨리 알려드리고 다른데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르코 창작기금 자체가 너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관을 몇 번 해봤는데 심사위원 분들도 정말 보셔야 되는 글이 많아 힘들어보이시더라구요. 아까 말씀하신 19편 중에서 9편이 떨어졌고 10편이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어도 마음이 안좋네요.

권** 저는 악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극, 문학 하는 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중요 무형문화단체 이수자로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갑이 더 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비유하면 큰 대형 회사나 마트나 이런 곳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지만 작은 소기업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보면 저도 거기 있으니까 생활이 안정될 거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 나름대로 따로 수업을 나가거나 벌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서 좀 덜 받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서울 애들도 10만 원만 줘도 와서 공연한다, 되려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나는 예술여행 때도 다른 선생님들을 봤는데 의외로 있는 단체가 더 잘 따시는 것 같아요. 내부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산이 잘 가고 그렇게 가는 곳에 대한 약간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곳이나 모니터링 이런 게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곳에 몸을 담고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글을 잘 쓰거나 언변이 좋지 않아서, 그쪽을 잘 몰라서 시키는 대로 공연만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닌가요. **이런 게 한 번은 걸러져서 좋은 곳에 나뉘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소통 소위원회 선생님들이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저한테만 새로울 수 있지만 아까 대안 이야기가 나와서요. 창작하고 발표를 하고 향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발표나 향유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까 온라인 이야기도 나오고 코로나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창작을 위해서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시 직영의 재단, 축제, 예술가는 거의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 게 있습니다. 작가들이 창작 지원금을 받아서 예술 전문기관에 가서 발표하고 관계를 맺잖아요. 저 같은 경우 강릉시립미술관, 아트센터고요. 다른 장르들도 그렇고, **기관과 예술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코로나 전부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단과의 유기적 관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 때 전문기관, 기획자, 큐레이터를 통해서 동료 작가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발표 기획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기관과의 관계조차 여전히 소원하다 보니 공모 지역이 하나여도 전시는 다 각개전투인 거죠. 공모사업을 하면 기획하고, 창작하고 심지어 공간 지킴이도 하고 기록도 하고 관객 모집에 홍보, 정산까지 모든 걸 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남잖아요.** 지원금이 모자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홍보했는데도 좀 여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전시를 강릉 지역이 아닌 다른 두 곳에서 했는데, 계약을 맺고 지원금을 받았을 때 명칭이 작가 지원금, 보통 아티스트 피라고 하죠. 정산이 다릅니다. 거기서 저는 작가 역할에 대한 재료비, 작가 지원비, 교통비, 운송비, 정산도 제가 안 하고요. 공모는 완전 개인에게 모든 걸 다 떠맡기는 것 같아요. 기관에서도 개인 작가들이 전시를 통해서 릴레이 공간을 채우고, 정산도 다 하고. 그래서 생각에 이른 게 전문기관에서 발표하면 그쪽 전문가들이 여러 역할을 담당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개인전을 무수히 많이 하는데 지역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작가들의 주제가 활용되느냐.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어디 딴 데 가서 아는 작가 있거나 건너 건너 되는 것 같고. 이 구조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여전히 논란이 많긴 하지만 창작지원금, 재료비,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잖아요. 공모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는 지역 전문 예술기관이라고 하나요, 중간자적인 기관의 역할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에 매달리시잖아요. 지원 시스템의 트렌드에 따라 운영이 되고, 예산에 융통성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이곳 행사장 1층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 지역에 이런 큰 공간이 많잖아요. 지역의 큰 공간과 서울이나 외부의 기획자들이 연결된 그런 매칭 전시들이 지원의 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반복된 지점들이 생겨서 새로운 흐름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항상 지역에는 그 트렌드가 늦게 오고 변형이 되고 끼워 맞추기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까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중간자적인 뭔가가 없다 보니까 아까 온라인 영상 그런 것도 그 방법론 자체를 작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재단이고 기관이고, 그 중간 기관의 전문가적인 역할이 지역에 올수록 무명 소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선 예술가들에게 요구하고, 나중에는 지역에 로컬 콘텐츠까지 만들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지금은 막 스칩니다.

현소위 위원1 저는 이런 질문도 하나 가지고 왔었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역재단에서 지역의 콘텐츠, 지역의 콘텍스트를 가지고 창작을 하길 요구하는 것이 과연 지역 작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오히려 이것은 용역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작업 주제와 연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때 작가에게 훈련의 기회이기도 하고 상생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시작은 그런데 그게 활용되는 측면에서 이후가 없다는 거죠. 그냥 **공모를 던지는 목적이 약간은 명확하거나 되게 좁은 의미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로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강릉에 거주하게 되면서 작업을 강릉 영동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 관련 사업이 떴을 때 굉장히 유리한 면도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시각 쪽에서 조금 유리한 소재를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공모 신청을 하는데요. 처음에 강원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진 예술인도 있을 것이고 전문예술인 과정도 있을 텐데,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혼자 다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작가가 운송부터 판매, 전시 지키는 것까지 그런 모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사업에 냈을 때 **재단에서 이게 좋겠으니 같이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지원금 오백 줄 테니까 그 안에서 다 해결해 하고 툭 던지는 걸 몇 년씩이나 반복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정말 나의 작업에 관심이 있는가, 이들은 내 작업을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새롭고 신선한 뭔가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걸 들고 나왔을 때도 그에 대한 이해 부족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뭔가 해왔던 거 위주로 회화나 미술 장르 계의 약간 있어 보이는 듯한 장르를 꾸준히 원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소통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업이 끝났을 때 제대로 된 피드백이 없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원문화재단 이외에도 예술인 복지재단이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다 최근에 생긴 기관들이에요. 예술인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많은 예술인을 통합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을 만드는 걸 해주시니까 예술과 인간 사이를 대하는 이해가 굉장히 높고, 예술가의 존엄성을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론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진지하셨고, 섬세하셨고, 관심 있으셨고요. 그리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해주시는 거지만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트렌드가 변화됐을 때, 새로운 사업이나 로컬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하거나 공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주셨어요. 업데이트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자리, 사업에 필요한 것, 사업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것들에 전문가 초빙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꾸준히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니 이 팀들 정말 좋다.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강원문화재단에서 평론이 나오면 맨날 돈이 부족해서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없었다, 주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는 예술에 대한 평가와 나의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데 재단에 돈이 많은지 적은 지 그게 궁금한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런 와중에 작년에 강원다움이라는 새로운 공모가 생겼는데 이게 로컬 관련된 작업을 하는 작가들에게 2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2년이면 미술 장르에 있어서 큰 결과를 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평소보다 높았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리한 입장에 있었고, 1년 차 지원이 됐어요. 1년 차는 그 안에 해결해야 하는 사업들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완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라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나도 마음 편하게 작업에 대해 부담감을 약간 내려놓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그럴 수 있겠다고 해서 사업 계획서를 냈고, 사업 계획서 이상의 것을 했어요. 저는 통과된 사업 계획서 이상의 것을 분명히 해냈으니 2년 차에 당연히 되겠지, 이게 2년짜리 선정이었으니까. 그런데 2년 차에서 3분의 2가 떨어졌더라고요. 30팀이 됐으면 20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론을 보니까 2년 차에 회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완성이 될 만한 작업들을 골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 취지에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게 그전에 했던 정형화된 사업과 뭐가 다른가. 정형화된 사업이 아니라고 말해서 신청을 했는데, 똑같은 실망감을 준 거잖아요. 오히려 2배의 실망감을 준 거잖아요. 올해 초에 그렇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문제점. **너무 정형화됐고, 예술인들을 이해하지 않고, 사업이 사업을 낳고, 이것은 예술이고 우리의 삶인데, 마치 그냥 타닥타닥 키보드 쳐서 던져버리는 글자가 돼버린, 텍스트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김** 저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섯 번의 개인전을 하면서 여러 번 지원사업을 받고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전시 그러니까 작품을 할 때 **작품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퀄리티가 나오는데,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원금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보니 작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내 작품에 조금 더 비싸고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싶어서 기다리다 보면요. 길면 3개월 짧으면 전시 1달 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다려서 지원금을 받게 되면 또 쓸 수 있는 데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대관도 미리 연초에 지불하면서 계약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쓸데없이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도록만 비싸게 찍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제가 꾸준히 작품을 하려면 작품이 판매되고 그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이어지지 못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자존감만 깎아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작년에 저랑 제일 가까운 분이 전시했는데 그림값을 되게 낮게 책정해서 전시했어요. 그 자리에서 판매되는 그림을 바로 떼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 손 잡고 와서는 '엄마 나 이 그림 살래' 해서 부모님이 그림을 구입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림을 구입해 보는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컸을 때 어떤 컬렉터가 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작품을 하면서 어디 전시를 갔을 때, 이 작가 그림 좋다, 멋있다고까지 만 생각하지 이 작품을 내가 사야겠다 까지는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작가한테 지원금을 조금 더 주고 작가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도록을 비싸고 퀄리티 좋게 찍어내야 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작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한테 그 지원금이 돌아가게 된다면 작가는 작품을 판매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도 작품을 구입하는 경험, 그 높은 문턱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창작자 지원에서 소비자 지원으로 이런 지원 사업이 생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작가로서 제 그림을 보러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작품 구매로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한 번 경험하는 게 어렵잖아요. 한 번 구입하게 되면 다음에도 또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미협 관계자분이 계시는데 아트페어를 준비하면서 애초에 그림을 살 사람들에게만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일반 관객은 거의 생각지 않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젊은 친구들이 계속 꾸준히 강릉에서 작업하려면 여기서도 그런 소비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런 아트페어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진짜 팔리는 사람만, 딱 그 포인트만 맞춰서 다른 관객들은 안중에도 없이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은 아니에요. 대관령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획을 하는 자문위원회이기도 하고, 아이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다 어른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른들의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긴 한데. ***연맹에서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평창은 8~9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강릉만 해도 이런 문화가 평창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강릉이 고향이긴 하지만 평창에 가서 살아보니까 문화예술 쪽으로는 더 뒤처져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맹은 아이들을 위해 프로젝트를 강원문화재단에서 3년 후원받아 사업을 합니다. 현대 작가나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2주에 한 번씩 모셔다가 아이들이 직접 작가님과 미술 활동을 하거나 음악 활동을 하거나 건축 활동을 하는 수업이에요. 이제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접해보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해보지 않았던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새로운 문화에 지루해하고. 그런데 1년이 흐른 후에 입소문과 인지도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평창군 전체에 퍼지게 되었는데, 평창군은 지역 특성상 대관령에서 평창까지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평창의 모든 아이들이 누릴 수는 없어요. 이게 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야 하고. 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반응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강릉뿐만 아니라 강원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은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정말 옆에 있는 사람만, 그리고 입소문을 통해서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고. 더구나 평창은 지금 문화도시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8 동계 올림픽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제가 이 자리에 대표님을 대신해서 자문위원단으로 온 건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니 소신 있게 발언을 하고 오라고, 지역은 정말 소외되어 있어요. 저희 연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아이들을 위한 문화가, 서울과 비교되지 않게요.** 오히려 거꾸로 저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엄마들이 하고 싶다는 수업으로 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하기도 해요. 그런 게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소위 위원1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강원도라는 지역 자체가 광활하잖아요. 나뉘어 있지 않고 특히 평창은 넓기로는 손에 꼽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평창 지역 작가분들 수가 별로 없으니까요. 지역은 문화적 체험도 절실히 원하고 그게 벼랑 끝에 있는 느낌인데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넘치게 많잖아요. 차등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원주, 춘천, 강릉 세 구역이 문화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 이런 주요 지역에 계신 작가님들이 군 단위와 매칭이 되어서 뭔가 창작지원을 한다던가 전시를 하신다거나 공연을 하시는 이런 자체 교류 사업 같은 것도 세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화천도 지역이 넓고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연결해서 어떤 정책 제안이 나올지 기대가 되거든요.

강** 작가님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저희가 모셔다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는 올림픽을 진행했다 보니까 영화제나 음악제가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어요. 지역의 취향일 수도 있고 한데, 지역 자체 주민들은 관심도가 낮으세요. 그런데 평창이 워낙 넓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애쓰시는 분들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간담회 같은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는 게 소통하지 않으면 좋은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없고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지자체의 장들께서 이런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게 되면 서로 공유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원도권에서라도 좋은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굳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경기도에 가지 않아도 되고, 강원권에도 오히려 서울에 있는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까 위원님께서 로컬 콘텐츠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저는 음악을 하고 대중음악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공모에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가끔 보면 강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원사업에서 이미 선정된 팀들을 보면 이미 전통 음악이나 순수음악이나 연극이라든지 많은 분야에서 지역의 이야기나 콘텐츠로 창작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중음악을 하다 보니까, 밴드라고 하니까, 드럼 치고 시끄러운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활동을 잘하려면 국악이나 퓨전식으로 음악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음악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되게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의 이야기들이나 주제를 가지고 창작을 해보라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그런 작업들은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거고. 창작자들이 거기에 국한돼서 작업하다 보면 편협하게 되고 꼭 좋은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꽤 몇 년 전부터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강릉 이야기, 강릉 사운드를 우리가 만들어보고 싶다. 지역의 전통적인 이야기나 이런 소재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소소하게 느끼는 걸 지역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거면 그게 결국은 로컬 콘텐츠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올해 강릉문화재단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심사위원이 대중음악 쪽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뽑히는데, 만약 없으면 안 뽑히고, 대개는 생활예술 분야로 다 집어넣더라고요. 로컬 콘텐츠라는 게 결국에는 지역에서 생산해 내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색깔이 묻으면 그게 로컬 콘텐츠라고 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릉 사운드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로 몇 번 진행하다가 강릉문화재단에서 한 3년 전에 ****이라고 지역의 젊은 뮤지션들하고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들었어요. 그 사업을 쭉 지속하기로 구두로 이야기했다가 **여기 운영하는 사무국이 바뀌면서 다시 리셋이 됐어요.** 그 이후에 그 비슷한 사업들을 여러 번 추진했는데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지방일수록 기존 분들의 입김도 세고,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무시 못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 기재해야 하잖아요. 올해

강릉문화재단이 공모사업 내면서 단체가 출연료에 대한 지급을 못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강릉에서 이슈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다른 재단이나 다른 쪽 보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기준이 없는 건가, 아니면 지역문화재단이라 지역에서 돈을 쓸 때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당연히 창작자나 실연자에 대한 돈이 지급돼야 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강릉은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된다고 생각해요. 대표자 사례비 말고, 단체가 출연한 출연료요. 그걸 받을 수 없어요. 대관료, 기자재 임대, 인쇄, 홍보 이런 쪽으로만 쓸 수가 있는 거죠.**

유**

제가 예술동아리 단체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강원문화재단에 예술동아리 지원활동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 규정되어 있는 서류 제출에 보면 인건비로 지원이 가능한 건 강사료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자들에 대한 지원은 단 1원도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비영리단체로 신청이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어쨌거나 을의 입장이어서 그에 대해 컴플레인은 걸지 못했지만요. 공교롭게 저희가 국악과 함께 협연으로 예술동아리를 끌어가고 있던 상황이라 강사 선생님께서 저희 동아리 회원들에게 간식 사주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을 다 진행을 한 뒤에 공연만 못 했거든요. 서류 제출은 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건의사항에 제출한 적은 있었는데, 공모사업을 처음 지원받을 때 지원 신청서에 금액을 쓸 수 있는 목록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목록 이외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서류 담당하시는 분이 전화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결격사유니까 빼 달라고요. **출연진에 대한 출연료는 지금까지도 단 한 푼도 지급된 적이 없고, 강사료만 됩니다.**

최**

관련해서 표준 계약서, 작가 계약서 이런 것들을 표준안으로 만들어서 샘플로 내려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지역의 예술가들이 가장 가깝게 만나고 하는 서류가 지역재단, 광역재단의 서류잖아요. **페이퍼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안하고 싶어요. 사례비, 인건비 이런 것들 보면 용어 정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용어 정리에 따라서 예산의 운용이나 정산도 너무 달라지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예로 '선생님은 다른 어디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게 옛날부터 써와서 내년에 바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재미없게 받아들인 케이스는 서류상 지원금 영역에 있어서 개인 후원금, 민간 후원금 이런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때, 제가 후원을 탄탄하게 쌓으면 이 전시 프로젝트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는 모양새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넣으면 중복지원이니 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건 왜 서류에 있느냐, 내년에 빼겠습니다 하셨지만 올해는 있어요. **지역문화재단에 권고될 만한 좋은 샘플이 있으면 이런 많은 단어들의 사용이 좋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술위원회

A라는 활동 프로젝트를 하는데 민간 후원금을 받고 공공지원도 받으면 같은 기관에서 두 번 지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단체의 후원금 유치활동은 공공지원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노력 관점에서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후원금은 공공지원 제한에 예외로 둔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

저는 개인 전시 프로젝트였고, 개인 후원이었는데 처음으로 그렇게까지 쓴 이유는 작년에 복지재단이나 그런 파견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기관과 미술과가 연계돼서 매칭되고 또 후원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에 억지로 그 모양새를 만든 거죠, 의도적으로요. 서류상의 문제인 거예요. 정화된 샘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람되긴 하지만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예술 활동하면서 지원을 받을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 경험인데요. 과연 위원회에서 공론화를 거쳐서 입법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강원도 사(史) 현대 편 중 공연예술 분야를 제가 집필했어요.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 관련된 자료를 넣어야 하는데, 너무 모으기가 힘들었어요. 자료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찾아서 글을 썼거든요. **저는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의 결과가 우리 지역 사회의 중요한 공공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자체 단체장들이 지역의 경관 조성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명 예술인들의 작품도 많이 배치하고, 단위가 몇십억 단위예요. 그걸 보면 한편으로는 속이 상해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영화 발전을 위해서 외화 한편 받아오려면 엉터리로 영화를 만들었고(엉터리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쿼터를 받았는데요. 그런 나쁜 의미의 쿼터는 아니고 **전체 경관 예술에서 지자체에서 쓰는 예산의 몇 퍼센트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예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장치나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예술인들의 예술작품을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미술관, 문학관, 공연장, 이런 데서 공연 같은 경우에는 킬러 콘텐츠 만들어서 행사 있을 때나 공연하고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일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예산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넉넉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예술인들이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예술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권**

사실은 간담회 취지를 잘 모르고 평소에 생각했던 걸 적었어요. 주변에 경력단절이라고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무엇을 하셨던 전공을 하다가, 특히 여성분들이 결혼하고 육아하면서 단절됐다가 다시 나오고 싶지만, 섣불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어떤 재취업처럼 해줄 수 있는 것이 지방에 있다면 다른 지역이나 중앙에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예술위원회

경력단절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무처 내부적으로도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 지원사업 제도에서 녹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작년에 처음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처음 키우실 때 직장인 업무시간 이후에는 돌봄이 안 되잖아요. 그 시간 이후에 공연과 연습 시간이 잡혀 있는 경우 활동 보장을 위해 영유아 돌봄 비용이라는 (상한가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 후원 쪽 매개하는 인력의 경우, 처음에는 대학교를 갓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교육을 시켜서 매개를 해주는 실무를 해봤는데, 그 결과 약간 현장의 감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정정도 한계가 있다는 부서의 판단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매개인력에 대한 자문회의 등에서 제안해주신 내용대로 광고 기획사나 공연 기획사에서 근무하시다 그만두신 분들이나, 공연단체에 계시다가 그만두셨던 분들 등 결혼,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본 결과 오히려 그 분들이 열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실험적으로 해보기는 했었는데, 경력단절 여성분들 중에 적합한 분들이 있다면 일정기간 교육과정을 거쳐 각 지역재단의 민간 후원 매개를 해줄 수 있도록 부분 지원을 하고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약 20명 정도 과정을 마치셨고, 그 중 몇 분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소위 위원1 어떻게든 바뀌려면 목소리가 일단은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더 귀한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인사 나누고, 명함도 교환하시고, 네트워킹 자리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 박수를 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fin.

전북권 — 전주

2021. 5. 14.(금)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



전북권 간담회에는서는 다양한 관점을 갖진 지역 예술인들이 모여 예술 현장에서부터 지원제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다. 경쟁방식의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작한 간담회는 예술공간의 부재, 과도한 행정절차, 그리고 새로운 장르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무엇보다 용기를 내어 본인이 겪은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도 나누어 주었다. 이외에도 서울 중심의 심의제도 개선과 지역의 기초재단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이야기했다.

주제	주요 의견
창작활동의 어려움	**○ 창작활동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시, 이끌어주고 조언해 줄 멘토의 부재** - 창작물을 통한 지원 활동 시에도 서류작업 및 사업계획서 등 다양한 서류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창작공간 마련을 위한 여러부처 간 연계 지원** **○ 다른 분야와 협업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활용 방안**
지원사업 및 심의제도 관련	**○ 정산의 복잡성과 어려움** - 무정산을 통한 효율정 제고 및 예술 실적의 향상 **○ 지원 분야의 다양성 부족** -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가는 문제 - 기존 예술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지원 부재 - 기초예술의 범위 및 예술 양식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함 - 예술이 지원사업 기준이나 정책에 맞춰가는 문제 **○ 심의위원들의 세대교체(단순 나이가 아닌) 필요성** - 새로운 예술 장르에 대한 이해 및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해 필요 **○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신진예술가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문제 - 예술가가 기획자가 되어버리는 과도한 행정적 절차 - 단순 금액 지원이 아닌, 과정에 대한 실질적 정보 공유 및 사후 피드백 필요 - 예술가의 범위를 넓혀, 새로운 분야의 신진예술가를 키워내는 시도 **○ 대면심사 방식의 유연성** **○ 선정단체의 서류 공개 및 선정 근거에 대한 공유를 통한 학습기회 제공** **○ (멘토링 사업)** - 성평등 및 성폭력 교육 필요 - 지역의 인력풀 활용 방안 **○ (전담인건비 편성 가능 여부) 지원사업 정산 기준에서 대표자 및 구성원 인건비 편성이 가능하도록 조치** **○ 지원사업의 지향점** - 지역사회 가치 향상에 대한 환류 문화 정착 필요 - 예술가를 길러내고 사회 진입을 도와주는 과정에 대한 지원 **○ 개인 예술가들의 사업 신청 한계 존재** -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그룹화, 단체의 영향력 문제 및 신규 혹은 영향력이 부재한 단체의 이수혜 어려움 **○ 지원 시기와 지원 규모의 적정한 안배** **○ 지원단체 및 재단과 예술인들과의 소통**
기타	**○ 예술의 정의, 장르에 관한 담론 형성 자리 필요** **○ 예술의 가치 및 예술인으로 사는 삶, 지속적 예술 활동을 위한 노력** **○ 문화예술 홍보시스템 강화** **○ 지역재단과 예술가 및 예술 단체와의 협력 관계 형성** **○ 예술과 기술 융합 사업에서 예술가들이 주체가 될 수 없는 한계** **○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의 존재와 위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이하 현소위 위원)

현소위 위원1 반갑습니다. 오늘 아르코 현장소통 소위원회 지역 간담회는 전주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아르코 현장소통 소위원회 민간위원 참여하고 시를 쓰는 김** 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목소리들이 여기서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왼쪽부터 간단하게 장르와 성함과 함께 자기소개하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김** 저는 사실 중앙 쪽에서의 그런 사업들에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은 만큼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 결과에 항상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어제 다녀온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지역문화콘텐츠특성화 워크숍에서 전라권, 제주권이 만났는데 전라권에서 전남이 5개 단체, 제주 3개가 있었고, 전북은 1개 단체더라고요. 솔직히 되게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지역 분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 기획서가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많은 지원사업 안에서 전북권이 1개고 나머지가 50개니까 이게 우리 지역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유인물을 잠깐 봤는데 멘토에 대한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기획서를 쓰는 방법들, 기초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본인이 가진 색깔을 녹여내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전주문화재단에서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긴 하지만 그 예산이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멘토들이 붙어서 컨설팅해줘도 겨우 한두 번 정도 맡아줄 텐데, 그렇게 해서 중앙의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될까. 중앙 차원에서, 현장소통 소위원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멘토 소위원이 별도로 꾸려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장르마다 나올 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할 거 같은데, 여전히 지역문화재단에서 나온 기금으로 경쟁을 하고 서로를 경쟁상대로만 인식하는 걸 빨리 벗어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활동 분야는 전통음악 기획 쪽, 최근에는 도시재생 쪽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운이 좋게 국고에서 나온 LH 도시 기금 융자를 받아서 오래된 목욕탕 리노베이션 해서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을 가지고 있으니 사업 선정이 잘 되더라고요. 어떤 유형의, 어떤 형태가 있고 거기가 실체가 드러나니까 여기서 하면 재밌겠는데라고 해서, 지원사업을 받을 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문체부에서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국토부나 행안부의 하드웨어 사업도 해줘야 하잖아요. 실제로 민간에서 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곳에 작은 미술관을 만들거나 공간을 만드는데, 거기는 지역 예술가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공간이 있을 때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지원을 받지 않아도 저희끼리 놀기 위해서 저희끼리 전시하고, 기획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다른 지원사업 낼 때, '아, 얘네 이런 걸 하고 있고, 공간이 있구나'라고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국토위에는 건의를 드려요. 도시재생 문제나 몇몇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연예인들이 그걸로 장난하고, 투기해서 지금은 그게 막혔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활동가나 지역의 예술가들에게는 별도의 정책으로 구분이 돼서 뭔가를 계속 만들 수 있게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부처 간의 연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 분야는 전통이고요. 저는 여기 주제 중에 대표적으로 창작활동의 어려움이 느껴져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전통분야는 저희가 기획서를 잘 쓰는데 타 분야와 협력할 때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미술이랑, 전시, 공연도 하는 기획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작성할 때는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분야와 협력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저는 전주에서 사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진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제 작품 위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사진이라는 예술 장르와 다양한 장르 안에서 접근하기 쉽고 진입하기 쉬운 난이도의 장르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활용해 예술작업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자신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통해 사진,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요. 활동에 국제 교류라고 적혀 있는데 그건 개인적 프로젝트로 일본 쪽 학생들을 전주라는 지역에 데리고 와서 전통문화공연이나 체험을 통해 전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이 외국인을 만나보면서 자신이 살고 있고, 지속해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지역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8~9년 하다가 작년 코로나 사태와 그전에 아베 총리의 발언, 무역제재 때문에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선 저는 사진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거나 경험하더라도 행정서류에 치여서 다시는 들어오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술을 하고 싶어서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데 행정서류와 절차 노하우만 늘어가고.* 이미 잘 이용하고 있는 분들과 어깨를 겨루고 상대되지 않는 체급인데 면접을 보고 경쟁을 하는 거에 지쳐 나가떨어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같은 사진을 이용해서 청년 10~20명과 기간에 사진을 찍고 결과를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를 2018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하더라도 어떤 사업은 1,000만 원, 어떤 사업은 200만 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천만 원 지원받으면 좋은 게 아니냐고 하지만 천만 원 정산하다 보면 이 프로젝트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억지로 끼워 넣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20명의 청년들에게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 결과 책자를 만들 수 있는 예산입니다. 200만 원으로 어떻게 되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사업은 무정산 사업이거든요. **무정산 사업이 도입이 되고 있고,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하는데.** 무정산이라고 해서 서류적 절차 같은 게 없을 때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고, 행정적 노력이 순수하게 예술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집중이 되면서 비약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느끼실 거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더라도, 1,000만 원을 기간 안에 쓰려면 필요 없는 감사, 필요 없는 대외활동도 하고. 결과 책자를 500~1,000권을 만든다고 해서 이득은 아니거든요. 소규모 단체가 천 권의 결과물을 뿌리는데도 굉장한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괴리감이 들어서. 제도권이나 대학에서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더라도 초입해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서 지원사업 심의제도나 다른 의견을 받은 것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견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싶고.
여기서 나온 의견들이 언젠가는 정책화되어서, 이 친구들에게 중간지점에서 이런 흐름의 변화가 있다고 전달하고 싶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 확실히 전공자라고 해도 서류 정리는 어려운 부분이 많고,
저도 여러 군데서 일을 하며 겪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유번호증, 공인인증서를 헷갈리는 예술 단체가 있을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자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점은 교수님이나 선배처럼 이미 경험한, (멘토로 지정돼있지는 않지만)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쉽게 찾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런데 비전공자, 제가 활동하는 공간이 전북대 앞의 공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기존에 예술을 구분하는 데 대부분 속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타투이스트도 있고.
도안을 그리고 시술을 하지만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볼 수도 있고, 많이 대중적 시선도 낮아졌죠. 디제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들은 퍼포먼스를 하고 음악을 편곡하고 리믹스하는 음악적 활동을 하지만, 솔직히 **이런 지원사업에서는 규정을 할 수 없거나 상업적 활동으로만 치부해서 서류 지원 단계부터 막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각도로 예술위원회 분야가 생활예술과 전업 예술가의 경계도 무너져 가고 있고 다원화되기도 하고 장르가 세분화되었다가 융복합되었다가. 굉장히 빠른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으로 초점이 자꾸 맺히기는 하는데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집행기준, 정책들이 뒤쫓아 가기는커녕 거기에 자꾸 맞추라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이 정도까지 고민만 하고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

전주에서 대중음악 하고 있는 권**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사위원 세대교체 필요성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아날로그 음악과 디지털 음악 관련해서 심사위원들의 이해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명한 분들이 심사하는 건 알지만 재즈나 클래식 같은 역사적으로 100년이 넘은 장르에 대한 건 100년 전의 클래식이나 지금의 클래식이나 이해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디지털 음악은 빠르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100년이 되지 않은 음악들이 있어요. 힙합, 일렉, 하우스 음악 같은.
한 가지 재밌는 점은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장르의 음악은 10년 안에도 3~4번의 트렌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새로운 음악을 많이 찾아 듣고 이해도가 넓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가 깊은 음악 하시는 분들은 지연, 학연이 탄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신생 장르의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이 소외받는 경우가 암암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랑 같은 맥락인데 그런 신생 음악에 대한 재단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 경험담인데, 저는 힙합 음악을 하는 데 왜 음악분야 지원이 안 되냐고 하니까 당시에 복합예술과 다원예술 그런 게 많이 나눠져 있는 사업이 있었고, **힙합은 다원예술로 지원하라고 하는데 사실 다원예술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재즈 피아니스트 김**라고 하고요. 전주와 전라북도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심사위원 제도 관련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 2014년도부터 고향인 전주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전라북도 역사상 재즈 분야로 신진예술가 신청한 사례가 최초였고요. 2019년도에 신청했습니다.
당연히 음악 공간에서는 클래식 위주의 공연이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사실 힙합이나 재즈나 똑같거든요. **다른 장르들이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예술가들이 방식을 몰라서 지원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많은 예술가를 만나면서 권유해드리는 것은 일단 떨어지더라도 지원해서 이런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재단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힘든 기간이 있지만, 저도 2019년 신진예술가 신청하기 위해 2017년부터 준비해서 2019년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청하고 예술가들이 어필을 시작하면 지자체나 재단에서 관심을 보여서 그런 것들이 다원 분야가 아니라 공연예술의 한 카테고리로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예술가들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아르코 지원사업 중 민간 공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건 예산이 없어서 공연하지 못하는 예술가들에게는 실효성이 전혀 없거든요. 공연을 실행한 사람들에게만 공연장 활성화 지원된다는 것은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있는 예술가들에게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예술가들은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는 공연을 만들 수조차 없고요. 제가 작년 전주시 예술인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말씀드린 게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예술공간들을 예술가들에게 편하게 열어주셔서 온라인 공연 같은 것도 시 자체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지자체, 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부재가 아쉽기는 하고요. **아르코에 공연예술창작산실이나 청년예술창작산실 프로그램이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정들이, 물론 여러 과정을 거치지만 그런 것들을 지자체 재단에서 홍보를 도와주시고 예술가들에 대해 얼마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서류를 정리를 해줘서 예술가들이 그런 걸 알 수 있는 홍보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신진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2019년도에 신진예술가 신청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과연 신진예술가를 발견하는 사업인가. 중견예술가를 신진으로 포장하는 사업이 아닌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에 신청해서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서류를 지원하기 위해 신진예술가 신청했을 때 제 주위에서는 네가 신진이 아닌데 왜 신청해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많은 신진예술가들은 지역 자체만 이야기하면 전주문화재단 같은 경우 어떤 공연을 무조건해야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예술가로서 증명해야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전북관광재단도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활동 경력 증명이 필요하고요. 그게 어떤 경력이 되어야 하냐면, 정기연주회, 발표회, 개인전, 및 중소규모 전시 및 공연 등이 있어요. 네이버에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진예술가라고 하면 사회 분야에 새로 나서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 정도 공연을 했으면 신진예술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진이라는 말을 써서 예술가들에게 지원사업을 하려면 좀 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순히 신진예술가들이 지원사업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제가 알기로 80% 이상이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후속 조치가 없고 재단에도 후속 관련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재단에도 많이 요청을 드렸는데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특히 신진예술가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예술가들에 대한 조치나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진예술가를 신청하고 떨어진, 제가 아는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음악을 그만두는 경우가 50%가 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예술 지원사업이라는 게 예술 활동을 윤택하기 위한 서포트 역할이지 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이들은 이 지원사업에 맛을 들이면 지원사업만 신청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그런 것들이 예술가에서 기획자로 바뀌는 과정에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예술가를 키우는 사업, 아예 공연기획자를 키우는 사업이 분리되면 좋겠고요.**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신진예술가나 공연 지원사업을 신청했을 때 예산 문제나 페이퍼도 많고 너무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게 많아요.
저는 피아노를 치는데, 무대도 알아야 되고, 조명도 알아야 되고, 대관료도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스텝들을 어떻게 써야 하는 지도 알아야 되고, 팸플릿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포스터를 얼마 정도 제작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디자인 업체를 알지 못하면 공연을 하지를 못해요. 이런 실질적 부분들을 셰어를 통해서든지, **단순한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예술가들에게 다양하게 셰어가 되면 서로 윤택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서류작업에서 신진예술가들이 떨어졌을 때 피드백이나 보완점이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주시면 그들이 이 사업에 떨어지더라도 내년에 보완해서 다시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야 가능성 있는 사업이 될 텐데, 우리는 안돼라는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신진예술가, 저는 음악을 하니까 퍼포먼스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음향, 사운드 엔지니어, 무대 디자인, 조명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을 예술가로 지칭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사업체로 단정이 돼서 단순한 일하시는 분들로 많이 치부됐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이든 예술을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든 이런 예술가도 길러내서 지원사업이 되면 신진예술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콜라보가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원이지.** 어떻게 짜 맞춰서 너네가 다원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공연 공간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주시 관계자 분들도 오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쓴소리도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해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홍**

전라북도 전주에서 문화예술기획을 하고 있는 홍**라고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은 아니지만, 중앙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1차 서류 심사 통과하고 2차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시간에 서울에서 와서 대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비는 KTX 기준 왕복 7만 원입니다. 게다가 오전 9시 타임이 지정될 경우 적어도 새벽 5시 30분에는 기상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차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조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지역을 옮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심사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2020년부터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서류를 쓸 때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정된 단체의 자료집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왜 떨어졌는지, 왜 선정됐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으면 학습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

저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고 일러스트 디자인, 문학 장르에서는 에세이를 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배**라고 합니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앞에서 장르를 말씀드렸을 때 아시다시피 **기초예술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 활동증명이나 지원서 쓸 때 장르를 어디로 써야 할지 모르겠거나 아예 접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활동증명 서류를 열심히 넣고 5개월 만에 받은

답변이,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아 증명이 어렵다고 반려가 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술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이 뭐고, 예술의 장르에 뭐가 속하는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사실 전북권 참석자 명단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장르가 주로 연극이나 음악 장르에 편중되어 있어요.
저는 2014년부터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의 장르가 점점 시각예술이나 문학 분야는 참여가 어렵고 공연예술 쪽에 치중되어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공연예술도 장르가 다양한데, 과연 공연예술 안에서도 다양성이 있게 지원사업이 이뤄지는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사실 제가 2018년에 모 지역 기관에서 지원사업을 받았고 그쪽에서 예술 강사로 활동하는 지원사업이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니까 재료비가 발생하는데, 그쪽에서 기준을 최소 100명 이상 체험이 가능하도록 재료비 지출을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시골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만큼 재료 소진이 안 된 거예요. 이후에 그 기관에서 어떤 협회와 손잡고 지원사업을 하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 기관에서 요청하시기를 재료가 많이 남았을 것 같으니 남은 재료를 가지고 무료로 와서 체험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재료를 회수해가겠다.
네가 하고 있는 예술교육이 단순하고 쉬워 보이니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와서 하든, 네가 하기 싫으면 재료를 내놓으라고.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예술교육이 저평가되는 게 불쾌했고요. 보수가 없음에도 가서 교육을 했고, 마지막에 장터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 협회에서 밥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자리인지 모르고 갔는데, 거기 협회장님, 기관 관계자, 담당자도 두 분이나 오셨었는데 협회장님께서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복권을 돌리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기관 관계자는 웃으면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다른 지원사업을 최근에 하게 됐고 그룹 대면심사를 하러 갔는데, 공교롭게도 제 타임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5명이 면접을 보는데 저만 여자고 나머지는 남자분이셨어요. 심사위원 한 분이 특정 인물에게 우리 기관의 지원사업을 과거에 받은 적 있는지 재차 물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멘토링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예술인이 창작물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예술가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멘토링을 억지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 멘토 분도 자기는 예술이나 창작 분야는 전혀 모르고 창업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 인프라 안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이 그냥 왔을 뿐인 거고요.** 공교롭게도 금요일 밤 10시에 저를 보자고 하셨어요. 그때 만나서 자기 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딸이 11살인데 여기서 나이를 조금만 더 먹으면 나랑 같이 목욕을 해주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우리 딸의 알몸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예술가로서 예술인 멘토링을 받으러 간 자리에서 금요일 밤 10시에 들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멘토 섭외 기준,**

선정이 됐을 때, 성평등이나 성폭력 교육은 반드시 이뤄지거나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소위 위원1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기관명은 말씀 안 하셨는데 일단 제가 듣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기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 기관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게 화가 나고, 멘토링 같은 경우도 제가 이해하기는 이상한데요. 저도 모 기관의 어떤 예술 강사의 멘토링으로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멘토링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기관에 뭔가 문제제기를 하셔야 되고 그걸 기관이 뼈저리게 알도록 해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 저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고 미술하고 수공예를 작업하고 있는 김**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예술 분야가 아니었다가 이 일이 좋아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예술 활동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혼자 하는 것의 한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 전공이 그쪽이 아니라서 멘토를 해주시거나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실 분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을 받거나 멘토링을 받으려고 해도 지방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분야에서 멘토링을 받을 수 없고.**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아크릴화나 팝아트 같은 작업을 하는데, 그 분야가 아니라 그냥 미술 하시는 분 아니면 그냥 예술하시는 분과 만나서 멘토링을 한다거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차후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옆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림에 대한 예술 활동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는 작업이 미술이지만, 이게 미술이라 할 수 있나. **저도 예술인 등록할 때 제가 잘하는 부분이 팝아트여서 전시회도 하고 작업물도 제출했지만, 그쪽에서는 팝아트를 예술 분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은 예술이고 예술인이고 작가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술인이 아니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 저는 예술인과 비 예술인의 경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일단 기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문화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진입할 때 저는 생활문화로 진입했어요. 그 과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하다가 돈 몇 번 토해보고 정산 과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대표자로서 이런 과정은 왜 해당이 안 되지, 왜 소품비는 안되지, 왜 뭐는 안되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싫어서 지역문화 양성과정을 통해 지금은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전체 휴관을 하면 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저희도 알아요. 근데 **지역은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된다고 해서

연락해봤는데 안 되는 곳도 너무 많고, 기관에서 종사하면서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거든요. 일반 예술인이나 비 예술인은 참여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홍보물을 제작하지만 사실 이 홍보물, 잘 활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작했지만 이 홍보물 몇 명이나 볼까, 제가 활동을 8년 했거든요. 이 홍보물 통해서 오시는 분은 열 분 내외라고 봐요. 지역신문에 배포도 하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지만 몇 분이나 보실까. 이걸 통해서 몇 분이나 참여하고 보러 와주실까. 뮤지컬 관심 있고 연극에 관심 있으니까 찾아보고. 찾아오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홍보물에 해당하는 비용이 책정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30% 사용하면서 얼마나 홍보가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의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정산 다 하고 제출했는데 다시 하래요. 그걸 일일이 티칭 하거나 멘토링 하기에는 다들 바쁘세요. 담당자님도 바쁘시고요. 근데 기한이 정해져 있대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전화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럴 때 단체 운영하는 입장에서 돌아버리거든요. 다시는 지원 안 한다, 때려치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술이 하고 싶으니까요. **아까 공연예술 쪽으로 지원이 치중된다고 하셨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조명 돈 들죠. 모르니까요. 음향 돈 들죠. 모르니까요. 어떡해요. 전문가 섭외해야죠. 근데 아까 전담인건비 편성 가능 이런 부분 있더라고요. 돈 드리고 싶은데,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예요. 내가 거지인가, 돈이 있는데 돈을 못 드리는 상황이 너무 많아서.*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면 안 되니까 그런다, 그런 상황은 알아요. 사실 저희가 스스로 돈을 들여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세하거나 디테일적인 게 들어가 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현소위 위원1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소통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 연극하고 놀고 있고요. 청춘 마이크 전북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요즘 고용보험 다들 골치 썩고 계시잖아요. 팀장님도 누구보다 열심히 고민해주고 계시고요. 올해 7~8월 이후로 첫 실업급여 대상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가 돼봐야 알 것 같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오늘 예술위원회 분들 오시면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어때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이걸 설계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분도 큰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설계를 하셨을 텐데 **어떤 지향점을 두고 이렇게 설계했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리고 예술인, 알바 거리, 일자리, 일거리 많이 생겨나면 좋겠는데 예술위원회에서도 이런 걸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예술인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요.** 그리고 아까 5%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 수혜자 중에 하나고, 감사하게 잘 놀았고요. 재작년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을 받았고, 지역 연출가 역량 사업으로 국립극단 갔다 왔고 감사하게 잘하고 있고, 이렇게 수혜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런 사업들이 안 지워지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제 고민거리 중 하난데 이건 아르코에서 어떤 생각인지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 지금 남자 여자 비율이 대충 맞는 거 같아요. 남녀 비율, 연령 비율, 그리고 지역 비율, 요즘 그거 많이 고민들 하시고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심의위원 구성할 때 반절은 여성분이 있어야 된다, 전국단위 사업 지원할 때 전국적인 비율이 맞춰져야 된다, 수도권으로 편중되면 안 된다, 감사하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그 덕분에 제가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총점이 300점인 사람이 50등 했어요. 근데 제가 지역에서 1등 했는데 총점이 280점이에요. **단순히 지역인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았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 평점대로 줘야 하는데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감사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요즘 너무 고민이 돼요. 왜 그렇게 맞춰야 하지. 그냥 정해진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심의해야 되면 해야 할 사람이 와서 하면 되는데 심의위원이 남자고 여자고 연령이 높고 낮고 그런 거 뭐가 중요해, 이런 고민이 드는데 예술위원회는 어떤 마음이실까 이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남** 저는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공연 분야 쪽 마케팅하다 최근 전주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전주에서도 기획이랑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전주하면 떠오르는 게 한옥마을도 있지만, 문화예술이 많은 지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요구가 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전담인건비에 대한 사전접수 의견에 대해서 여기 쓰여 있는데, 전담인건비에서 기획자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어느 분도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경험한 사례를 설명해드릴게요. 좀 유연하게 하면 해결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기관에서 잠시 사업 코디네이터로 일을 몇 개월 할 때 (제 담당 사업은 아니었지만)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큰 사업이 떨어졌는데, 사업 정산 내용 중에 행정 작가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분에게 2대 보험 가입하고 인건비를 일정량 제공하는 지정 사항이 있었어요.
그 행정 작가가 팀의 구성 원고나 기획을 하는 게 아니고, 공연이나 미술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행정서류를 잘 다루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팀 구성원으로 있는 건데, 그 구성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2대 보험을 가입했거든요. 사전접수 의견에 보시면 전담인건비 편성 가능 여부, 대표적 구성원 인건비 편성이 가능하도록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가 돼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사업들은 대표자의 기획비나 내 팀원, 구성원의 기획비를

못 주는데 **행정 작가라는 걸로 인건비를 주고, 행정이라는 업무 자체를 예술이 만들어질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지원했다는 게 좋은 해결 방식이고.** 조명을 치고, 배경을 만드는 걸 옛날에는 기사라고 했는데 그런 행위를 복합 다원적인, 어떤 예술을 만드는 예술의 활동으로 보는 단적인 예인 것 같아서 언급을 해드린 거거든요.
인건비를 책정 못해서 나오는 부작용은 모두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하나 올리고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사회문제에 대해 공유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업비를 위한 사업을 받으시는 분이 나오는 게 대표적인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술가가 문턱 앞에서, 경험을 한 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버리는 사람은 생업과 예술 활동을 병행할 수 있음에 내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짊어져야 하고.* 물론 그 고통을 뛰어넘는 사명감으로 활동을 하는 훌륭한 예술가 분들도 많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활을 먼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점이 이 부분인 거 같아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티스트 피도 책정이 되고 **대표자가 스스로 기획을 함과 동시에 예술인으로 공연문화예술 생산자 역할을 했을 때 그 가치에 대해 직접 판단을 하고 정산 시 지급하라는 사업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라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몇 년 전에는 행정상, 법률상 문제가 돼서 못했지만, 이미 지금 저희는 경험을 하고 저 또한 많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냈고, 조례가 갖춰지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조례 안에서 조금이라도 빠르고 유연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

제가 세팅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네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서포팅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지금 어쨌든 잘 정리되긴 했고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 일을 알고 계신 분이 좀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갑자기 난감하네요.
우선 2021년도 청춘 마이크, 지역문화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올라왔죠. 저희 ***이라는 단체와 **문화관광재단하고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선정이 됐죠.
이후 재단의 행동들이 문제가 돼서 우선 이의 재기신청을, 공문을 통해서 지역문화진흥원에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공문을 2차례를 보냈고요. 법률자문까지 거쳐서 그것 토대로 2차 공문을 보내서 이의제기 신청을 2번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의 지역 예술인들, 그리고 저희 사단법인 ***의 관련된 회원들이나 주변 분들이 분노 아닌 분노가 있어서 지역에서 큰일로 다뤄졌고요. 그런 안 좋은 일까지 거의 한 달여간의 어떤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지역재단들의 위치, 아니면 어떤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지역의 재단들이 지금 예술인들이나 예술 관련 단체들에 대한 서포팅에 대한 역할들을 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기본적 자세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기본적 위치에서 동등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구나. 좀 배려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고, 깎아내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재단들이 각성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나. 원래 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사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마이크 잡으면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마이크는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드릴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술가들이 원천세를 떼거든요. 그런데 원천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5월에 종합소득세 원천세를 환급받으면 5분 만에 세무서에서 클릭해서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예술가들은 수입이 적다 보니까 예술가들에게도 13월의 월급이 있다는 거,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한 3년 전부터 이걸 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예술가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네트워크를 했는데, 원천세를 왜 많이 떼냐는 불만뿐이지 원천세가 미리 떼간 세금이고 수익보다 지출이 많을 시에 환급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기획서 공유를 했거든요. 붙은 게 있고 떨어진 게 있는데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의 호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원예술 리부트라는 사업이 가장 좋았던 게 참여자 간의 블라인드 심사하는 게 좋았고, 또 하나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출신 영역, 활동, 현직에 대해 그렇게 많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사실 중앙 쪽에서 붙었을 때 출신학교와 유학 경험 같은 것들만 보고도 결정되는 게 많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온라인 전환사업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온라인 전환사업에서 예술과 기술은 어떤 걸 남길 것인가. 예술은 가치를 남기고 디지털은 돈을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할 때 본인들은 삶의 문제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해 명확하게 발표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만, 디지털은 외주 입장이거든요. 외주로 주고 이게 완성됐을 때 디지털 업체들이 돈을 벌고,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 유지비용이 드는데, 예술가들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일회성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IT나 예술이 융합은 이뤄지지만, 여기에 대한 주도권은 아직도 예술가들이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이뤄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원사업 수행의 연속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르코에 하는 것 중 연구, 기획, 발표 단계가 한 지원사업 안에서 순차적으로 나와 있어서 좋았거든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지원사업마다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행안부는 소프트웨어를 한 다음에 하드웨어 할 수 있는 사업을 붙여주고, 하드웨어를 한 다음에 확장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지역 자산 사업같이 계속할 수 있는 걸 조언해주고, 붙여주거든요.
또 하나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라서 문화 활동하면서 수입을 내는 방법은 저희들이 중앙 지원사업 받아서 거기서 예산 책정하는 건데, 최근 단기 일자리가 나오다 보니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그 친구들에게는 인건비가 나갈 수 없는 제재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저희는 지원사업을 따서 자부담 보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외부인력을 쓰라는 건데 계속 외부인력 채용하고 자부담은 늘어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재작년부터 준비했던 게 있는데 문화 N티켓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홍보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공연의 중간 기술 플랫폼 역할로 만들어졌지만 사실 인터파크를 이길 수가 없었고요. 현재 대안적으로 만들고 있는 플랫폼이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봉사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데 이 마일리지를 받는 봉사자들이 이걸 쓸데가 없다고 하니 문화예술 쪽으로 풀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마일리지가 소진되는 게 아니라 예술가에게 적립이 되고 예술가들이 다시 쓸 수 있는 순환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사실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수수료 문제들, 저희는 실제 운영비용이 없다 보니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행안부 일상 홍보 시스템 연결의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워낙 디지털이나 핵심 화두, 키워드에 대해서만 집중 지원해주지 **플랫폼이나 구조를 한다고 보고하면 이게 민간에서 가능해? 하면서 자르더라고요. 저희도 나름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이 맞는 게 있다면 나름 그런 방안도 같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김**님께서 쉽게 가는 방법부터 말씀해주셔서 저도 생각나는 방법 말씀을 드리면, 멘토 부재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르코처럼 전국 기관도 물론이고, 전주, 완주, 익산 재단, 문화관광재단도 전주라는 하나의 구역을 맡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인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소수 담당자로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한계점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교육과정 수료생들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해 줍니다. **근데 이 수료증 발급받고 그 이후가 없어요. 올해도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매년 전북에서만 3~4개 지자체에서 10명 정도 나오면 한 해에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양성되는 수료생이 30~40명 정도 계속 배출됩니다.**
저 같은 경우 19년 수료를 했고, 그때의 전주지역 수료생들과 연락을 하고 있어요. 기관이나 단체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개인 예술 활동, 그만둔 친구들 등 다양한데 그들을 전문인력이라고 했음에도 강사나 멘토나 이런 거로 오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문인력이라고 하면서도 그 자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서울, 세종, 부산, 이런 지역에서 크게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를 멘토로 모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있어도 전주 지역을 이해한다고 못하거든요. 그분들이 가진 부산, 서울의 사례가 해당 지역과 잘 맞아서 터진 거지, 전주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통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지역에서 지역자원에 대해 교육한 수료생들을 파악하고, 이미 수료했기 때문에 확보하고 있는 자원이잖아요. 이들의 예술적 감각이라든지 사업적 감각이라든지, 가치를 이미 인정하고 검증을 한 거잖아요. 왜 멘토가 부족하다고만 하는가. 그들을 좀 더 활용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넘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신진 예술사업에서 기존 기성세대 예술인들과 경쟁을 하느냐.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도 그들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갈 수 있는 지원사업이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파이가 확정되어 있으니, 그들도 그게 생업이고 예술 활동 기회인 거니까요. 그런 멘토링 활동이나 강사 활동 정도 풀어주고 행정기관의 전문인력들을 파견 보내는 사업도 다양하게 있는데, 행정기관도 그런 고충을 토로하시잖아요. **예술인에 대한 이해가 힘들고, 또는 예술인 전공자가 행정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어하니 그런 중간다리 지점 역할, 그들이 분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서류나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는 역량강화 기회로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자원의 활용 방향성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현소위 위원2 저도 오늘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왔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어서요. 당사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재단, 기관, 예술인이 모여 있는 이런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여러 기관의 실무자 선생님들이 와계시는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여서,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닿아있는 맥락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역에도 많은 지원사업, 아르코도 지원사업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지원사업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지원을 하고 끝나는 방식인가. 과연 이것이 괜찮은가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 단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데 지역사회 어떤 것에 이바지했는가, 우리 지역 안의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됐는가, 환류에 대한 답변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저희 안에서 좋다 나쁘다로 정리하는데 그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원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지자체의 기금 혹은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다양하고 향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면 우리가 그 가치를 실행하고 있는 주체를 인식하고 잇는 환류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하는데* 실무자분들은 너무 바쁘고. 할 시간이 없지만 그걸 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원사업할 때 **결과물 중심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라. 그러니까 그 안에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 안에 사람은 삭제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는 지금의 구조라면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다고 감히 상상해 보거든요. 이제는 지원사업의 구조가 변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본 게 저는 저희 지역에서 과정 중심의 지원사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말이 좋았는데, 사실 신진예술가는 이 사업을 통해 실패해봐도 좋은 거거든요.

결과물이어도 좋고 실험의 과정이어도 좋고,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예술인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살래? 라고 물어보는 어떤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과정에 대해 지원받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술가를 길러내고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민해볼 수 있는, 다양한 상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 선생님 말씀 주신 심의위원 문제인데요.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게는 위험하다.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 비율이나 세대 비율들을 맞추는 문제는'맞추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왜 이걸 맞춰야 하는가에 대한 출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말 평등하게 청년세대와 여성들과 다양한 소수자에게 기회를 열어놨는가. 우리 경쟁하고 있는데 이 경쟁이 절대적인 결과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 우리 사회의 출발선이 동등하냐를 물어보는 지점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걷고 있느냐, 시작했느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별 비율을 맞추는 문제나 세대를 맞히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시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판단하는 것이 맞는가, 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고요.** 지역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아티스트,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가 정말 기반과 준비된 과정 안에서의 출발선상이 똑같은가에 대한 질문을 역으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다양한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된 거라고요. 누군가가 그것을 계속 점유하는 방식이면 계속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면, 우리는 이 시스템에 반기를 들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권** 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 심의위원 이야기하면서 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렸던 건 저희 지역 지원사업 심사제도 안에 다양한 상상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 부족하다. 사실 실무자분들이 복잡하고 다난한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심사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상상들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심사과정을 지금 아르코에서 만들어서 해보고 있다는 예시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요즘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가 예술인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으로 사는데, 대한민국에서 사는 예술인은 어떤 존재와 위치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고민까지 더해진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지원사업, 페이퍼 이런 파편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 파편들은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가에서, 시스템 안에 머무르기 위해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처럼 읽히는 게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현소위 위원3 저는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입니다. 저도 위원으로 활동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지역문화재단에서 약 6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재단 그만두고 생계문제가 있으니까, 예술가로 등록해야겠다 생각하고 복지재단에 신청했었어요. 저도 떨어졌었거든요. 재단에서 일하기 전까지 하면 15~16년 정도 활동 경험이 있고, 지역에서는 문화기획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에서 가로막히니까 충격이더라고요. 당장 제가 그전까지는 행정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상황이 되니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예술인 복지재단 담당자와 팀장님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제도 문제와 이런 건 이야기했지만, 그분들도 문제는 인식해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은 부족하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현장소통 소위원회에 원서를 쓰면서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하는 거죠. 주변에 저 같은 기획자들을 둘러보니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활동들을 리플릿이나 포스터로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들. 다 비슷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걸 제도적으로 풀어보자,** 이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많이 해결하지는 못했고요. 기관과 기관의 문제여서 문체부 차원에서나 상호 기관 사이의 지속적 협력 구조가 만들어지면 될 수는 있으나 아직 그렇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멘토나 지역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요. 제가 진흥원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지역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역이 어떻게 문화적 분권을 이뤄낼 것인가는 근 20년간의 계속된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양성사업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쓰지 않고 외부인을 데려오는가에 대해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단순하게 그 기간을 거친다고 해서, 인력양성을 수료한다고 해서 당장 멘토로 쓰기에는 지역사회에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역 안에 들어와서 다듬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경험치들이 지역재단하고 지역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연계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지역문화진흥원에 전달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역문화진흥원 컨설팅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단체와 지역의 문화예술을 접하면서 느낀 부분이 지역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각에 대한 노력들이 조금만 더해지면 훨씬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서울 중심 사고를 많이 했었고 서울 활동하는 예술가, 그런 사람에 대한 지향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을 몰랐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어떤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 어떤 문화 예술적 사상이 있는지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지역 현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콘텐츠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지역에서 예술가와 재단과 기획자들 그런 그룹 형태의 노력이 이뤄진다면 훨씬 더 지역 안에서 깊이 있는 형태의 콘텐츠가 발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 지역문화 인력양성 사업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015년에 시작했죠.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시작했는데 3년 차쯤 되면서부터 전북 같은 경우 지역문화인력 양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사업도 지역문화인력 배치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2015년 첫해 참여했고, 이 사업을 2년간 다 들었고, 3년 차 첫 배치를 받은 사람이에요. 진흥원 가면 이 사업 때문에 4대 보험을 처음 들어봤다, 제가 배치사업의 최대 수혜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지역문화 인력양성사업을 수료하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 15명 정도가 문화의집과 문화재단에 배치되더라고요. 월 200만 원의 돈을 받고, 최대 2년까지 있을 수 있고 다른 기관 선택하면 또 가서 또 2년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있어요. 찾아보면 있기는 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는 않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문화 인력사업이 전문이라는 단어가 빠진 게 아까 이야기처럼 멘토로서 강사로서 심의위원으로서 오지 못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화된 게 아닐까** 상상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 김** 선생님은 같이 했었는데 그 과정을 했던 안 했던, 안 했어도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고, 심의위원 부탁도 하는 상황이죠. 어쨌든 모두가 다 불림을 당하지 않는 건 아니고 누군가는 가더라고요. 그래도 아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력을 만들어 놓고 쓰지 않지? 이유가 뭐지? 한 번 고민을 해 볼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위원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됐어요. 그래서 요청드렸던 게 이 사업을 힘들게 땄는데 올해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거냐 했더니 기다려보래요. 이런 똑같은 사례로 전라북도 사업이 있었는데, 도 재단에서는 올해는 안 된다. 올해 안에 소진해라 못하면 너의 사정이다. 반면 예술위원회에서는 고민해봤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니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2022년도에 코로나가 줄어들면 진행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현장을 이해하고 발휘해준 융통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융통성을 잃지 않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 사실 아르코도 그렇고 지역문화재단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사업의 예산이 현저히 적고 단체가 많거든요.** 제가 개인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이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원사업에 실질적으로 뛰어든 지 오래되지 않아서 부작용 때문에 개인에게 많은 지원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됐던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공연 페이퍼 작성하다 보면 같이 참여하는 스텝이나 인력에 대해 쓰는 란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 혼자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것도 단체가 될 수 있는데, 단체라고 하면 고유번호증이나 단체증이나 그런 공신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으로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심사위원이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되면 개인에게도 많은 예산이 주어져서 좀 더 다양한 공연들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 그룹화가 되고, 사실 모두가 단체를 만들고 싶어 해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공연이 많지 않거든요. 저는 여기에 쓰여있는 **작은 창작지원을 많은 예술가들에게 지원한다에 반대해요. 왜냐하면, 애매한 금액을 많은 예술가들에게 줘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개인에게도 많은 예산이 주어지고 결론적인 공연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실행하고 있다는 것도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면 분명히 좋은 콘텐츠, 좋은 문화예술이 개인들의 협력으로라도 많은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어떤 걸 기획하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사업은 금액이 너무 현저히 적어요. 기획자를 쓰고 싶어도 예산이 없는 거죠.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이 할 수밖에 없고 발전이 없어요, 개인 예술가는. 그래서 그룹핑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 예술가도 돌파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어느 재단에서는 신진이나 개인에게 1,000만 원까지 지원이 있었는데 줄었어요. 아르코도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현저히 적고요. 단체는 한 공연에 수천만 원까지 지원해요. **개인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다면 예산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다른 예술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아르코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현소위 위원4** 저는 전통분야를 하고 있고, 해금 연주자로 활동하면서 공연기획자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과정 중심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중심 예술 활동에 대한 대안이 더 면밀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서울문화재단과 공동기획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지원사업이라는 게 금액의 중요성도 있지만 지원 시기인 것 같아요. 지원 시기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적정하게 안배가 되어야 정말 필요한 예술인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공동기획으로 들어갔던 기획사업은 굉장히 작은 단위 기획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지원사업의 집행 시기가 모든 지원사업들이 진행되는 사이에 들어가 있었어요. 성격이 재밌었던 게 지원사업 하나 자체가 공연예술 콘텐츠 하나 단위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과정 중심이어서, 시상금 형태라 정산도 없고. 이걸 가지고 하나의 공연 완성이 아니라 이전에 받았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지원사업에 받은 금액이 프로젝트 진행에 부족하면 보태서 완성도를 높인다는 취지였어요. 이 사업이 끝나고 참여하신 분들께 피드백을 받았는데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했던 시기가 지원사업이 뜨지 않는 시기였거든요. 본인은 기존 지원사업 금액이 좀 적었고 사비를 털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적정한 금액을 적절한 시기에 줬냐는 거예요. **이 재단에서 독단적으로 기획한 게 아니라 그 전해에 참여했던 예술가들 중에서 공동 기획자를 꾸려서 애로사항을 반영한 거예요.** 저는 지역문화재단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작년에 문화재단이 새로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지역문화재단과 지역 예술인의 신뢰관계인 것 같아요.**
이 신뢰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단지 지역문화재단이 예술인을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틀린 것 같아요. 또 예술인 입장에서 지역문화재단을 기관으로만 바라봐도 곤란하고요. 제가 재단 분들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저는 예술인 이전에 여기 지역 주민이에요. 그리고 전업예술인이기 때문에 직업이라 무료 봉사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민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난 이 동네에서 살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 달라. 그 이후부터 여러 가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정산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활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지역 예술인 분들도 지역재단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 보태서 이야기해보자면 간담회가 이뤄지고 예술가의 목소리 들으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그런 자리 가서 들은 이야기가 재단 관계자분이 문학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는 작업실이 필요 없지 않냐, 집에서 충분히 원고 쓰실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공연 예술하는 분들도 연습장은 필요하고 회화하는 분들도 작업실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에서 나오는 지원사업들은 공연장을 제공하거나 전시장 제공하거나 홍보물 지원은 많은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작업실을 지원해주는 사업은 전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야기를 사실 전주시 예술인복지팀에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가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저번에 예술인 실태조사 자리에 갔다가 중간보고회에서 예술인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술인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 사실 지원사업 기간이 짧잖아요. 짧으면 몇 개월, 길어봐야 10개월~12개월 안에 어떤 작품이나 뭔가 형태가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데 그 뒤에는 더 많은 시간 고민할 수도 있고, 충분히 고민이 되지 않은 작품을 실현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활동하지 않을 때는 예술인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전업 작가로 살고 싶고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관계자분들께서 예술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소위 위원1 설마 농담으로 그러셨겠죠. 진심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데요.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보태면 아르코는 더 이상 그렇게 예술가를 취급하지 않겠지만, **예술가는 단순히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지원제도, 심의제도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술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자리 나와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빨리 가서 시 쓰고 싶고, 그 시간이 행복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건 없어요. *예술가들은 늘 삶 자체가 모든 순간이 예술이고, 자기 창작 혹은 자기실현의 감성들로 가득 차 있는 순간순간이거든요.* 예술가는 지원 대상, 기관은 지원해주는 주체,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예술지원제도 안에서 파트너로서 역할인 거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정말 너무 귀찮지만, 우리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국가는 예술을, 예술가를 뭘로 아는 걸까요.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가치가 있고 그 가치들이 중요하게 생각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걸 하자고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너무 필요한 거겠죠.

김** 공간 지원사업이 찾아보시면 좀 있거든요. 시각예술이나 미술은 레지던시로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일러스트든 **작업물의 형태가 예술화되서 재단이나 예술 관계자분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게끔 예술가들이 행동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전주에서 공연할 때 98%는 디지털 피아노로 공연합니다. 전주의 큰 행사에 초청돼서 공연했을 때 전주시 관계자분들이 악기 렌트를 해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 팀과 서울팀, 재즈팀으로 두 팀이 섭외가 됐는데, 서울팀한테는 악기 렌트를 해줬더라고요. 그걸 작년 전주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더 이상 저희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건 최소 어필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공연 다닐 때 사비로 그랜드 피아노 렌트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진예술가도 2019년에 600만 원 받았는데, 사비를 600만 원 써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예술가들도 지원사업에 기대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예술가로서의 이미지 메이킹도 필요하고 스스로의 재투자도 필요하지 않나.** 제가 여기 참석하게 된 게, 처음에 참석인원이 적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었어요. 작년에는 간담회에 많이 불러주셨는데 올해는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저희들끼리도 이런 이야기들을 예술가분들께서도 많이 참석하고 목소리 내면서, 재단분들과 소통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 많이 공감과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만 하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지원사업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어떨까. 도시재생이나 장애아동이나 이런 쪽을 대할 때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대하지 않아야 하는 게 기본적 전제거든요. **지원사업이 원래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술이라는 행위가 사회를 바꿔나가고 새로운 문화를 개척하고, 지원 대상이 예술뿐 아니라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회 개선하기 위해 하는 건데.** 단어가 주는 힘이라는 게 있어서 자꾸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예술인들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행정에서도 이들을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술가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후원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그 이미지를 벗어날 때가 이미 지났고, 공론화가 많이 되었지만 이런 행정용어들을 서류상에는 쓰더라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개선해도 인식 개선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을까. 저희끼리라도 그런 부분 바꿔나가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소위 위원1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맡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전주 지역 예술의 열정이나 에너지가 모두 여러분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향이 고창이에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반가웠습니다. 예술가가 미래에 대해 섣불리 확신하는 것은 좀 꺼려지지만, 예술의 미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할수록 변하겠죠. 단번에 체감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변하리라

생각하고, 예술이 세계를 바꿔 가는 일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 좋은 말씀 해주신 참석자 선생님들 위원님들 참가자로 오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fin.

기타 의견

○ **(경쟁방식의 공모사업 문제)** 신진과 기성작가 간 경쟁 시스템이며 신진에 대한 지원사업이 부족함
- 청년문화재단을 만들어 적은 창작비용을 최대한 많은 예술가에게 지원하여 실험하고 실패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

○ **(민간 공연장 및 전시장 지원)** 아트플랫폼 사업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라고 되어있으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고, 지역 내에서는 유휴공간이 없다고 답변하는 상황. 민간에서 비용을 대고 공공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실정임

○ **(예술시장의 부재와 청년예술가들의 지역 이탈 현상)** 온라인 경매 등을 활용해 지역에서도 충분히 예술을 할 수 있다는 홍보 필요
- 지역에서 중앙기관의 지원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지속 가능한 시대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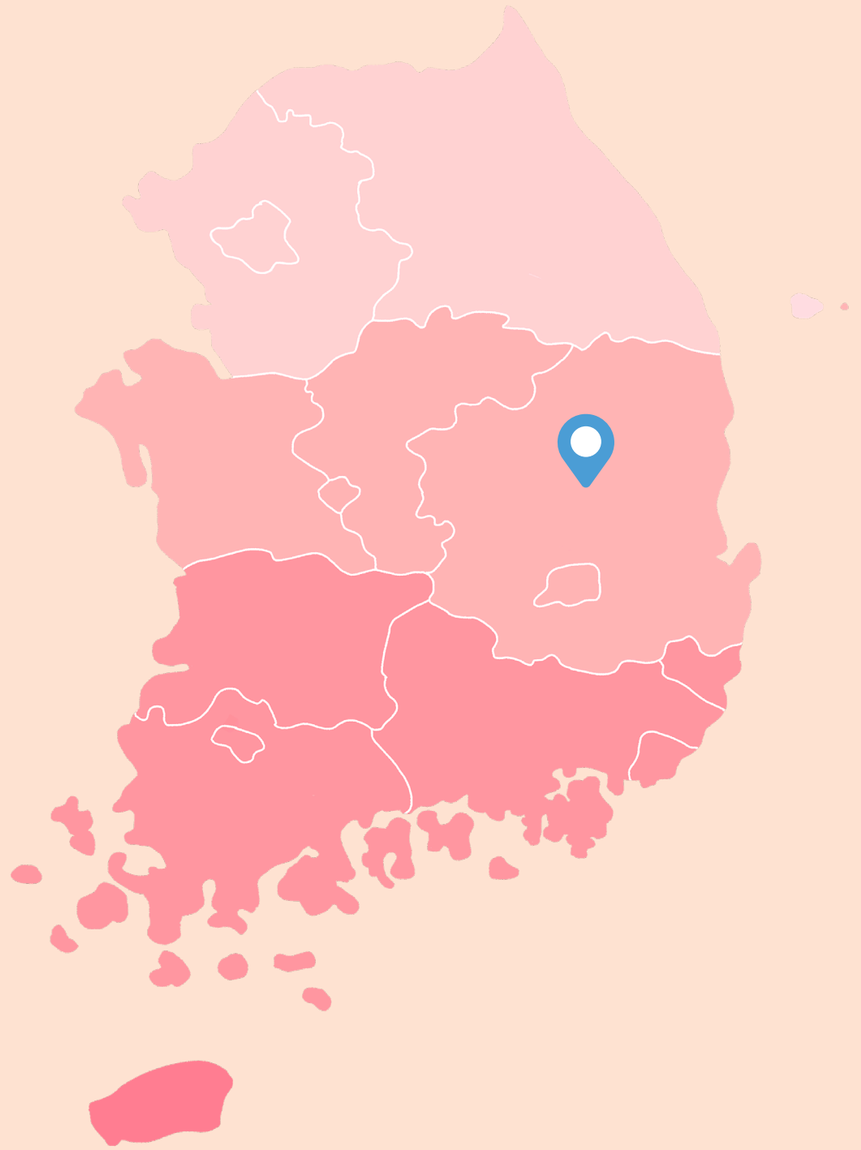
○ **(포스터 등 홍보물 폰트 관련 저작권 시비)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나 상담 라인**

○ **기관 직원들의 예술에 대한 낮은 이해도**

○ **예술인 활동증명 등 정책에 잡히는 기준의 의미, 정보 접근의 용이성**

대구·경북권 — 안동

2021. 5. 21.(금)
경북도청 동락관 1층 세미나실



대구·경북권 간담회는 경북문화재단이 2020년 새롭게 출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열리던 대구가 아닌 안동을 찾았다. 이례적인 장소 선정 때문인지, 우려했던 것보다도 예술인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계자들의 자성적인 반성은 이런 분위기가 대구·경북권 예술인들의 전반적인 성향이기도 하다며, 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소통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제	주요 의견
지원사업 및 심의제도 관련	○ 미래 지향적인 지원사업, 제도 등에 대한 고민 ○ 지원 서류 자체의 모호성과 애매함 ○ 지원사업 인건비 편성의 사각지대 ○ 지원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절차 축소 및 예술 역량 강화 ○ 인기 및 수익성 높은 장르로의 지원 편중 ○ 지원금의 증액, 장르별 특성 고려, 사후지원 방안 등 ○ 심의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 다년간의 심의위원 배제, 청년예술가 심의위원 확보 - 사업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자기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 심의위원 존재 사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목적은 지역단체 역량 강화와 공연장 가동률 제고로 알고 있는데, 지역 내 소외된 단체를 육성하고 조직역량이 있어 보이는 단체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정한 것 같음 ○ (대구) 연례사업의 지자체 별도 예산 편성
기타 의견	○ (문학 분야) 등단 제도의 문제점, 타 분야와 지원 비율의 형평성 ○ 산업적 측면에서 예술인 활용 측면 부재 ○ 예술인들의 사회적 역량 및 역할 제고 ○ 예술인들에 대한 지역으로의 유인책 ○ 대규모 예술프로젝트 및 협업의 장 마련 ○ 예술 장르의 다양화, 다원화의 필요성, 발굴지원 ○ 예술단체의 자생력 문제, 기초예술의 범위, 예술인 복지 등 ○ (재단 대상 질문 사항) 지역 내 예술단체 수 파악 여부 - 전문예술단체와 생활예술단체의 구분이 필요함. 재단 공모사업 추진 방향이 예술가들의 창작여건 개선과 지원에 있는지, 생활예술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있는지 모호함 - 기본 환경을 지원하는 '보편지원', 창작에만 전념하는 소극적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발굴지원', 예산에만 국한되지 않는 '맞춤 지원' 등의 구분 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이하 현소위 위원)

현소위 위원1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 소위원회 이**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문화기획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현장소통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술가분들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저는 연극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경북 구미에서 연극을 하는 사단법인 문화창작집단 *** 의 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지역 현장소통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전접수할 때는 재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도에서 했던 사업들이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나름대로 재단 사업이 세련되고 정밀할 거라 판단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보기에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좌절감도 많이 느꼈었고요.** 아까 공연장 상주단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재단에서, 경북에서 공연장 상주단체가 원래 예술위원회의 매뉴얼이 있는데도 이대로 실현되지 않은 게 전국에서 경북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들을 도청에서 담당하셨고, 도청 문화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연장 상주단체는 크게 공연장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공연장 기본으로 민간단체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경북지역의 공연장들은 공연장 상주단체에 대한 개념도 모르실뿐더러 민간단체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셨죠.** 그런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에 나름대로 역량 있는 단체가 비집고 들어가서 공연 몇 편 하는 정도로 풀어냈던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2~3년 상주단체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저희는 경북 구미에서 상주단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떨어졌어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재단이 되면서 재단이 자기 역할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재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좌절했다고 한 것은 2년 동안 상주단체를 하고 나름 경북에서 연말에 평가하잖아요. 대표로 올라갔고 저희가 했던 작품이 다른 데 팔리기도 하고 수익도 올리고요. 참고로 저희 극단은 사회적 기업이면서 전문 예술법인입니다. 저희 단원들이 월급을 받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떨어뜨리더라고요. 왜 안 붙여주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정확하게 선택과 필수라는 매뉴얼대로 했고, 실제 조직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이런 걸 통해 단원과 단체가 성장했고, 2019년에는 지역 소재로 한 작품이 대한민국 연극대상을 받기도 하고 고마나루 연극제에서 우수상을 타기도 하고 그걸 지역 상설공연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연 파악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 지역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예술인들의 지속 관점보다 작품을 지원했던 것 같고요.** 재단 역시 마찬가지로 힘드신 건 알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공연장 상주단체 됐어요. 그때 심사에 대한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 게 제가 받는 입장에서 느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못 하는 심사위원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르별로 분배했었고 보니까 저희 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다른 상주단체 예산보다 그 예산이 크다 보니까 지역의 소외된 단체를 지원해야 하지 않냐라는 그런 논리로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상주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변치 않았다면 지역 예술단체 역량 강화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소액 다건 문제가 아니라 한쪽으로 몰빵을 하더라도 샘플을 보여주고 모델을 보여주고 그것대로 해가야겠다 쪽이죠. 경남이 제가 알기로는 상주단체가 잘 활성화된 거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가 경남 진흥원에 가끔씩 심사 갈 때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경계선을 두고 사업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구나.

심사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재단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총체적으로 예술위원회 분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재단에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실 오늘도 코로나나 여타 이유로 예술인들이 많이 못 오신 이유 중의 하나는 결국은 경북의 예술단체 역량이, 죄송하지만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예총 중심, 협회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예술인들의 창작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성장지원보다 단체에서 역량 있는 분들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으로 끝난 거고. 예술의 전당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 분들이 봤을 때 예술단체들이 역량이 작아진 이유가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지속 가능하게 해가고 싶다.** 지원이라는 사업 자체에서 단순한 기본 환경을 지원하는 보편지원이 있을 거고, 단체에 있지 않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창작만 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발굴지원, 그리고 예산에 국한되지 않은 맞춤 지원 형태라는 재단만의 예술지원 같은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경북문화재단과 경북도청이 지원사업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예산만 지원이 아니고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역문화진흥법이 발의되면서 시민들의 삶이라고 해서 지역으로 예산이 가는데 예술인보다 생활예술 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올해 문화재단 예산 중의 하나를 보니까 창작지원 부분인데, 어떤 팀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데 예산을 받고 있더라고요. **경북지역의 예술단체에 대한 파악이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작년에 떨어졌을 때 단체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뽑아달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화가 난 거고요.

제가 사회적 기업에 법인이라는 말씀을 붙였던 이유는 실제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집중과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을 때 전문단체 육성을 했잖아요. 예술위원회 예산이 창작기금이 많았잖아요. 그 변별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서 임의단체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문 법인이 별로 효력을 못 할 테니까 사회적 기업이 이슈가 돼서 저희는 따라가서 사회적 기업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게 좌절감을 느꼈다는 게 **전업 연극인으로서 전업을 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는 것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누구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경북의 상태를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무조건 지원보다 단체나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한다. 무조건 공모만 하지 말고 단체들의 의견도 구하고, 현장에서 나름대로 잘하는 팀들의 노하우도 배워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

저는 지금 참석자 명단에 보시면 다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경북문화재단 직원입니다. 신청할 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못 올까 봐 신청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오실 줄 몰랐고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경북지역 예술인들이 간담회나 소통의 자리나 이런 데는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경북의 지원사업은 신규 예술단체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희는 신진 예술인 지원사업이 없는 쪽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 창작지원사업은 지금 예술위원회에서 지역 이관을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으로 봤을 때 이런 분야 창작지원사업이 있어서 단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잘할 수 있는 단체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청년예술인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나이 제한을 할 수 있는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도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지방 이관에 대해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북을 예로 말씀드리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 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금액이 가장 큽니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연합회가 있잖아요. 그쪽하고 광역 재단 연합회가 공동으로 같이 3년 정도라도 유예기간을 가져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

문학 쪽으로 나온 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스토리 콘텐츠로 ***라는 회사를 하고 있고, 생긴 지 석 달 됐네요. 저는 그 이전까지는 일종의 문화예술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일했었고, 여기 와서는 새롭게 노동자에서 회사를 운영해보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겪어 왔던 노동자 입장에서의 말들, 그리고 새롭게 회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겪은 잠깐의 기간 동안 느낀 느낌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동자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하고, 지특, 그 두 사업을 다 했었고 거기서 강사로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아까 문화재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류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원서 신청할 때 어감이 명확한 게 아니라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고 특히나 메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좀 동떨어진, 사이드 지원사업 느낌의 사업은 아예 안에 들어가는 문구가 틀리다거나 약간 비정상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코 사업은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면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지원서를 봤는데 **빌딩에 상주해서 광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외부 작가를 구한다고 되어있는데 안에 워딩 자체가 감독이나 연출자에 대한 것들로 워딩이 돼있는 거예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가 지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감독, 연출자 이렇게 표현돼있으면 뭐가 맞는지 의문이 들고 자꾸 문의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원서 자체**

문구라던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가르쳐 주는 선배가 있어서 이 의미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뭘 써야 된다는 것을 배웠지만 만약 저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뜻을 두고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본다면 '뭘 써야 하는 거지' 생각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완성된 지원사업 예시를 보여주면 못해도 그걸 따라 쓰면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설프게 지원사업 양식 내에서 파란색 문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예시를 줄 수 있다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어감이나 뉘앙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관련해서도 기획자 인건비가 43,000원이었나요. 한시간당? 주강사 6만 얼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의 대부분. 중견 단체라 해도 어떤 단체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있던 곳에서는 그나마 다양한 것들을 해서 단체 운영비를 마련했지만 아닌 단체들도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증액에 관해서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지원사업 초창기부터 분명 말이 나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인건비가,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기는 어떤 기획이 있어서 받았는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주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단체는 문제가 뭐냐면 주강사 인건비를 드리고 나면 이걸 운영하는 단체 입장에서는 대체 뭐가 남느냐는 의문이었고요.** 사실 인건비라고 하지만 지원사업 2,000만 원 주고 너네 생활문화예술 하나 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2,000만 원에서도 단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력뿐이다.
그리고 **수행하는 입장에서 되게 당황했던 부분이 사람을 모집하는 모객이라고 해야겠죠. 모집하는 게 힘들었는데,** 저희는 청소년과 관련된 걸 기획했었어가지고 그 청소년들을 구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들을 뵙고 저희는 문화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이런 문화예술 활동 동아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해서 모인 애들이 열몇 명이었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문화재단에서 학교에 공문 하나, 포스터 하나만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보통 대부분 홍보물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굳이 그 예산 안 써도 되고, 중앙에서 그렇게 처리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돈 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술적 체험을 하게 하는 데에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애쓸 그 시간에 주강사나 기획자들이 더 나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가 느낀 건 이 정도였고요.
문학을 하고 있고 회사를 조그맣게 시작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공이 시입니다. *시로 석사도 받았고, 10년 넘게 시 쓰면서 저는 아직 등단하지는 못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시인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연반인이라고 하죠. 연예인 반, 일반인 반. 약간 그런 느낌. **저 같은 사람이 지원사업을 보고 받아보려면 등단자가 아니어서 항상 막혀요. 문학 쪽에서 청년들이 대부분 포기하는 건 등단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제도 내에서도 기존 문인들이 새로 재등단하기 위해 출품해서

재등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18년인가 19년에 신문사 두 군데서 한 번에 최종심까지 올라갔는데 두 군데 다 재등단하는 분들이 선정돼서 등단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선배 같은 경우에는 희곡을 쓰는 선배인데 ***시인께서 희곡으로 재등단하시면서 떨어졌고요. 이러면 신진 문인은 언제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르코에서 민간에까지 힘을 쓰거나 영향을 발휘하기는 어렵겠지만 좋은 말로 거버넌스라고 하죠. 그런 걸 통해 신진들이 활발하게, 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주 문화재단 같은 경우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사업,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 지원해서 갔는데 다른 분야는 5명, 10명 이렇게 뽑는다면 **문학은 1명 뽑았거든요.** 그건 너무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쪽이 재료비나 예산이 많이 들고, 예산 문제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건 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학계, 미술계. 이런 게 돈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비율이 너무 엉망으로 나오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선배 문인들이 물어봐달라고 한 부분이 문학 관련 지원사업 신청할 때 심사위원분들이 1차에서 자기 아는 사람들 뽑아서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특히 서울이 아닌 이런 지역에서는 그렇게 1차에서 아는 사람을 올려버리면 문학판 이래 봤자 좁아서 관계도가 다 그려지거든요. **공정성, 투명성을 확실하게 확보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새롭게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스토리 콘텐츠를 만드는 거로 시작했는데 아르코에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나 생각을 해서 보니까, 산업이랑은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콘텐츠 진흥원이 그런 걸 맡고 있지만, **예술영역에서의 산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술적 감각으로 회사를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르코에서도 예술 관련해서 회사라든가, 창업하면 아르코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생겨나면 좋지 않을까.**
현재 아르코의 사업들이 현상 유지를 위한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숨 끊어지지 말라고 1년에 한 번씩 지원사업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2,000만 원씩 입에 넣어주고, 실제 예술가분들이 작업을 더 못하게 될 위기에서 그때 죽지 마세요, 살아나세요 하면서 좀 예산 넣어주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르코에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들, 제도들, 토대들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주 핫하죠. NFT라고 하나요. 비트코인 활용해서 미술품들 판매하는 것도 보면 아르코에서 미술뿐만 아니라 그런 미래적인 것들을 좀 더 제시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지역 예술인들도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걸 하려고 해야 하지만 일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서서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권**(대구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예술진흥팀 권**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에 대구에 계시는 예술인들이 참석은 못 했지만, 저희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지난 5월 13일에 간담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6월 1일 날 청년예술가만 별도로 간담회 할 예정이고, 또 9월에는 예술 계획 수립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이 계획돼있습니다. 현장의 의견이니까 먼저 했던 간담회 내용을 전달을 잘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3일 대구 간담회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사업계획과 지원방식 관련해서 그리고 시 관련해서, 또 하나는 고액 사업 위주의 지원 버전 이렇게 나눠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이나 지원방식 관련입니다. 대구에서 예술단체, 예술 현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게 1천만 원 미만의 지원, 공연 분야에 지원되는 규모가 실제적으로는 사업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규모 수준이다. 왜냐면 이 사이클이 2~3번 가면 예술인은 빚을 지는 구조가 된다. **선정 건수를 줄이더라도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올해 유난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선정률이 작년은 43%, 올해는 31% 정도 됐습니다. 선정률을 많이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 문제가 따르고요. 또 하나는 지원사업에 있어서 **장르별 특성을 고려해서 잘 설계를 해달라.** 저희 딴에는 감안을 해서 장르별로 현실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게 예술 현장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후지원에 대한 것, 특히 고액 지원사업에서 사후지원에 대한 걸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이냐면 올해 어떤 사업을 한 걸 현장 평가를 통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 익년도에 어떤 포상 개념이 돼도 좋다. 이렇게 해서 잘하는, 실제 정말 잘하는 단체들이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페이퍼, 서류심사의 한계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요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지방 조례에서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부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내년에 이걸 한 번 해볼까 생각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대구에 한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대구는 예총 산하에 11개 협회들이 있는데 문화재단 생기기 전에는 대구시에서 직접 보조를 받던 것이 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에는 지원사업 범주에 들어가서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심사를 받아서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떨어지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협회들에서의 요구는 **연례사업에 한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달라**입니다. 이건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니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심의 관련입니다. 심의 관련해서는 예술단체나 개인이나 본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좀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년간 심사에 참석했던 위원은 일정 기간이나 일정 부분에 심사위원 풀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생각해달라, 청년예술이나 신규단체 지원은 심의위원에 청년예술가를 반드시 포함을 해달라,** 또 하나는 **심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위해 지역 내의 심의위원을 전체 배제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지역 심사위원 전체 배제는 한 분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 걸 전달 드립니다.
그리고 고액 지원, 단위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최고액 사업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말씀드리기 죄송할 정도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장에서도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끝까지 안 나왔던 이야기만 전달을 드립니다. 대구의 상황을 얘기드리면 서울이나 수도권 제외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도시가 대구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공연장 인프라도 그렇고 예술인 인프라도 그렇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에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의 신청하는 단체도 그렇고 선정되는 단체도 그렇고 특정 장르에 굉장히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게 음악, 그 안에서 클래식 반, 뮤지컬 반 정도로 다른 분야는 선정되지를 않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는 공연장들이 자체, 자부담 예산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공연장에서 상주단체를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티켓이 많이 판매돼서 인기 있는 장르나 공연 단체 위주로 상주단체를 선정하게 되고,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서 자부담 매칭 하고 공간 내주고 하는데 거기에 개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대부분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재단 자체로 보면 예술지원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이나, 근래에는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게는 이게 편의상 7개 분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연극, 문학, 무용,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등 이 지원 분야나 제도의 틀에서는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각지대란 건 분야를 음악으로 넣어도 클래식하고, 선정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대게는 인디밴드나 독립음악 장르, 저희는 비교적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순수예술이 아니고 기초예술의 범주를 어디까지 생각해야 하는지, 여기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는 다른 문제들이 수반이 되거든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사각지대 장르에 대한 것들을 별도로 다른 지역에서는 고민하는 게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도, 나중에 이 전체 간담회 결과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황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예술인 찾기를 바랐듯이 예술인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전화 한 통 해서 문의를 해도, 기침 한 번만 해도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소심한. **어떻게 발굴해서 지원할 것인가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술인이 왜 안 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발굴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원이나 진흥이나 이런 얘기는 이미 다 했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까 문화도시 이야기하셨듯이 지역문화진흥법 발의되면서 문화도시에 예산이 엄청나게 가고 있고, 실제 기초 지자체나 광역에서도 엄청나게 힘을 싣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도시를 이야기할 때 어쨌든 기초예술을 담당하는 예술인들 전결권이 개선되고 그들이 문화의 기본적 토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예술인들 스스로가 지원에 대한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현장소통 소위원회나 예술위원회에서 예술인들의 사회적 역량에 대해 좀 더 독려를 많이 해주시고, 예술인들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한지,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마침 이제 지원할 때 고용보험도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오히려 왜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간다라면. 문화도시에서 컨설팅하거나 진행되는 걸 보면 시민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견인해줄 수 있는 **예술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역량들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서울·경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이 그만큼 열악하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인간 폭격처럼 올해 제가 알기로 문화도시 지정 신청한 기초 지자체가 93군데나 된다고 이야기 들었고 구미에서도 신청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술인들이 어떻게 위치할 것인지를 이야기했을 때, 예술인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라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자유발언이고, 제가 오늘이 아니면 이런 문화예술계에서 중점적으로 큰 역할과 결정하는 분들을 과연 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예술교육에서 보면 회계비용으로 282,000원 지정을 해놓잖아요. 그걸 굳이 단체들한테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명목이 아니었다면 어차피 그 돈 가지고 재단에서 그냥 한 번에 회계사에서 하면 훨씬 빠른 일처리가 될 텐데 굳이 각 단체들에게 다른 회계사에게 맡기게 하는지, 또 회계사마다 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는 단체들이 회계 방법을 회계사에게 맡기는 걸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 회계사랑 회계를 위해서 정리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받으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회계 명목으로 쓸 돈이면 재단에서 한 번에 처리해주시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저의 치기 어린 마음과 과대망상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이 없어져 간다인 거 같아요.** 경북이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점점 사람이 없어지는 1순위, 인구 소멸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알고 있고요. 전남도 그렇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데 시에서는 사람들을 끌어올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없어지면, 결국은 저만해도 안동에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사람이 없어지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도청이나 그리고 예술 관련 유관기관 분들이 지금은 예술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예술가들을 서울에서 끌고 올 수 있는 방안들, 서울에 있는 예술가를 지역에 퍼뜨릴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예술가는 얼마나 있을 것이며 그 분포도로 봤을 때, 전국이 전부 서울이랑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지자체들이. 서울의 인구를 끌어오지 못하면 지역에는, 특히 농촌기반 도시들은 진짜 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람을 끌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술 쪽에서 저희 옛날에 뉴딜정책처럼 엄청 큰 사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모두가 합심해서 할 수 있는 큰 사업들, 뭔가 그런 게 여태까지 있었나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시기고 하니까 모든 다양한 예술인들이 한 번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술프로젝트가 생겨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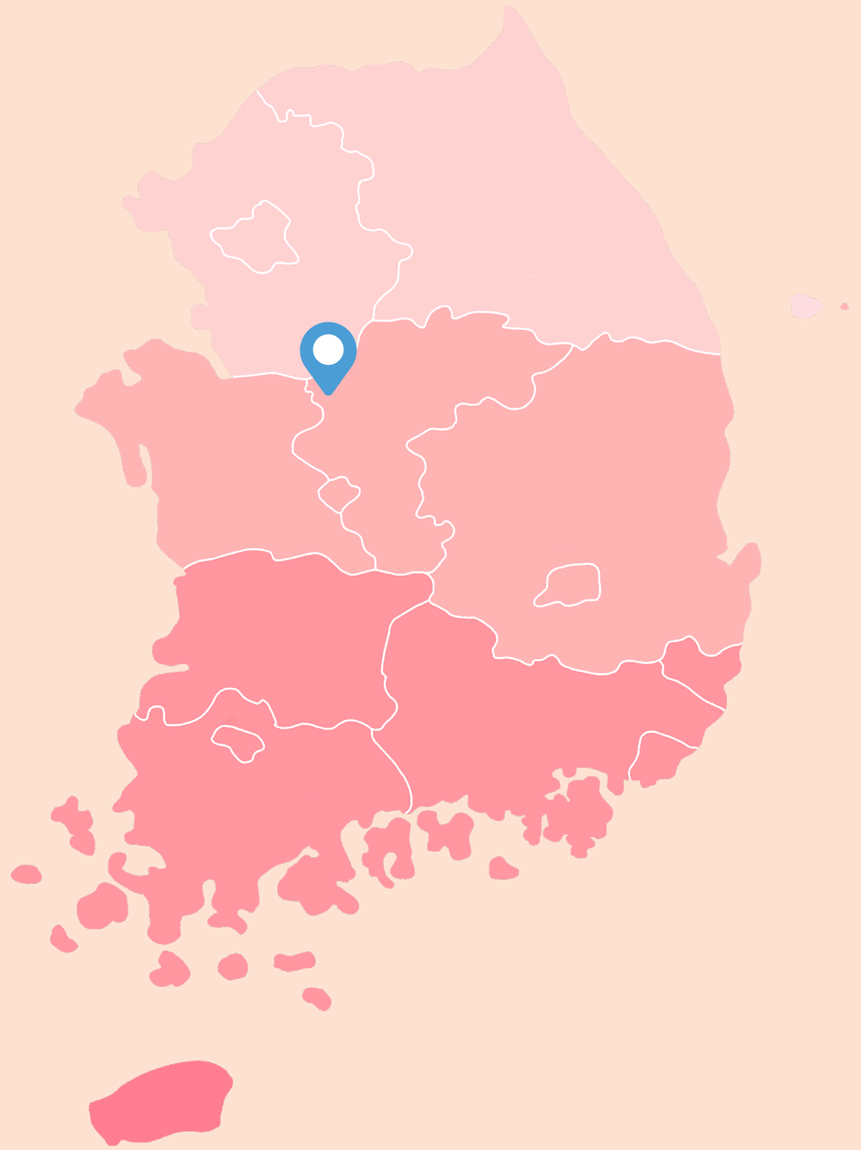
들고. 또, 크로스 오버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하고 싶은데 크로스 오버를 할 작가가 어딨나, 찾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 보니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유명하신 분들은 애초에 만날 수도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르코에서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예술인 풀(Pool)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만해도 손이 딸리면 외주를 맡길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당연히 문학을 배웠고 문학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렇게 찾으니까 안동 지역에서는 못 찾겠고 에둘러 선배, 후배 찾아가게 되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뭔가 예술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예술가랑 문화 하시는 분들을 찾으려 할 때 서로 찾지 못하는 게 크다고 봅니다.

현소위 위원2 지금 예술가분들이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과 비슷한 지점들이 많습니다. 황** 선생님도 상 타신 건 기사로 봤는데 지역에서 공연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양질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지역에서 그걸 하는 건 어떤 실력이 있는 건데 지역재단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예술 공공시장이 활성화돼있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지역 기반으로 문화적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들이랑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작품으로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잘 성장해서 메인 스트림으로 가고, 여길 떠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박**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청년 문학인들이 지역에서 지역을 근거로 해서 작업을 해서 활로를 나갈 수 있게,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청년 문학 작가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등단이라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없애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이 중앙정부의 사업을 모방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역에서 해서** 지역을 떠나는, 특히 청년작가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오랫동안 좋은 양질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꾸준히 메인 스트림을 왔다 갔다 하며 지역을 떠나지 않는 다른 방법들을 오늘 재단에서 많이 나오셨으니까 고민을 해주시면 어떤가 부탁을 드립니다.

현소위 위원3 전통음악에는 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리라는 말은 음악적 사투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전통예술만이 가진 음악적 특성에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올 때마다, 지역에 살고 지역에 활동하는 예술가야말로 *그 지역에 DNA 같은 존재여야 하는데 어느새 지원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예술인들을 대상화하지 말고 지역의 자원으로서, 자산으로 가치를 높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부터도 지역 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2019년부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저희 지역도 작년에 재단이 설립돼서 바쁘게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재단의 경쟁력이 어디 있느냐. 근데 보통 이것들을 자꾸 물질적 기준만으로 판단하시는데 **결국 재단의 경쟁력은 그 지역 예술가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걸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 예술가들의 재단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재단만큼은 행정 중심이 아니라 예술인 친화적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역 예술인들이 비빌 언덕은 재단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버넌스가 조성이 잘 돼서 예술인들이 자생력이 생기고 지역 예술인들끼리 연대가 두터워진다면 그때는 더없이 좋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예술의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술은 그 자체로 사회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 혹은 지역에서는 예술의 공공성만 생각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예술이 진정으로 공공성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예술인의 예술성을 담보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예술가들 실력도 좋아야 하고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야 그 지역이 예술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예술가들을 조금 더 보듬어주고 예술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n.

세종·충북권 — 세종

2021. 5. 26.(수)
세종 위드워크 6층 스카이홀



세종·충북권 간담회는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발하게 진행됐다. 신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한계와 저변 문화의 부재, 그리고 예술인을 위한 제도의 아쉬움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지역 내 예술 활동의 어려움과 더불어 예술인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주제	주요 의견
창작활동의 어려움	○ 지역 내 창작 발현 활동 거점 및 기반의 부재 - 높은 임대료로 인한 창작 공간 마련 어려움 - 전문 예술 창작 여건 마련이 안 됨 ○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 ○ 지역 내 예술 상업의 공급, 소비 미비 - 수요부족에 따른 작품판매 미진, 갤러리 운영 어려움 ○ 순수예술의 창작권 보장 ○ 지역 내 예술인 네트워크 부재
지원사업 및 심의제도 관련	○ 지원사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소액 다건으로 가는 지원사업의 방향성 문제 ○ (신생 단체를 위한 지원 필요) 현 공모사업 내 단체는 3년 경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여 신생 단체가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임 ○ 자부담 사업의 간소화 ○ 지원사업의 연속성 및 지속성
중앙과 지역 간 예술 격차 완화	○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지역문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쟁력 강화 ○ 중앙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 예술단체 소외화 해결 ○ 지역예술생태계 ○ 서울 중심의 창작 지원과 발현 기반 현상, 발현 기반이 부족한 지방의 대안 모색 등 ○ 지역 내 문화예술(창작/향유) 기회 확대 필요
기타	○ 예술의 확장 가능성 ○ 예술인 증명제도의 문제점 ○ 예술인 주거환경 제도 필요 ○ 문화도시 형성에 예술인 의견 반영 ○ 예술인 고용보험에 따른 기회 박탈 문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이하 현소위 위원)

현소위 위원1 반갑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이 오실지도 궁금했고, 세종시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듣고 싶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 자기소개하실 때 본인의 성함과 활동하시는 분야와 함께 세종시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자기 자신에게 세종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걸 꼭 듣고 싶습니다.

박** 박**
저는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피아니스트입니다. 외국에 있다가 5년 전에 귀국하게 됐고요. 고지식하게 연습실에서 피아노만 치다가 십몇 년 만에 고국을 찾았더니 문화재단에서 나오는 지원도 있고, 후원도 있고요. 그전에는 잘 몰라서 지원을 못 하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개인 자격으로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후원을 받게 돼서 독주회도 하고, 후원받은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연주회를 2~3번 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후원을 받게 돼서 하반기에 할 예정이에요. 사실은 세종시에서 클래식을 계속 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커넥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지인을 연결해서 아무래도 대전 쪽으로 연주를 하게 되고, 지난주에도 2개를 하고 왔어요. 그 연주회를 보니까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이 꽉 찼어요. 전 부럽더라고요. **세종예술의전당이 곧 개관할 테지만 아직 그런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당장 기획하고 있는 하반기 리사이클이 타악기와 피아노 앙상블의 조합인데 그걸 데리고 오려면 타악기가 있어서 무대도 커야 하고, 피아노도 한 대 더 들어와야 하는데 무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신생도시, 활기찬 도시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옛날부터의 기득권 세력이 뭔가를 잡고 있지 않고 모두 새롭게 모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다른 예술분야와 함께 콜라보해서 음악회를 열어보는 걸 기획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 제 이름은 구**이고요. 설치미술과 문화예술기획 쪽 활동을 세종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라는 문화예술기업도 세종에 처음 와서 활동하게 되었고, 지역에 있는 청년분들과 **예술조합이라는 단체 일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에 온 지는 3년이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 세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세종의 문화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도시까지는 아직 되지 못하지만, 그 가능성이 보이는 도시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세종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 현대무용가 김**입니다. 저는 세종에 있는 ***컴퍼니 대표를 하고 있고요. 제가 2013년부터 세종시에 살았는데, 그때 당시 다른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도 해보고 쭉 세종시에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2015~2016년까지는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제반 환경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쉬운 건 **공연장이 아직 부족해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자유로운 활동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현대무용을 세종시에 알리는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송** 저는 ***컴퍼니의 기획팀장이고, 현재 현대무용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 단체가 활동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그중에 작년, 재작년부터 문화재단이랑 연계를 많이 해서 예술지원사업들이나 아니면 아르코에서 하는 예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세종시의 여건들이나 이런 게 아직 부족한 상태고요.** 그럼에도 문화재단 직원들과 협력해서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려 하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 시각예술교육기관인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고 동시에 공공예술 비영리단체인 ** 예술조합을 운영 중인 문화기획자 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예술조합은 작년 3월 설립 이래로 문화재단과 아르코 공공미술 연구지원사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세종시 공동체 사업에 참여 중인데요. **세종시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지만 그렇기에 모든 곳이 문화예술 발현지가 될 수 있는 백지 같은 매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작년에 문화예술사업에서 정류장에 전시한다든지 해서 재밌는 일들을 벌일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작가들이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저는 시를 쓰고 있는 박**입니다. 제가 세종에 내려온 건 2016년인데요. 그 뒤로 계속 쭉 지내며 제가 등단한 지는 1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시집 출간을 못 하다 세종에 와서 첫 시집을 2019년에 내고, 작년 세종시 문화재단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 첫째 아이와 동시집을 함께 엮었어요. 동시집을 엮은 게 너무 뿌듯하고 기념 삼고 있는데, 그만큼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종시가 외부인들이 봤을 때 아파트가 많고 삭막할 거로 생각하지만 제가 둘째를 재작년에 출산해서 두 명의 아이를 지금 데리고 있는데 아파트가 밀집돼서 삭막하다는 느낌 속에서도 정서적으로 충족할 수 있었던 것은 담벼락이 없고 아파트마다 조경이 잘 돼있어요. 자연 친화적 환경 속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작년에 출간했던 동시집이 아이와 함께 낙엽을 주우면서 아이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마 제가 세종시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 기른 곳이기 때문에 저는 안온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안녕하십니까. 국악 하고, 피리 연주자입니다. 세종시에 5년째 살고 있고요.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간담회 자리 마련해주셔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의제가 나온 게 잘 반영되고, 실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신생도시고, 정치·사회적으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민주도시의

기치인데 문화적으로는 뒤따라가는 형국이죠. 그래서 도시 인프라나 건설은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고 이제는 내용을, 문화적 소프트웨어를 세우는 시기라고 보고요. 요즘 언론 기사에 세종시 특구, LH 사태다 해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예술인들이 박탈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15번째 하위 개념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예술인들은 굉장히 애를 쓰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잘 살펴주셔서 세종시는 미래 문화도시로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 설계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잘 돼있는 편입니다. 보헤미안 지수라는 것은 그 도시에 예술인들이 많이 사는 지표를 말하는데 수도권이나 인근 대전, 청주에서 훌륭한 예술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정주 환경도 그렇고 **세종시가 예술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실제로 세종시가 특별 도시인만큼 특별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퓨전국악그룹** 김**입니다. 저는 이제 세종시를 주 무대로 해서 충북, 충남, 세종,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 세종시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젊은 도시로 알고 있어요. 인구 연령, 평균 연령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적 욕구가 굉장히 강한 도시**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공연 같은 걸 하면 거의 만석이나 성황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욕구에 비해서 인프라가 덜 발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인프라만 해결되면 좋은 문화도시로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실무와 연주자 맡고 있는 서**이라고 합니다. 저희 **챔버 오케스트라는 2013년에 창단됐어요. 세종시의 시작부터 함께 해왔는데 초창기에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고생을 계속하다가 문화재단에서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해서 재작년부터 전문단체 지원사업이나 지역 특성화 지원사업 같은 걸 거쳐서, 상주단체까지 왔어요. 항상 힘들고 문화시설 열악하고, 예술인들이 활동하기 힘든 도시다 이런 게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단계를 거쳐 오면서 발전하고 있긴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상주단체 하면서 얼마 전에 기획공연도 치렀는데 처음에는 관객도 없었다가 점점 늘었고, 발전되고 있는 거로 생각해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폭넓게 생기면 예술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유** **챔버 오케스트라 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 저희들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의 65명 정도가 돼요. 이 친구들이 다 젊고 유능한 친구들이고 세종시에 살면서 있는 친구들이 반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연주할 곳이 없다** 보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상주단체를 해서 많이 도움이 됐죠. 근데 사람이 많고 저희는 **매주 연습을 하다 보니 수고비를 못 줘요.** 연주할 때 수고비를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젊은 연주자들에게 미안한 감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오케스트라이고, 많은 인원이다 보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안녕하세요, **아트컴퍼니 예술감독 이**입니다. 세종 하면 특별시잖아요. 저도 대전에서 활동하고 아르코에서 지원사업 받으면서 9년 동안 활동했는데, 좀 젊은 도시고 특별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세종으로 왔어요. 창단된 지는 9년 정도 됐는데 저희같이 오래된 단체들은 지원사업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젊고 신진예술가들은 여기 내려와서 정착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술에 있어서는 다른 도시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걸 느꼈어요.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실력 있는 **예술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하는데 단기적으로 끝나고 일시적으로 끝나고 말아 버리니까.** 자생하지도 못하고, 계속 다른 걸 시도하고 이런 시스템이 반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축해주셨으면 좋겠고, 젊고 실력 있는 서울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세종이라는 도시에 와서 정착하고 문화브랜드도 구축하고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예술은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문** 우선 **세종시는 미술관이 굉장히 부족하고 심지어 시립미술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공연장이 새로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안에 미술관이 없는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가분들의 발현 장소가 부족한 상황이고 지원사업이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전시하는 게 아니면 전시나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제가 뭔가 만들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닌 '나는 시각예술가로 자리를 잡고 싶다' 한다면 사실 지역에 남아있을 용기가 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는 기획자로 저희가 보조금 지원받아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좋은 공간일 수도 있지만, **제도적인 틀 안에서 예술가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발판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지역 내에서 예술 상업 활동 콘텐츠가 진짜 부족한 상황이에요. 시각예술뿐만이 아니라 공연예술도 이게 판매가 되는 게 거의 없고 유료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예술 콘텐츠로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소비도 없고 공급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지만, 개인의 입장으로 고민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소위 위원2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역에 민간 갤러리들도 부족한 상황인지, 만약 그렇다면 민간 갤러리를 개발하고 만드는 것에 대한 사업들을 좀 더 고려해보고 그런 정책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전주인데요. 전주는 너무 낡고 노후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중심의, 쓰러져 가는 건물로 들어가는 예술가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세종에 와서는 그런 느낌은 받기 어려웠거든요. 뭔가 공간이 만들어져야지만 시작될 수 있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의 결이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전주는 무너져 가는 곳을 다시 재생하는 것으로 간다면 여긴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사업이 필요한가,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문** 제가 이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 갤러리라고 하면 민간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트센터 한 군데랑 제가 알고 있는 민간 갤러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종시 전역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갤러리 공간은 세 곳 정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 제외하고요.
좀 충격적일 정도로 개수가 없고, 그게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작품판매라는 것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갤러리 운영이 어렵고요. 그중에서 민간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트센터가 있는데 그 공간은 대관료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보다 대관료가 비싼 상황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요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공간이 생겨야 하는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공급이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여기가 아무래도 공무원 도시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지 않나. 이런 수요를 늘리리 위해서 저희가 지금은 이런 문화예술이 얼마나 지역에 필요한지,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지 우선은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작정 갤러리를 늘려달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 인구 37만, 신도시 27만, 원도시 10만. 자생적 기능이 작용이 안 되겠죠. 아직 도시의 세력이 더 확장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상가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천정부지로 치솟은, **높은 임대료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이 정주하기가 어렵고요.** 일반 업자들도 소극장을 하나 운영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니까. 수요가 아직 형성이 안 된 이유도 있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보면 LH공사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LH가 세종시 때문에 돈 많이 벌었거든요. 과감하게 상가 공실을 예술단체에게 100개 정도, 실비로 전기세와 20~30만 원 관리비만 받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연습실, 갤러리, 창작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런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여기는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생계형이 아닌 일반 취미형은 가능하겠지만 **전문 예술 창작을 하기에는 실제로 그런 여건이 아니다.**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유** 조** 선생님 이야기에 진짜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는 오케스트라고 인원이 많다 보니 **연습 장소가 없어서 청주까지 가서 연습했어요.** 60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올해는 세종에서 어떻게든 하려고 생각해서, 저희가 별도로 얻어서 월세를 내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연습 장소가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장소가 커야 하잖아요. 큰 걸 얻으려고 하니까 진짜 세종시에서는 돈을 주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박** 시만큼 공간이 구애받지 않는 창작활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시 창작활동은 굉장히 개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는 고민하는 부분이 다를 것 같은데, 문학은 어떤 출간물로 성취나 성과를 이뤄내는데 사실 요즘 시를 읽으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시를 창작하는 사람으로서는 시 출간물에서 완성도를 이루기는 하지만 거기에 머물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쉽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시집이나 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문화예술의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시와 함께 노래가 결합해서 시 노래로 문화예술로서 대중에게 다가가거나, 어쨌든 시집 자체로는 문화예술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소위 위원2 박** 선생님 제안해주신 고민에 대해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극을 하면서 시 낭독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예술가 동료로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고민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상상해봤는데요. 저의 경험에서는 네트워크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야의 예술인을 만나고 대화하는 작업이 창작물을 콜라보할 수 있는 시작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현대무용, 시각예술 선생님도 계시니까 이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첫 단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단순히 네트워크로 머물지 않으려면 사실 어떤 사업들이 붙어줘야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소규모 무정산 사업이라도, 이들이 계속 네트워킹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이 붙어줘야 하는 건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소규모 200만 원짜리 무정산 사업 같은 경우가 네트워킹하기 좋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 말고도 기획사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술인 복지재단의 경우 그런 기획사업들이 있으니까 타 장르와 혼합해서 기관과 같이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보고 그것을 기획해보는 사업들에 도전해보시고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현소위 위원3 아까 문**선생님 이야기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지역의 갤러리 공간, 갤러리라고 하면 상업공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상업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야기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다만 비영리 공간은 수요가 있다면 지역에서 의지가 있는 예술인들이 뭉쳐서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위원회 사업에서 시각예술 창작산실 들어가 보시면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원래는 10억 정도 규모였다가 올해는 조금 늘어서 13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개선한 부분 하나 얘기를 드리면, 신생형은 1년 이상 운영 실적만 가지고 있는 비영리 전시공간이면 사업 참여 대상이 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사업의 선정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청하는 주체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올해 사업이 개편돼서 새로운 부분이 생겼으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민간 전시공간 운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소위 위원1 감사드립니다. 창작활동의 어려움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제가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깨달았던 것 중 하나는 **지역에 맞는 대안이 나오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까지 재단이나 기관에 의존하는 형태가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술인들의 연대를 통해서 목소리가 나오는 일이 더 많아져야 하겠구나 하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구** 감사하게도 개인으로 지특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받아 세종에서 연주회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바로크 음악 하고 싶어서 조그만 챔버 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연하고 싶은데 그 예산을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고요. 그 장르가 프로그램을 제가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한계점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똑같은 의견을 문화재단 회의가 있을 때 냈는데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들었는데, 나중에 여쭤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 **문화재단의 예산을 받아서 음악회를 하게 되면 주최·주관이 개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고유번호증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실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세종에서 연주회를 서너 번쯤, 꽤 많이 했는데도 단체를 위한 실적으로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세종에서 연주해야만 실적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는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3년이 되지 않더라고 그 턱을 넘을 수 있도록 신생 단체를 위한 자격을 낮춰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히려 신생 단체에게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 박**선생님 이야기하신 것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생 단체인데 실적을 본다는 게 아이러니지 않나.** 재단 같은 경우 신진예술가라고 따로 만든 사업이 있기도 한데 그것도 따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주회라던가 개인 공연 이력을 보는 게 있어서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원사업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일단 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중 하나였던 아트 체인지업 사업에 지원하면서 느꼈던 게 지방에 있는 문화재단의 경우 공모 사업할 때 자부담 항목을 거의 다 없앴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직 아트 체인지업 사업에는 자부담 10%가 들어가 있는 게 지방과 중앙의 엇박자이지 않나.** 물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자비를 투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굳이 공론화를 해서 증빙까지 받는 게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직도 자부담이 있을지 몰랐고, 그래서 이런 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없애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창작활동 중 하나라고 제가 실무를 보는 입장에선 되게 번거롭거든요. 자비가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진짜 어떨 때는 굳이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 **재단에서는 간소화를 하는 추세인데 중앙에서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법적으로 예술위원회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자부담률에 대해 가급적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사업에 자부담률을

거의 없앴어요. 다만 기획재정부나 중앙부처에서 선정하는 일반회계 사업, 예를 들면 아트 체인지업, 온라인 지원사업은 국가 일반회계로 기재부, 문체부를 통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시국에 자부담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 **순수예술의 창작권 보장, 지금 정책 기조가 자꾸 예술의 민주화, 생활예술 활성화, 소액 다건 그러다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액수가 적어지잖아요.** 적어지고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제도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 예술의 창작권이 위축되고, 중간에 포기하고 버텨낼 재간이 없죠. 그렇다고 환경이나 이런 게 잘 형성이 돼 있으면 모르는데, 생태계 조성도 안되어 있지. 아시다시피 **예술인 증명제도는 생활 예술인들이 더 많이 해요.** 사이버 대학 스펙 따고 돈 있으니까, 연금 있고 하니까. 조건을 갖춰놓고 전시, 개인발표 더 많이 해요. 변별력을 어떻게 가져가고 구분하는가. 그래서 충북인가 어디서는 생활예술과 전문 예술을 분리하는 것 같기도 한데 경계지점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생활예술은 기초 저변 확대 차원에서 많이 있을수록 더 튼튼해지고 전문예술인들에게는 좋죠. 그런데 **전문예술인들의 창작 방향은 자꾸 위축되고 그래서 이건 정책을 바꿔야 된다. 투 트랙으로 정확히 가져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큰일 났어요. 세종은 시민들의 문화 수준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환경이나 제도는 떨어지고 있다. 세종시뿐만 아니겠지만, 그리고 청년이 가장 심각하죠. 중년과 노년도 심각합니다.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중년들이에요. 애들 학비 들어가지, 가족 부양해야지.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어렵긴 하지만 그런 매뉴얼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문화를 좀 눈여겨봐 달라는 겁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각 지역에서 얼마나 제도에 맞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뭔가 새로운 미래나 신도심 쪽으로만 주제를 쥐어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시의 역사나 문화나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소재로 해서 창작품도 나오고 융복합해서 나오는 그런 지원제도가 필요하죠. 뭐라고 할까, 문화예술 조직 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해요. 예술인들한테 스스로 만들어보라고, 네트워킹하라고 하면 각자 성향이 강해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지원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실질적인 문화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현소위 위원1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에 서울문화재단하고 공동 기획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형 청년예술단 사업이라는 것이었는데 서울시 25개 지역구 중에서 15개 지역구를 선정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건데요. 그 안에 작은 공모사업을 또 하나 기획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지역을 위한 활동 외에 전년도 활동했던 예술가 중에 금년도에 선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소액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게 설령 다른 재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도요.

코로나 때문에 완성을 못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게 자부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실 활동을 하다 보면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시상금의 형태로 정산도 하지 않고 용처를 활동에 대해서 묻지 않는, 이 사업이 꼭 서울문화재단 사업으로만 써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선정된 분들의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 사업 진행시기가 공모사업이 나오지 않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자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을 데가 없는 거였는데 적은 금액이었지만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다. 그 경험이 깊이 박혀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액수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지 않나.

현소위 위원2 저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고, 연극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2006년부터 활동을 했어요. 전주 토박이고 전주에서 나고 자라고, 내가 계속 이곳에 살겠거니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매일 고민을 해요. 여기 아까 어떤 선생님들이 기득권이 아직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내가 기득권과의 알 수 없는 신경전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또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그런 지점에서는 어려움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께서 공통 의견 주셨던 게 인프라 부족인데 저와 같은 예술인이 세종에 자리 잡고 살겠다고 하면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제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세종에 들어오면서 아파트 값을 살짝 검색해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고, 여기로 이사 오는 건 엄두를 낼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어느 지역이든 **예술인들의 주거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술인 레지던시나 예술인 주거복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북 전주는 예술인이 타지에서 혹은 전주에서도 자기의 공간을 갖고 살 수 있는 복지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복지 중에서도 주거복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예술인들께서 소개해주시거나 알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유**(세종시문화재단) 저도 2017년에 세종시에 왔는데 여기 계신 예술인 분들 중에 집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안타까워요. 아파트 값이라든지, 그게 지금 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매우 안타깝고요. 재단 차원은 아니고 시 차원에서도 예술인 마을 조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예술인들이 좀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주거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언론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만, 세종시의 분양과 관련한 문제들은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소위 위원1 저희 동네에도 그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어요. 행복주택이라고 아파트를 짓는데 그중에 한 동을 예술인들이 머물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동보다 높이가 낮고, 주거 공간이 있는데 현관문을 따로 둬서 작업공간을 둔 채로 분양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청년예술인만 따로 모집을 해 가지고 보증금이나 월세도 일반분양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서 예술인들이 거기에 들어갔고요. 저는 사실 늦게 알아서

못 들어갔는데 입주한 동료가 있어 놀러 가 봤더니 너무 쾌적하게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술지원제도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역량 있는 예술가들이 늘어나게 하려면 주거 환경이나 창작 공간, 이런 하드웨어적 부분도 함께 해결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김** 세 번째 내용에 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준비까지 해왔는데요. 일례를 하나 들면 예술위원회 사업은 아닌데 어제 발표가 났던 공연예술인력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시급한, 존폐가 걱정되는 예술단체들에게 5개월 동안 인력을 지원해주는 단비 같은 사업인데요. 전국 260개 단체가 선정됐고, 전통예술만 말씀드릴게요. 581명이 수혜를 보게 되는데 세종은 단 한 팀도 없어요. 선정된 260개 단체, 전통예술팀 중에 세종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중앙의 좋은 사업이 있다는 걸, 세종에서는 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게 아까도 ***위원님이 지원자 수가 없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왜 없는지 생각하면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세종시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많이 볼 텐데, 거기서도 정보를 알 수 없고 하니까. 그렇다고 진입장벽이 높았던 건 아니거든요.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거랑 또 비슷하게 저희도 매년 해비치를 가는데,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하는 방방곡곡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네 지역단체가 선정되면 예술회관에서 불러주고, 최소한의 안전, 최소한의 보험이 있었는데 세종은 그것도 없고,** 그런 세종문화예술회관의 소극적 자세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술위원회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세종의 재단이나 예술인들이 알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면 안 되는 건가. 저야 공모사업을 10~20개 하기 때문에 찾아서 보는데 예술위원회에서 홍보가 덜된 건가, 오만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충북 청춘 마이크를 권역으로 묶어서 충북문화재단에서 진행했거든요. 세종시 문화재단에서는 그 정보를 하나도 알 수 없었고, 세종에 사는 예술가인데 충북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하는 경우처럼 같은 권역으로 묶이면 그런 정보라도 알아야 젊은 예술인들이 진출하고 하는데 서로 막혀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성토하는 자리는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구**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계속 활동을 해오다가 결혼을 하고 이 지역에 왔을 때, 서울에서 활동하면서도 다른 지역을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나는 이 문화를 즐기고 여기서 평생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소멸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1년간 주변 재단에 문의도 해보고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좋으신 분들과 단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있을 때는 서울로 떠나서 둘러보고 해소가 되면 다시 지역으로 오는데요.** 세종은 아직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게 세종만의 문제라기보다 인구도 워낙 다를 것이고 저는 세종 신도심보다 구도심에서 매력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대부분 신도심, 구도심 격차가 크다는 걸 알고 있고, **경제적 측면, 인구 비율, 문화적인**

것마저도 자본에 이끌려 격차가 있다 보니까 구도심에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들과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을 텐데 왜 나가지 못할까라는 고민도 됐었고요.
앞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여기 살고는 있는데, 집은 없어요. 서울에서 사실 쫓겨나서 지역에서는 살만하겠다 했는데, 서울에서도 집이 없었고 여기서도 집이 없는데 청약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1~2년 사이에 너무 올라서. 집에 대한 부재가 작업에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집에 대한 소외감, 내가 집이 없다는 느낌이 작업을 할 때도 뭔가 한계치가 있고, 내가 이 지역에 머무는 사람인가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다면 어디 지역으로 가야 하지? 사실 저뿐만 아니라 세종에 오신 여러 작가님들이 계세요. 단순히 세종이 좋을 것 같아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 다시 서울로 가야 할까 고민하시고, 솔직히 말하면 가시는 게 맞다고 이야기드렸어요. 값이 너무 비싸지고, 공실 상가도 많지만 작업실을 구하기에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종에 특화된 확실한 제도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소위 위원1 공간 이야기를 하면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연습실을 운영하다 보증금 까먹고 결국 빼고, 요새도 집에 있어요.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없을 때 조금씩 작업하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는 가야금을 하거든요. 저희 동네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실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서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사람도 없는데 낮에 두어 시간 연습실로 쓰겠다고 하면 어떨까. 왜냐면 1층에다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오가는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무인이니까. 그리고 공간이 꽤 넓어요. 심지어 뒤에 창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도 버젓이 자기 자리를 찾고 있는데 *왜 예술가의 공간에는 인색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창작을 할 때도 의욕이 있어야 하는데, 공간 때문에 의욕이 저하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다니고 있는데 너무 공감이 됩니다.

김** 세종시가 9년 정도 됐잖아요. 일단 지역적인 특색과 예술성을 띠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 도시에 모여서 예술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해나가면서 지역적인 특색을 띨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한 게 작년에 신진예술가로 선정이 돼서 단기적 지원형식이었지만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게 많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단체들에게도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그중에 좋은 작품을 뽑아서 재단 측에서 서로 연결해주시면 다른 장르와 소통할 수 있는 창이 될 수도 있고, 예술가들이 협업하는 인프라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또 작년에 세종시 대표로 무용제를 참가를 하게 됐는데, 지역에서 예선이 치러질 때 사실 야외에서 예선 경연을 치르는 단체는 세종시 밖에 없거든요. 지금 4회 차가 되어 가는데 예선이 치러지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다 보니 야외에서 이런 경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타도시들에 비해서 지원금이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무용제에 참가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단체가 저희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해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소위 위원1 이제는 도시를 계획하거나 환경 조성을 할 때, 예술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언뜻 듣는데, 요새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니까 문화도시 기획하는 데서 의견을 낼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무조건 가겠다고 했죠. 거기서도 **문화도시 기획할 때 문화의 주체가 되는 예술가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 예술인이라는 말이 중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소하지만 저는 용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생활예술인을 동호인이나 아마추어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는 지역 예술인은 지역에 사는 예술인인 줄 알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지역 예술인을 생활예술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의원께서 저희 지역에 **지역 예술인을 위한 문화공간이 생겼다고 광고를 하셨는데 제가 직접 찾아 들어가 보니까 생활예술인을 위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이 공간에서 지역에 살고 있는 전문예술인을 위한 고려는 했느냐 연락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처음부터 예술인을 고려해서 계획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해결하려고 기를 쓰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종시가 신도시고 이사 온 지 1~3년 차, 제가 5년인데 그 정도만 돼도 원로예요. 이사 온 사람끼리도 모르고 예술가끼리도 모르고 원도심, 구도심, 지역의 역사 문화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이 아직 형성이 안됐다** 생각하고, 이후에 돼야할 것 같아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역사가 살아있어서 공동체가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서 향유권 신장을 시키려고 중앙의 높은 문화예술을 쏟아 붓잖아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쟁력을 갖춘 그런 것이 자꾸 밀려난다면 전체적으로 그건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원도심에 근대문화 유휴시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세종시를 거쳐 가는 간이역이 8개나 있습니다. 그 8개가 다 관리가 안 돼서 거미줄 쳐있어요. 철도청이나 이런 게 복잡하고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지자체가 충분히 신경 쓰면 이런 걸 예술인들한테 문학, 연극, 시각 예술하는 사람들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로 재생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문화가 약해요. 그래서 외부 업체를 자꾸 선정해서 지역의 주민과 커뮤니티와 소통도 안 하고 다른 데서 성공한 사례를 여기서 적용하면 되는 것처럼, 매번 실패의 연속이거든요. **문화정원이나 한림 제지나 그런 공간을 찾으면 많아요. 예술인들에게 그런 걸 줘라.**
그리고 예술인들도 반성해야 할 게 지역을 너무 안 돌아봐요. 다른 데로 여행 가고 관심을 갖는데 지역에도 생각보다 문화예술 유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고, 마을 예술창작소 같은 것도 정책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공동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게, 도심이

경제적 격차가 있다고 했는데 시골도 다 땅부자예요. 하루아침에 졸부가 돼서 땅값이 올라가니까 가정이 파탄이 돼요. 분란이 생기더라고요. 거기 가면 시골이 우울합니다. *이걸 치유하는데 문화예술만큼 강력한 대안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이 가서 주요 거점마다 연극인, 칠곡 연극인 학교가 유명하잖아요. 또 문학이라든지 융합해서 세종은 그런 게 제도적으로 필요하고 분명히 있다, 그런데 알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생각하는 게 **신도심에 집중해서 초점을 거기다 두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놀러 갈 게 아니라 근처 포도농장 놀러 가서 가족들이랑 캠핑하고 포도 와인도 만들어보고, 어디 감자 농장 가서 농장 체험도 하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런 게 안 돼있어요. 이런 특수한 신생도시의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별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지원정책이나, 여길 별도로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소위 위원3 조**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홈페이지 미리 보고 왔는데 세종시 문화재단 지원사업들 중에 세종 특화지원이라고 세종시 문화자원 활용한 창작활동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으로는 선생님 말씀하신 걸 풀어낼 여지가 없나요.

조** 지원 항목 해당분야가 있는 거 맞습니다. 지역문화 특화라든지 지원 항목이 있는데, 전체 문화예술, 문화재단이 운용하는 예산은 늘었어요. 늘었는데 **거기에 많은 부분이 건축비이고 예술의 전당이나 어디나 실질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부끄럽지만 오히려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예산이 증액됐네 했는데 피부에 와 닿는 건 그런 게 숨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 같은 경우 계속 확장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런 데가 더 희생을 당하죠. 그래서 이건 단발성 해당 연도 지원사업으로 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5년, 그 이상을 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그 마을에 연계형 예술가가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직접 자치단체, 지방비 들여서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예술자원을 1년 동안 답사하고, 자료조사, 채록하고 워크숍하고 3~4년 뒤에야 실험 보완해서 만드는 건데 **1년 차에 선정돼서 하고 그 다음연도에 떨어지면 안 하거든요. 연속성이 안 되고 지역문화 자원에 깊게 파고 들어가서 녹아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무늬만, 형식만 갖춘 것 같아요. 별 돈도 안 되고 그런 거 같아요.

현소위 위원1 제가 의견을 하나 놓쳤어요. 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로 예술창작지원금에 배제된 대학교 시간강사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시간 강사들은 방학 때는 월급도 없고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들인데, 고용보험 가입됐다는 이유만으로 시간강사들이 창작지원금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모두의 의료보험도 해결해주세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저도 공감되는 것 중 하나가 서울에 있는 작은 전문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 한 명 수업하려고 나가요. 한 달에 수업료가 10만 원 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놓은 거예요. 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도 절차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세무사분이 보고 이거 왜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김** 재단에서 지원 사업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하나가 상주단체 육성지원인데 저희 팀은 드물게 전통예술에서 4년째 연임하고 있는 팀이에요.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게 국비랑 지방비 5:5 비율의 사업인데 내년에는 국비가 없어진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상주단체 사업에 관해서 민심이 흉흉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국비가 없어지면 지방비로만 과연 보전이 될까. 재단에서는 사업이 없어진다고 보는데도 있고요.** 저희가 4년을 해봐도 부족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연속 기획성의 사업이 크거든요,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당장 내년을 기약을 못 하면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술위원회 매년 상주단체 이양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꿋꿋이 왔거든요. 올해도 문화강국이다, 지역문화 예술을 확충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관련 부서에서 얼마 전에 지역재단 관계자들 모시고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현황 공유하는 회의를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일단 지역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담당자가 아마 계속 지역재단 담당자분들에게 과정 공유를 할 것이고, 정해지면 말씀을 드릴 거라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 저희도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규모가 있다 보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올해 상주단체가 되고 나서 그전에 지원받은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사업인 건 부정할 수 없거든요. *저희 단체 규모에서 봤을 때는 정말 단비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고, 지역 이관된다는 이슈를 들었을 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거든요.* 이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게 지금 세종시는 굉장히 부족해요. 안 그래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시는데, **상주단체마저 자립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저희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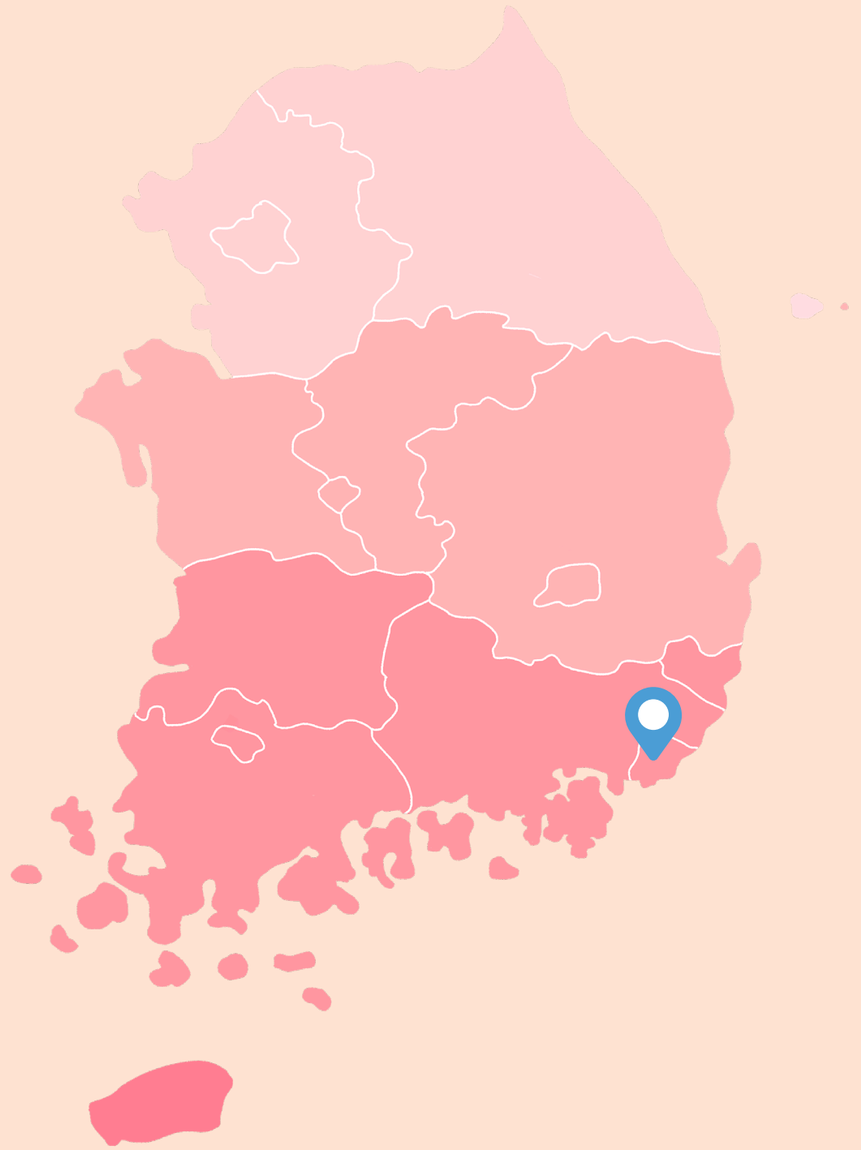
현소위 위원3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저희가 지역간담회 갈 때마다 상주단체가 화두였어요. 물론 예술위원회도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채널 안에서 이 사업이 이관되든 안 되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저는 상주단체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갖고 있는 예산 부족 문제, 인프라 부족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예술가들이 협상 테이블에 직접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협상 테이블을 재단이든 시에서든 만들어야 한다고, 예술인들이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역간담회 할 때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기초, 광역, 중앙 단위의 민간 거버넌스를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 였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없이 와해되어 있고, 사업을 따냐 안 따냐 예산이 충분하냐 이 이야기밖에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술가들이 위에 휘둘리게 되고 수동적인 것만 남게 되거든요.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스스로 요구해야 하지 않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소위 위원1 저도 지역에 관심 갖게 된 계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처음 지역사업을 시작하고, 간담회가 열려서 참여하는 예술가들과 재단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그 사업의 내용이 재밌는데 6개월의 시간 동안 한 달에 7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재단에서 예술활동 프로젝트 비용을 운용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담당자에게 왜 70만 원 책정을 했느냐고 질문을 하는 거죠. 돌아오는 대답이 딱딱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프리랜서 청년 예술가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면서 70만 원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70만 원 주고 편의점 아르바이트할 시간에 예술활동을 해보자는 취지로 기획했다고 하니까 예술가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공감됐던 이유가 알려고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태도의 문제인 거 같아요. **예술가들은 지원해주는 지원 주체가 자기들을 지원받는 대상으로 대상화시켜서 취급하는지 아니면 동반자로 헤아려주는지를 예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해에 사업이 굉장히 잘 됐던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해를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술가들이 그 사업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어요. 그다음 해에 확장되나 싶었더니 코로나 때문에 삭감되고, 지금 이 예산으로는 없어졌고 다른 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이 됐지만 저는 그걸 통해서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의사를 전달하는 협의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역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생기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술가들은 그 지역에서 예술가의 역할, 존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원하는 재단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재단의 존재가치를 이제는 어떻게 재설정할지,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 낼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할 텐데 이런 기회가 많이 없었던 거죠. 이 간담회 통해서 그런 계기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예술 활동을 할 때, 좀 덜 힘들게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이 지역간담회 다닐 때마다 걱정되고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fin.

부산·울산·경남권 — 부산

2021. 6. 2.(수)
부산 한성1918 청자홀



부산·울산·경남권 간담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고, 솔직하고 논쟁적인 이슈, 확고한 주장 등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수도권과의 차별에 민감했고 부산 지역 예술에 대한 애정도 강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예술적 열정과 의지를 응원하고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들었다.

주제	주요 의견
지역 창작활동의 어려움	○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지원 및 혜택 증대 ○ 수도권 중심의 가치판단, 기준 및 인프라 형성 ○ 지역 내 예술적,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지원 - 기획, 행정, 문화 관련 청년 커리큘럼, 무대공연 예술가를 위한 워크숍 등 수도권 위주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실정. 공간, 시간적 문제로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앙기관에서도 지역적 안배와 활발한 교육 진행 필요 ○ 각 기관과 단체 담당자들의 기능적 소통 부재
지원사업 및 심의제도 관련	○ 지나친 행정 중심적 형식과 규칙 개선 및 정산의 간소화 ○ 수도권과 비교해 소규모 사업이 다수 ○ 기초예술 분야임에도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장르 - 예) 시각예술 영화(회화나 미술 위주로 지원) ○ 심의 시 정치적인 내용 포함 여부에 따른 심의 결정 여부 ○ (공공미술프로젝트) 졸속 시행에 따른 공공미술의 왜곡 ○ 새로움보다 여전함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심의제도
기타	○ 지역에서의 예술 경험 및 교육의 기회 부족 ○ 일관성 있는 예술정책과 다년 지원 정책 필요 ○ 발달 장애인 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과 활동영역의 확대 필요 - 장애인예술지원 사업을 위한 당사자 의견 반영,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 - 지원사업 내 장애 예술인 쿼터제, 장애 예술인 대상 지원기준 완화 ○ 문화예술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 프로세스 구축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이하 현소위 위원)

현소위 위원1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혹은 사전에 의견 주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강할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김**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시각예술 영역의 기획자,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면서 작가분들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을 운반하고 판매하고, 전시도 하는 일종의 비서 역할까지 합니다. 제가 첫 발언을 하는 것도 떨리기는 하지만 다음 차례 말씀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하시도록 마구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서울과 외국에서 공부하다 고향에 돌아와 활동한 것도 10년이 넘었거든요. 결론은 내가 졌다,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공부했던 것, 경험했던 것을 풀어내면 지역에서 충분히 할만하다는 막연한 자신감, 마치 불모지에서 보석을 캐내듯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결과 느낀 소회는 내가 졌구나, 안되는구나 하는 절망감입니다. 그런 요인을 살펴봤을 때, 왜 그럴까. 지방은 거의 몰살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서울에서도 공부를 해봤지만 **모든 것이 서울·경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역사적, 생산적 가치판단이 그 기준에 맞춰져 있어 저희 스스로도 저희를 보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기획자는 위축되어서 스스로의 평가에 박하다. 그리고 내가 보는 나, 내가 보는 지역 예술가에 대한 평가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10년 동안 겪으면서도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고, *예술을 왜 하겠습니까. 밥을 왜 먹습니까 와 같은 답이죠.*

예술위원회에서 나오셨고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하소연을 하자면 행정이 현실에 미치지 못합니다. 좀 더 면밀하고 디테일한 행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 우리가 밥은 굶어도 예술은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버리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은 부분을 꼭 부여잡고 하고 있는 건데, **행정 서비스는 좀 잔인하다 싶을 정도의 형식과 규칙들 그리고 불신에 기반하여 예술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주 작가, 보조 작가를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주 작가, 보조 작가라고 할 것이냐. 이 행정 용어가 제일 싫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행정에서 처리하기 위한 편의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예술가들에게 레벨과 급을 구분 짓고 나눠서 행정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죠.** 직접적으로 창작을 하지 않지만 제 주변에도 목숨을 내걸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밥은 굶어도 물감은 최고로 좋은 물감, 악기는 최고 좋은 걸 써야 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중요하고, 행정의 디테일하고 면밀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문화로 도시를 재생하는 주식회사*** 윤**입니다. 원래 서울에 거주하다 2년 전에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술인으로서 가장 힘든 점이 뭘까라고 하면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꽤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신청하는 과정에서 안내라든지 이런 게 소수 인원에게만 미치는 것 같고요.** 지원사업의 규모도 너무 작은 것 같아요. 1인 예술인으로 활동하다 문화예술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사업의 규모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아르코나 서울 지역의 지원은 예산 단위가 큰 편이고 다양한데, 부산은 작게 나눠져 지원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김** 전문 연주단체 대표이면서 음악가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게 1인 예술가일 때는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단체를 꾸려서 규모를 키워가고 사업의 사이즈도 조금씩 커지면서 활동이 된다는 단체가 되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공감하시는 게 제일 싫은 단어가 정산일 것 같아요. 이게 첫해에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떠맡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모든 예술가가 이렇게 회계사가 돼야 하고, 세무 전문가가 돼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이걸 못하면 도태돼야 하는 건가. 사업을 유지하고 팀원들과 꾸준히 활동하려면,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 외부적 활동을 위해 밤을 새워 제출해도 보완 메일이 맨날 오죠. 물론 지원 안 해주면 그만인 거라서 감사히 받아요. 하지만 저희 정체성은 기획자이거나 아니면 예술가 베이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계나 세무를 너무 강요받는 것 같아서 불쾌할 때가 있어요.** 정말 사소한 건데 도와주시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각 팀마다 회계사, 세무사 있지 않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고려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작은 단체들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 없이 끼어들 수 있고 그로 인해 창작성, 기획성을 제한받지 않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 시각예술 쪽에서 다양한 기획과 전위예술 관련 문화 기획하는 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회계 관련해서 쓰고 간담회 신청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었는데 2000년도 초반에 천만 원 이하 사업은 정산을 하지 않는 제도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가 사업 신청을 했는데 1,05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정산하라고. 그래서 50만 원 반납하고 정산 안 하면 안 되냐고 농담 삼아 말했는데, **금액에 따라 정산의 강도가 달랐으면 좋겠어요.** 300만 원을 하나, 5,000만 원 수준을 하나, 1억을 하나 정산 강도가 똑같아요. 300만 원 사업은 좀 유연하게 한다든지, 예전에 했던 것처럼 1,000만 원 이하는 결과보고서만 쓰면 된다든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300만 원짜리 사업도 해봤고, 7~8억짜리 사업도 해봤는데, 오히려 7억, 8억짜리 사업이 더 쉬워요. 업체에 5000만 원, 입찰하는 업체에 600만 원이면 서류를 다 정리해서 오니까 오히려 300만 원, 500만 원 사업이 더 까다롭고 많은 걸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액에 따른 정산의 강도가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 저는 음악 분야고요. 첼리스트 김**입니다. 어떤 분의 권유로 참석했는데 제가 예술사업 쪽으로, 제도적으로 확실히 아는 상태도 아니라서 쉽사리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일단 출신은 경남이고 부산·경남에 있다가 유학 후엔 서울에서 활동을 오래 했고, 올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음악 쪽 파트너들이나 교류할 수 있는 사람들 거의 연락이 끊어지고, 올해 돌아왔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걸 잘 알고, 또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예술위원회1 말씀주신 정산 관련해서는 사회적 신뢰도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2009년도, 그전에 광우병 시위하면서 정부 국고를 시민단체에 주느냐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등 전 영역에 걸쳐 대대적인 감사를 받았고요. 이후 감사원의 강제 이행사항으로 1원이라도 집행되는 모든 사업은 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17년부터 e나라도움 쓰면서는 더 타이트해졌고요. 문화예술을 의심하고 감시하고 이런 맥락보다 전국민적으로 국고가 투명하게 잘 쓰이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무리하게 모든 분야에 일괄 적용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은 볼펜 한 자루 사는데 서류가 5개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게 객관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이 있긴 하고요. 그래서 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작년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긴급지원, 예술 현장에 대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부산도 17군데 정도 지원을 받으셨는데, 1,000만 원씩 일괄지원한 적 있어요. 정산 안 받고요.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도 어려웠지만 그런 형태의 사업들. 최근에도 도입하고 있는 게 일부 금액에 있어서는 e나라도움으로 안 하는 그런 것들.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려면 최소 이 정도는 자부담을 통해서 더 많이 써야 한다는 등의 기준을 만들어서 간소화하려는 일부 시범사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술위원회2 첨언 드리면, 예술위원회 사무처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보기에도 이 일이 만만치 않거든요. 100원이냐 200원이냐 여부를 떠나서 저희는 지방비가 아니라 국비이기 때문에, 보조금 법률에 따르면 국비는 e나라 도움을 100%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현장에서도 반발이 많고, 자존감 상하는 문제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이야기해서 국고보조금의 정산(e나라 도움)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산 항목이 획일화되어 있는데 뭔가 문화예술분야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항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공임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사전지원금이 아니라 포상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모든 사업을 포상금 형태로 가기도 어렵고, 예술가 입장에서는 창작하려면 먼저 자본이 있어야 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소위 위원2 제가 김** 선생님 말씀 듣다가 지원 규모나 지역 상황에 적합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이 됐는데, 놀랐던 건 가치판단, 미적 기준 등 지원기준이 수도권 위주로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공공미술 지원에 있어서 그런 일이 지역에 따라 차별이 생긴다면 그건 간담회 자리에서 나올 내용이 아니라 제보가 돼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수도권 작품들이 더 우대된다거나 그런 일이,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지 않아서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실제 사례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예술위원회2 저희가 평균적으로 정시 공모를 했을 때, 신청률을 따지면 75:25 정도 돼요. 75%가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25%가 수도권 외 지역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최근 2~3년 전부터 이 부분을 신경 썼는데 신청률은 그런데 선정률은 75:25냐. 그 부분이 안 지켜진 게 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지역 최소 보장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목적을 보면 예술적 우수성 중심으로 심사위원들이 심의하려고 하는데, 지역과 수도권이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계적으로 수평선 상에 놓는 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셨고, 국정감사 때도 이 부분 지적을 받았어요. 사업목적 자체가 예술성, 우수성에 있지만, 최소 보장제를 적용해서 지금은 정시 공모에서 지역 신청이 25%가 있다면 적어도 그 이상은 무조건 보장하는 게 저희 방침이고요. 어떤 사업은 90:1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25% 안 되는 개별사업은 가급적 신청률을 유지하는 게 방침이에요. 문예진흥기금이 지역을 홀대한다는 게 과거에는 맞을 수 있지만 최근 3년은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소위 위원3 지역 최소 보장제 말씀 주셨는데, 예외사항도 있어서 조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5월 회의 안건이기도 했고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청년예술가 해외 진출 사업이 있었는데, 다 수도권이고 비수도권은 없었어요. 신청률 상으로 따지면 비수도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만약 지금 말씀하신 지역 최소 보장제를 적용한다면 지역 비율이 있는데도 선정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무처에 여쭤봤는데, 국제교류사업같이 예술성이 많이 고려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사업 안에서 지역 최소 보장제가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기준에 따라 적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만 국제교류사업이나 여러 가지 예술성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청년예술가 해외 진출 사업은 청년예술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너무 박하게 하는 건 안 좋지 않냐, 지역에서 해외 국제교류사업에 계속 못 들어가서 경험치가 쌓이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청년 사업 같은 경우는 실패할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지역 최소 보장제를 적용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 부산에서 도자기 하는 공예 파트의 정**입니다. **지역할당제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부산에서 작업하는데 그런 게 있는걸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번도 홍보된 적도 없고 그게 있다는 인식을 시킨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아까 지역 쿼터제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

빼고 나머지의 지역이 25% 인지, 부산에서 10개가 올라왔다면 거기서 25% 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까 이야기하신 청년들이 국제교류에 왜 지원 안 하냐는 것도 한번 해봤는데 소용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부산에는 해외 교류 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서울에 비하면 적죠. **그런 기회 자체가 없고, 국제교류를 주선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걸 전혀 모르면서 지방에서는 한 개도 안 들어와서 주고 싶어도 못준다고 하면 되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처럼 의무적으로 각 지방에서 한 개라도 올려라. 한 개 내지 두 개는 의무적으로 준다. 이렇게 줘야 만이 이 친구들이 재밌게 올리려고 하고 노력해요. 그게 맞잖아요. 먹어봐서 맛있어야 또 사 먹는 거지. 안 먹어보면 몰라요. 공개를 할 때 차라리 지방에 프로테이지 별로 주겠다. 젊은 애들도 시간 많고 노력하는 애들은 한두 개라도 쓰면, 물어봐서라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늘 하는 사람만 하는 게 국제교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중앙에서 줘야죠. 그리고 부산문화재단은 잘해요. 국제든 레지던시든 끊임없이 새로운 팀에게 기회를 줘요.
하면 늘어요. 안 하니까 안 늘지. 기회를 안 줘놓고 안 한다, 없다는 이야기는 틀렸지.
부산문화재단에서 좀 배워가실 거는 항상 새로운 신규 팀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점은 중앙에 계신 분도 배워야 해요. 그래야만 분야, 나이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도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지. 예술위원회에서 공지가 뜨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넣어봐야 떨어질 건데' 그겁니다. 제가 한국예술위원회에서 딱 한 번 받아봤어요. 그것도 정시에 받은 게 아니에요. 9월인가 10월에 미달해서 던지는 거 받아본 적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부산에는 드물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시할 때 쿼터제나 할당제를 공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소위 위원2 저도 서울에서도 활동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늘 써서 거의 떨어져요. 저나 동료들도 항상 왜 오답인지 모르는 결과를 받아 드는 느낌이고,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서울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지원 규모의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저도 귀결이 됩니다.

문** 작년까지 서울에서 활동하다 부산으로 온 기획하는 문**라고 합니다. 부산에 계신 작가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보다는 근원적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전 직장이 성북동에 있었어요. 혜화동, 대학로랑 가깝잖아요. 대학로 아르코 예술가의 집에 있으면 거의 4~11월까지는 예술가, 기획자를 위한 강연을 많이 합니다. 챔프 아카데미도 있고요. 또 다양한 장르 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그 교육을 들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도 부산에 와서 강의하게 되면 예술가, 기획자를 꿈꾸는 친구들이 졸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대학교에 그런 과도 생기지만 현장에 대한 실습,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서울은 이런 교육이 있다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아르코 홈페이지를 보면 전부 수도권, 혜화동 그쪽에서만 이뤄지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Zoom이나 온라인 대체 교육도 나오긴 했지만 부족합니다. 그런 다양한 장르, 예를 들어 뮤지컬에 관심 있다면 뮤지컬 기획, 아니면 행정가는 기획서 쓰는 방법, 행정을 하는 방법 등 이런 교육들이 거의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일례로 지역문화진흥원이나 다른 데는 문화이모작 같은 사업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술적 부분에 대한 교육도 지역으로 나눠서 하면 지역의 예술가나 관심 있는 청년예술가가 찾아가서 볼 수 있을 텐데, 못 듣고 있는 실정이고요. 기획서, 정산 관련 교육이 별로 없습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 몇 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작가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건 부산에 있는 작가들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책이나 현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봐서요. 이런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찾아가고 건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교육에 대한 지역적 분배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소위 위원1 예전에는 아르코나 아르떼나 중앙에 있는 기관이 찾아가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지역마다 재단이 다 생긴 거죠. 만약에 아르코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다른 지역에서 진행할 경우 우리 지역에 재단이 있는데 왜 아르코가 하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처음 맥락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게 요즘 같은 분권 시대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 지역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가가 문제인 거죠. 그게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아르코나 재단이 협력해서 진행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니 밑에 있는 청년예술가 세대에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소위 위원4 저는 해금 연주자이긴 하지만 N잡을 하다가 생존 기획으로 기획 일을 하면서, 지역에 기반한 예술 활동을 3년째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작년 강동지역 재단이 처음 설립됐습니다. 처음 설립되어서 좋았던 건 재단의 방향성에 제가 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 재단이 처음 설립됐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하니까 일은 많이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 사업이 조금씩 넘어왔어요. 이쪽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예술의 불모지라고 불릴 정도로 예술가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전문적인 기획력이나 전문 영역은 외부에서 강사를 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그 안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몰라요. 그 맥락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해요. 중앙에서 해주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재단에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나를 예술가로 보기 전에 지역 주민으로 봐줘라' 였어요. 주민으로 봐야만 이 동네에서 제가 활동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하는 거지, 다른 데서 여유 있게 활동하다가 남는 것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외부인 취급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우** 저는 자칭 예술 매개인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25년 넘게 근무하다 사회복지와 문화예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해 주로 관심 갖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아니라 생경하긴 한데, 제가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장애 예술인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잖아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 물론 장애 예술인에 대한 전반적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현장소통 지역간담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에 관련된 것들은 아르코, 아르떼든 예술에 관련된 곳에서 거대 담론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세세하게 이런 법률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관심 갖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법률에 대한 부분이나 장애 예술인과 장애 예술에 대한 부분을 의제로 삼아 지역별 진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연결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과 업무 분담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사실 장애인 분야를 하기에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해요. 인권을 생각해야 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애주기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제가 작가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작가들은 저보고 울어요.. 무섭고 두렵다고요. *그런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장애 예술 분야에선 이미 2018년에 예술 매개인에 대한 역할이 강조됐는데 서로 다른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공식적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부산 지역에서 장애 예술인 실태조사를 했을 때 나온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 예술인을 만나거나 보호자를 만나면 어떻게 예술 분야에 진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막상 장애 예술인을 찾으려고 하면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관공서 이름으로 하는 대회에서 발굴된 장애인분들을 공유해주시면 저는 지원을 하고 싶은데 못 만나서 지원을 못 하고, 이미 진출해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를 할 때도 어떤 형태든 간에 그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우리가 작업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요.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도 그 지점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의 장애로 인해, 경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아까 해외 교류 작가님들 해외 갔다 와서 그 모습을 여행 스케치해서 전시하고 이런 것도, 장애인들에게는 진입이 힘들어요. **경험 접근성이 확대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업을 해보면 예산이 배로 듭니다. 통역사를 써야 하고 경사로, 엘리베이터, 화장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곳을 대관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똑같이 200만 원 지원받아도 벌써 이런 경비가 운영비에서 엄청 많이 나가요. 청각장애인들이 장애인 예술 토크 콘서트에 왔는데 연주를 듣지 못하잖아요. 이런 걸 전달하는 보조 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 장비를 빌려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술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과 만나고 경험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사회 자체가 그것을 막고 있다 보니까 진입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확장된 사고를 해주시고, 아르코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영역이나 재단에 계신 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겠다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현소위 위원1 참고로 부산 같은 경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 사업에서 2019년부터 연 4억씩 예산 지원받았고, 올해까지 3년 지원을 받으면 끝이 납니다. 시비까지 일부 확보해서 진행했었는데 올해 국비가 끝나면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3년의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 안녕하세요. 제가 예술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 학교에 있는 친구인데 미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서 공모도 하는데요. 제가 한 2년을 아이 엄마로서 해보니까 예술 분야가 너무 어렵고, 저야 컴퓨터에 능숙해서 지원도 잘하고 공모도 잘하지만, **장애인분들께서 미디어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다**는 점이 안타까워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늘 열심히 아이랑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이가 대학생이라 그냥 열심히 공부를 시켜 일반 기관에 취업을 시켜야 할지, 엄마로서 이 길을 계속 가게 해도 될는지 오늘 논의하시는 걸 잘 듣고 판단을 하고 가보려고요. 요즘 장애인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감사하고, 저도 많은 일을 다양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저 혼자 하는 게 너무 어렵고 다른 부모님들은 더 어려우세요. **이런 게 잘 안 되는 장애인 친구, 청소년 아이들, 부모님들을 관리를 해주는 국가 매니지먼트 같은 그런 기관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댄스컴퍼니 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앙, 아르떼, 부산에서 지원금을 받는 수혜자로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청년으로 받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지금 나온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체험했습니다. 2014년에 받았을 때는 서울에서 아르코에서 큰 사업을 했을 때라 부산에서 혼자 처음으로 갔어요.. 그때는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지원금 받으러 간다고 저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없고, 20명의 아티스트를 뽑아서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게 많았고, 부산은 저 혼자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로 다 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3개월 동안 하면서 작업을 하려면, 내년에는 안 되겠다 느꼈고 그래서 그런 면들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거기다 대고 말하기에는 부산에 있는 후배들에게 기회가 없어질까 봐 말 안 한 것도 있어요..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다행히 작품이 잘 나온 경우였어요.. 그런데 정산은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부산은 주은행이 부산은행인데, 신한은행으로 하라고 해서요.. 정산할 때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사업 쓴 적이 있냐고 해서 있다고 하니, 부산이 정산으로 1등 많이 하셨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통장의 잔고에서 저의 회계도 지원해주셨어요.. 금액을 맞추기 힘들어서 미뤄지고 있는데, 이자가 자꾸 붙더라고요.. 이자 때문에 한 달이 딜레이가 됐어요.. **정말 서울은 붙기도 힘들지만, 정산도 힘들구나 싶었죠.**
아르코의 모든 사업은 PT가 있었잖아요.. 최근은 아니지만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PT를 2차까지 붙어서 갔을 때, 그때는 중장기라서 금액도 컸어요. PT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교통비를 안 주시더라고요.. 중장기는 크니까 3년짜리 기획을 하려면 뭔가 엄청 많이 해야 하는데 인터뷰하기에 앞서서, 아까 중앙으로 돈이 몰린다는 느낌을 받는 게 저는 무용 분야라 맨날 받는 선생님들은 아는데 돈 차이가 나죠. 누가 봐도 유명한 안무자들이

있었어요. **매 수요자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분들이 작품 잘하죠.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은 우리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면들이 좀 안타까웠고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부산은 심사위원이 정해져 있어요. 다 아는 사람이 걸리는데, 서울은 그런 게 덜해서 좋아요.** 선생님에게 부담이 있다면 그런 점에선 서울을 두드리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부산은 정산이나 피드백은 좋은 면들이 많고요. 그래도 큰돈 주는 건 중앙이지 않을까. 수도권 위주라는 건 당연하죠,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어쩔 수 없죠. 수도권 아티스트들은 '너희 부산이어서 뽑힌 거 아니야?' 이런 말도 해요. 내 실력이 좋은 건데 하고 웃자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바늘구멍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봤을 때도 그 문턱은 높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부딪쳐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는 **차비나 시간 같은 부분에서 편의를 주신다면 젊은 사람들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성**

저도 몇 년 전에 간담회 한번 참석했던 기억이 있고 두 번째인데, 부산문화재단에서는 이런 간담회를 왜 안 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특수상황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문화정책이 많이 바뀌었고, 바뀐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선생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2000년 초반에 매개 공간 지원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시작하는 해에 수혜를 받고 2년 연속 사업이라 그다음 해에도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받아서 저희가 받았던 금액보다 증액돼서 받은 적이 있는데 다음 해에는 사업 자체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때도 서울에 PT 발표하고 그랬는데, 아침 10시 반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그 시간까지 가려고 하면 쉽지 않아서 오후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는데, 스케줄이 꼬여서 안 된다고 해서 첫차 타고 올라가서 하고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배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간 긴급 지원받아서 사업을 작게 한 것도 있고, 크게 한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금액에 따라 정산 강도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 짜리 영수증으로도 끝날 수 있는 일인데 반려에 반려를 거듭하고, 중간에 보니까 직원이 바뀌어서 그전에 보냈던 자료를 다시 보내 달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정산이 간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새로 생긴 다원 예술 부분인데, 제가 그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아침 10시까지 인가가 마감이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날짜만 보고, 당연히 6시 마감인 줄 알고 준비하다 못 낸 적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공모를 살펴보니까 약간 들쑥날쑥하더라고요. 11시 마감인 사업도 있고, 2~3시 마감인 사업도 있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다원 예술 지원자의 정의를 본인 스스로 쓰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맘에 들었고, 본인이 정의한 다원 예술이 이건데 왜 지원했는지 지원동기를 지원자 관점에서 쓰라고 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1차 중간발표를 보니까 요약정리가 상세히 되어 있더라고요.

몇 건이 들어왔고, 몇 건이 1차 통과가 됐다는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어서 그런 투명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뢰를 높이는 행정 서비스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재단에서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심사를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심사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주지 않으면 선정된 분이나, 누락된 분들에게 여러 가지 불평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부산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게 선정된 사람은 이 공모가 굉장히 공정하게 잘 된 사업이라고 하고, 선정에 누락된 사람은 뭔가 심사에 냄새가 난다,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심사를 누가 했냐 등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지 않나 생각했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중간 과정을 오픈해서 보여주는 건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

아까 피드백 이야기하셨는데, 잘하라고 하는 게 피드백이니 좀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피드백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정산할 때 문화재단이나 예술위원회에 물어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요. 알고 보면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불법이 아닌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더 편한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걸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한다는 건의 드립니다.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법적인 문제에서 걸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이나 방향을 가르쳐주는 팀을 만들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부산문화의 전당에서 예술복지나, 개인 창작 신청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니 그 시기에 예약을 받아 그분들은 위해 작성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서**(울산문화재단)

여기 계신 예술인 여러분께 희소식을 말씀드리면 당장 내년부터 일부 사업, 그리고 2023년부터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은 e나라도움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업 대부분 사업이 국가 예산인데 지방으로 이양이 됩니다. 예술위원회에서 예전에 지특 사업 넘기는 부분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2019~ 20년에 총 3조 5,000억 원이 이양됐습니다. 그중에 문화예술 분야가 4,000억입니다. 전체 11%죠. 국가 예산의 문화부 예산은 1.5%밖에 안 됩니다.
이양되는 예산은 11%를 뺏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예술인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이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주단체 사업도 그렇고 교육사업도 그렇고 2차 이양대상으로 전부 포함시켜서 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합니다. **과연 정부에서 혹은 문화부에서 문화예산에 대한, 적어도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최소한의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매우 큰 우려가 생깁니다.** 문화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지역으로 넘어가니까 알아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지난 70년 동안 중앙집권 행정을 펼쳐오다 그걸 당장, 이양하니까 자유롭게 하라고, 적어도 준비할 시간을 주고 지역과 편차를 이해하고, 지역 세수를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보태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역으로 이양됐으니 더 이상 예술위원회나

문화부에서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역 이양이 어차피 될 거라면 중앙차원에서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지역에서 염려하는 사업들이 잘 이양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던가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든지요. 중앙에서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적어도 비전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술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지만, 지역 담당자로 매우 비통합니다. 적어도 부산에서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 소비세율이 지방의 핵심인데 인구가 많은 곳은 세수가 많이 걷힙니다. 타격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울산이나 작은 도시들, 그리고 농어촌 도시는 이양되는 규모가 세수보다 더 큽니다. 과연 그런 도시들은 어디서 문화예산을 편성해야 하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술위원회와 문화부 차원에서 지역에 이양이 됐을 때 좀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

독립영화 만들고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10년 정도 부산에서 다큐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한 번이라도 참여해본 적이 없는데 늘 불만처럼 저 혼자 가지고 있던 걸 어디에도 이야기할 수 없어서 신청했습니다. 부산 창작공간에 입주해 있는데, 거기 공고가 떠서 신청했고 사실 어제 안내 문자 보내주셨을 때까지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을 하나도 신청해본 적이 없고, 그 이유는 영화 분야는 기초예술 분야에서 시각예술에 포함되지만 주로 회화나 미술 위주로 지원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5~6년 전부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지 살펴보지만, 사이트를 들어가도 해당하는 게 없어서, 늘 어떤 사업이 지원되는지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면서 좀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앉아 있는데요.
저도 아까 성** 작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산문화재단에서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작년에 아트 체인지업 사업이라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랑 부산문화재단에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진행한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1,000만 원 지원받은 게 있는데 그건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해줬지만 1,000만 원을 수월하게 사용했어요.
인건비에 소요해도 되고, 영수증 4장으로 쳐낼 수 있게 해서 이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어떤 제도가 많이 들어와서 수월해진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부산에서 10년 동안 작업한 작가로서 지역문화재단에 좀 불만 아닌 불만은 있는데, 예술위원회의 사업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소통창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의 수혜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

반갑습니다. 거제도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 문화공간처럼요. 이름은 정**입니다. 미학과 예술경영 정책 코스를 전공했습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마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님께서도 참여하셨는데, 제가 전시기획을 하면서 작년에 **미술관, **미술관 전시가 거제 내려오는 거로 전시 공간 활성화 사업을 했습니다. 부전공으로 출판 미술도 해서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작은 캡션이나 리플릿을 만들어 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루트를 타진했는데, 결국에는 예산 적용이 되질 않아서 적용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지금 예술 분야가, 다원 예술도 오감 만족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장애인분들도 문화예술인으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일반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조각 전시를 하면 작가님하고 의논해서 만져도 되는 걸 3점 정도 점자 캡션을 붙이거나 엽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지원하거나 공론화되는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앞으로 혹시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장애인 예술가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산확보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20년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거제시가 이슈가 됐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실지, 여기서 내용을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거제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해서 처음부터 이슈가 됐던 게, 저희 거제 시민은 아무도 몰랐고, 거제시 예술인이나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은 예술인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거제시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단체에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한걸 타 지역에 자문위원으로 가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제 시장, 경상남도, 문화체육관광부, 세 기관에 정식으로 이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거제시는 시 예술 조례 위반, 시민의 알 권리 침해 등등, 법률 검토를 받아서 보냈습니다. 근데 저한테 돌아온 반응은 문체부에서는 너희 거제시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다음에 예산이 안 갈 수 있다는 답이었고, 경상남도는 상위기관으로서 문체부에서 내려온 1,000억대 예산이 내려온 기관으로, 지도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시간만 끄는 거예요. 이야기했다, 시정을 할 거다, 결국 시장님하고 면담 요청을 해서 이야기했는데 시장님 말씀이 이건 전문가가 다 검토했고, 법률적인 검토도 다 끝났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문제 될 게 없다. 문제가 된다면 담당자 과장과 계장을 문책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불법추진에 대해서 시민대책위원회 단체장 7명이,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할 곳이 없구나 싶어 나오면서 바로 보도자료 내고 MBC, KBS 감시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도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불법추진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재공고를 냈더라고요. 재공고를 낸 것 자체는 조금은 변화를 했지만,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작년에 저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잘못된 것을 체계적으로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경상남도, 거제시, 어느 한 곳도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언론에 나오고, 저희가 거의 석 달간의 1인 시위를 거치고 나서야 나온 결과가 '재공고'였어요. 그런데 그 재공고도 보면 거기다 '37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신청이 안 들어왔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다.' 그 내용은 먼저 불법으로 선정된 단체에 그대로 주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거예요. 저희들이 외쳤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불법이나 편법을 공정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여한 것도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정말 죄송스럽지만, 거제

시장님의 마인드가 고착화돼있는 건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어떤 기관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언론에 내고, 법적 대응 하겠다고 하니까 내려온 게 감사였어요. 경상남도에서 감사해야 하는 권한이 있는데, 그 경상남도에서 거제시 감사단 실에 이첩을 했고요.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죠. 도둑질한 도둑에게 네가 도둑질했는지 조사해서 올려라, 징계도 하고, 그런 거죠.
저는 절망감을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거제시 담당 과장과 계장을 징계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제가 최종적으로 받았어요. 그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정보공개를 거의 140개 가까이 요청을 했는데 문체부, 경상남도, 거제시가 제대로 된 **정보공개를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빈 깡통이었고, 이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식이고요. 대한민국에 저 세금 많이 내거든요. 저희 남편도 많이 내는데 우리의 세금을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해야 하는지. 그런 기관들이 뭔가 불법적인 걸 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물론 감사원 감사도 있어요. 서류까지 다 해놨고 300명 서명까지 다 받았지만 결국 안 넣었어요. 변호사님이 이거 넣어봤자 소용없습니다, 힘만 뺍니다, 넣지 맙시다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든, 기타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정말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소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알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현소위 위원1 상황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관심 있어서 찾아봤었고 거제시가 문체부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으면서 마무리된 사건으로 파악했는데, 어떤 얘기할 상황이 많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꼭 답변이 아니더라도 서로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 저도 부산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해서 공모 신청도 내보고 공모 신청이 구 단위로 진행되면서 떨어져서, 부산문화재단에서 하는 컨설팅 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심사과정이나 진행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느꼈다는 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사업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나오고 그 지침을 지역에서 정확히 따라 하면 되는데, 설계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부산문화재단이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늦게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사업 완료가 안 된 구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정확한 설계가 나와 준다면 설계에 따라 지자체에서 움직여주고, 공모하면 되는데 제가 냈던 공모사업은 일단 구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서류에 관련된 사람이 심사위원장으로 와서 자기가 선정하고 사업을 다시 시에 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공공연한 사실로 알고 있고, 저도 이런 문제를 구에다 정보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요청이 안 되더라고요. 심사 기준이라든지 혹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누가 심사했고, 어떤 심사평이 있는지에 대해 공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까 하다가, 한 개인이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예술가들하고 논의 끝에 괜히 잘못하면 더 시끄럽고, 이후에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괜히 미운털 박혀서 못하는 수도 있으니 더 이상 일을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지역에서 토착세력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권력화를 더 돈독히 하는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부산은 16개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심사를 가보니까 이런 사업까지 지원해야 하나 하는 형편없는 사업까지도 선정이 되고, 선정에서 누락되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붙여줘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단순히 사업의 우수성이나 지역 예술가 지원이 아니라 정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예산을 받아와서 지역 예술가들에게 돈을 쓴다는 치적 사업으로 비쳤다는 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예술위원회2 공공미술사업은 문체부가 설계한 추경사업입니다. 예술위원회가 보조금 중에 일부 협력하는 거로 애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예산은 지원하되 실제 수행은 지자체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 지역의 특수성이 가미된 자치권 존중의 문제도 고려해야 했을 겁니다. 지역마다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또한 지자체장이 문화예술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느냐에 따라 지역재단과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영역의 차이도 있구요. 다만,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추경예산이라 지속 사업은 아닙니다.

성** **재단에서 직접적 지원도 있지만, 행정적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베를린까지 작가들하고 실제 버스를 타고 2달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 지원을 받아서 갔는데 시베리아 한가운데서 버스가 고장 나서 멈춘 경험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전화를 외교부에 하니까 좀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제가 다시 전화해서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아서 문화 행사하는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태도가 다른 거예요. 바로 조치를 받아서 위급한 상황을 모면했는데 국제 사업 같은 경우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비로 하는 행사여도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교류사업을 같이하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고, 저희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액을 지원해줘야만 지원이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통한 로고 사용이나, 국제교류사업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일단 이런 현장소통위원회가 있다는 게 놀랍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에서도 이런 간담회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문화재단에서도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이번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좋은 제도고 작가들이 산재도 들어보고, 시스템 속에 살짝 얹어보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예술인 특화된 4대 보험을 만들어달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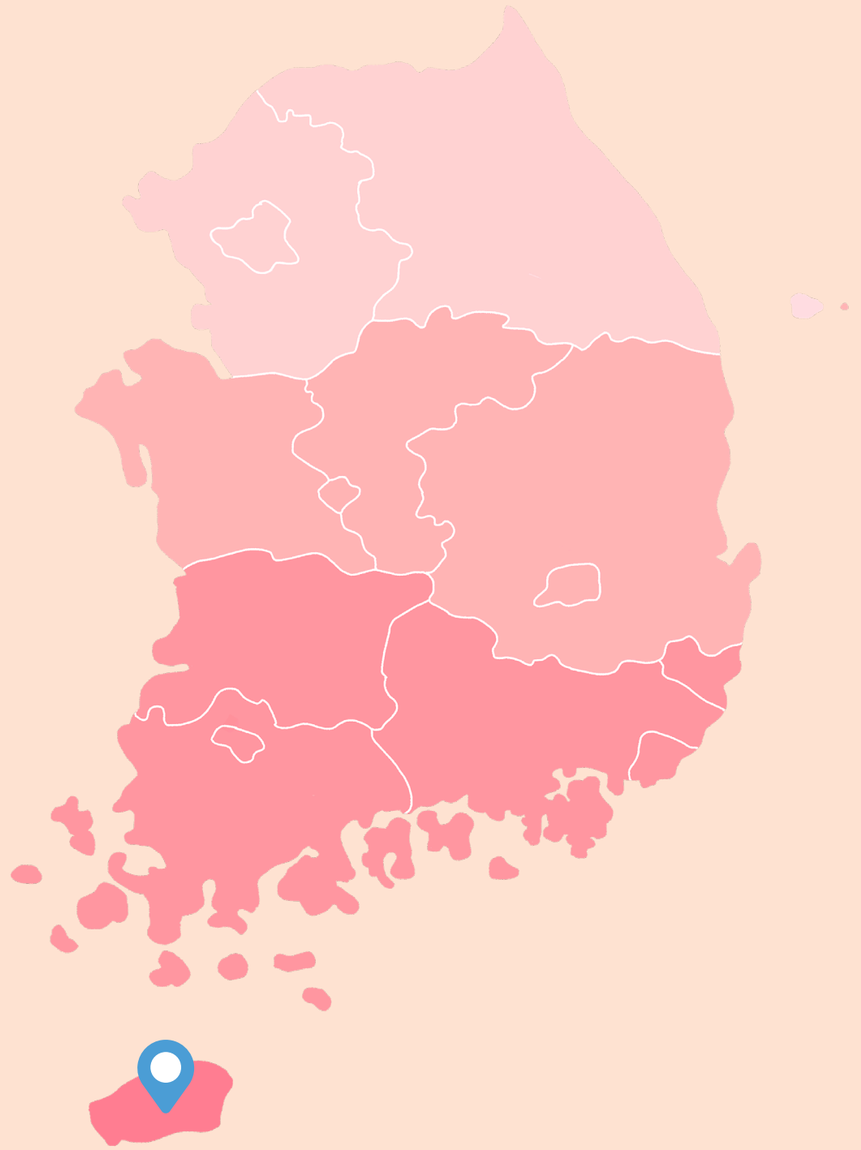
요청했거든요. 대부분 직업이 있는 부인이나 남편에게 고용보험이나 연금이 얹혀있어요. 예술가들은 직업이 없잖아요. 사업자를 낸다 해도 사업이 잘되나요. 이런 행정 시스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4대 보험처리를 분명하게 노력해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재단과 예술위원회의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작가나 예술인들이 정산하려고 아등바등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작가와 예술가들은 예술 활동에 100% 삶을 바쳐야 하는 사람인데 지속하려고 그 이외의 부분을 하고, 정산하는 실무 능력 이런 걸 가르쳐 주지 마세요.** 안 배우고 싶거든요. 그걸 해서 계속 이런 식의 재단 사업 따고, 어디 사업 따고, 공모 내고, 이거 계획하고…. 이거 예술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술 활동에서 예술인들이 생활을 영위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행정 서비스로, 그런 걸 구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술인들에게 돈을 주니까 이렇게 하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사회라면 이런 자리도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에서도 예술 관련 학과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부산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면 하려고 하는 분은 되게 많고요.** 이게 사회가 발전해나가는 과도기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지역과 중앙의 단체 기준 문제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스스로 루저라 여기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 없어 하는 부분도 있고,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일단 먹어주고, 부산에 있다 경남 가면 '부산에서 왔나 봐'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서는 외국에서 왔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부산이 세다.
부산에서 정산 아주 잘한다고 들으셨다고 하는데, 부산문화재단 서류가 장난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서류만 만드나 봐요. 그걸 보니까 행정의 그게 보이더라고요. 중앙, 문체부, 시청, 구청, 그리고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부산시 산하기관이라 애매모호한 스텐스.
저는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예술가들을 대변해달라,** 우리 대신 세게 이야기해 달라, 우리가 다 예술계 출신이잖아요. 지금 자기 역할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일단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어느 자리든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계속 이야기하면, 또 예술위원회 분들은 서울 가서 말씀하실 거고요. 우리 돈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자존심 뭉개지 말고 쪽팔리게 하지 말아라, 그거 없어도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고 잘할 것이니 **존중받으면서 예술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fin.

기타 의견

- ○ 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 실현
- ○ 예술가들의 지속적 생존을 위한 경제적 제도개선
- ○ 공연 장소에 대한 복잡한 인허가 문제
- ○ 지역 내 활발한 교류 경험 요구
- ○ 지역 내외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성의 어려움
- ○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창작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예) 창작 준비-창작 작품 발표 지원-활용 연계 사업(다른 장르 전환 등)
- ○ 지역 지원사업 심의제도 운영의 한계점
  - 한정적, 반복적 인사 위주의 심사와 중년남성 위주의 심사 문제.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 ○ 청년의 기준을 UN, WHO의 연령 구분과 가깝게(18세~65세)
  - 다학제, 융합 예술이 중시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분야, 장르의 창작을 시도하는 기성작가에게도 청년, 신진 작가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 **(예술 지원사업 주체의 다양화)** 비슷한 구성 및 단체 심사, 3년 지원받은 경우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 교수는 사업 및 심사위원에서 제외 등
- ○ **(예술가의 경제적 기반 지원)** 창작 포인트 적립과 기본소득, 주거 공간 지원
- ○ **(가상공간, 4차산업 연계 사업화 지원)** 예술 생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지원, 플랫폼 및 교육 등
- ○ 순수예술인에 대한 구분
- ○ 기초예술 범위를 확장해 실용음악 예술가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길 바람
  - 순수예술 위주에서 확장하여 다양한 장르까지 폭넓은 수용 필요

제주권 — 제주

2021. 6. 4.(금)
아일랜드팩토리 풍류 3층



제주권 간담회는 소수의 예술인들이 참여했지만 제주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특히 지리적 특성상 운송료에 대한 어려움과 신진 예술인의 지원제도에 대한 부재, 그리고 제주지역 예술인의 네트워크와 이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의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 문화 재단의 역할과 더불어 제주 출신의 예술인과 제주로 유입된 예술인 간의 소통 개선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주제	주요 의견
지역 창작활동의 어려움	○ 지역 예술로 활동을 시작하는 통로의 부재 ○ 제주 지리적 여건으로 타지역과의 교류 어려움 존재 ○ 전시 홍보, 갤러리 컨택, 타작가 및 타장르와의 교류의 장 마련 방안 ○ 전시 및 공연 공간의 부족(복합문화공간 필요) - 기존 공간에 대한 홍보 및 활용도 부족 ○ 제도적인 부분에서 서울과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음 - 사례) 서울은 본인 사례비 책정이 가능하지만, 제주는 불가능함
지원사업 및 심의제도 관련	○ 지원사업 내 작품운송비에 관한 어려움 존재 ○ 지원예시 및 자료 필요 ○ 진입기(신진) 예술가들 지원에 과도한 지원자격, 리서치 지원 확대 ○ 지원사업의 일관성 및 역량 축적을 통한 발전 ○ 다양한 장르에 대한 지원 ○ 예술가가 기획자가 되어야 하는 행정서류 절차 및 정산의 간소화 ○ (지원사업 공모시기 문제) 연초 집중된 지원사업의 시기 조정 가능 여부 ○ 예술인의 아이디어로 사업을 구성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시스템 필요 ○ 지원사업의 심사위원 Pool 지역재단과의 공유 가능 여부 - 심의위원 추천과정의 투명성, 타 사업 중복 심사위원의 발탁 사항 - 중앙 및 타지역 간 심사위원 풀제도, 추천 및 선택과 배수 등 정보 공개
기타	○ (예술인 증명) 대표 번호 통화의 어려움 - 예술인복지재단 ○ 지역문화재단과 문화예술지원사업 또는 예술인복지 사업 등 업무 협조 ○ 예술 생태계 형성에 있어 지역적 구분 ○ 지역성으로 인해 생기는 권력화되는 단체의 문제 ○ 기존 제주도민 예술가들과 이주 예술가들의 융합 문제











현소위 위원1 인사말&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현장소통 소위원회 소개

이**(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위원회 여러분들 제주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의 멀리 계시는 예술인 분들은 서울에서 오시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정부에서 해주실 일이 있고 지역에서 해주실 일이 있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노력하더라도, 이게 미스매칭 되거나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이 이야기가 참여하신 분들, 전국 예술인들에게 피드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도 있으니까 재단하고도 소통을 해주시면 같이 한꺼번에 전국에 예술인분들에게 결과물을 드리면 흐뭇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조** 저는 그림 그리고 있는 조**이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들을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 파트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이 안에서 전시하거나 이런 것들은 재단이 오랫동안 지원 프로세스를 갖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이 많고, 그런 부분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청년 작가로 시작해서 10년 정도 작업하면서 제가 10년 전에 했던 것보다 지원이 잘 되고요. 다만 어느 정도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답답하다 느낀 문제는 **네트워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오는 것보다 이 안에서 거리가 더 멀 수도 있다는 말씀처럼 거리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오히려 **작품을 운송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해결 방법이 없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다가, 여기 도립미술관에 있는 큰 전시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을 내서 매개하는 듯한 형태가 있는데 아직 제주도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그런 형태도 선택된 몇 명, 본인이 필요해서 기획에 지원하고 진행해나가는 게 아니라 선택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애초에 운송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인프라가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발맞춰 들어가서 자기의 작품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고요.** 반대로 지역에 기획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 기획자들이 왔을 때 지역 작가를 찾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지역의 원주민 같은 지역 작가들이 곳곳에 있을 거고, 서울에서 이주한 작가들이 있고요. 그들이 산발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획자가 제주도에 와서 지역성에 맞게 괜찮은 기획을 하려고 했을 때, 작가 컨택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정보를 얻을 공간들이 많이 없고 명료하지 않아서 시너지가 덜 한 것 같습니다. 각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소위 위원1 작품 운송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은 제주도 안에서 사업 참여를 했을 때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예술위원회 사업에서인가요? 둘 다인가요?

조** 둘 다 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송할 때 작가들이 항공 우편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거의 대부분 트럭 하나를 빌려서 작품을 옮겨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재단의 지원을 받지 않거나 다른 지원을 받지 않고 운송하는 건 거의…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한번 운송할 때, 보통 300~400만 원 정도 듭니다.

현소위 위원1 왕복이요?

조** 사이즈마다 다르긴 한데, 큰 작업은 편도에 그 정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단 사업을 받더라도 재단에서 지원은 많이 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개인 한 명에게 운송료 플러스 다른 대관료 등 그 외의 것까지 하기에는 사업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보편화해서 여러 명에게 줘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알고 계시고 마음 써주시는데 정해져 있는 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 일단 있는 그대로, 나오는 대로 말해볼게요. 처음 만났으니 소개를 하자면 저는 홍대에서 인디 뮤지션으로 활동했었고 그전에는 광주에서 살면서 공연을 위해서 홍대에 가서 주로 공연했고요. 그리고 동시를 써요. 그림 그리기도 하고, 다원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노래하는 그림책 공연이라는 것도 만들고 여러 분야를 하고 있어요. 문학, 음악, 미술. 그렇게 하다가 재작년에 이사 왔나? 2년 전쯤에 제주도로 이사를 왔고요. 여기서 활동하면서 독립출판사 만들어서 책도 만들고 공연도 할 생각으로 왔는데 코로나가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공연 활동은 거의 못하고 있고요. 초반에는 홍대 쪽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것도 조심스럽더라고요. 공항도 거쳐야 하고 서울도 무섭고요.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행여나, 무섭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공연은 많이 멈춰졌어요.** 그래서 출판 쪽으로 책 만들어서 출판 사업하면서, 책도 인쇄는 사실 서울에서 했고요.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고 있고, 제주에 와서 공연은 많이 못하고 있지만 재단의 사업 같은 걸 많이 내고, 지원을 많이 받기도 하고. 예술공간**에서 지원도 받고 하면서 어떻게 예술가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금까지 생존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공연 활동이든 출판이든 문화 관련해서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많이 있는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 소개만 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도 하고 피아노 치면서 반주도 다니고 있는 고**입니다. 아직 팀 활동도 하고 있기는 한데 연주 활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단 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르코, 아르떼도 들어가 보고, 복지재단 사업도 찾아보는데 처음 찾다 보니까 지원자격 봐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이 찾았을 때는 지원조건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나가 충족되면 다른 하나가 안 되고요.** 그럼 다른데

알아볼까 해서 제주 쪽으로 알아보면 해녀문화사업 관련이거나 아니면 신진으로 작곡 분야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원자격 부분이 다 충족이 안 돼서 도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기간을 봤을 때 미리 준비하잖아요. 작년 12월부터 다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다 1~2월 공지 예정으로 돼 있는데 관련한 지난 자료가 삭제되어 있다던가. **지난해 어떻게 돼 있었는지 보면 준비할 내용이 예상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없는 자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고가 나온 다음에 지원자격을 찾아보고 도전해봐야겠다 했는데 막상 1~2월에 들어가면 자격이 안 되고요. 지금은 팀을 같이 하니까 그러면 올해는 넘어간 것 같고 내년을 준비해보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청춘 마이크 사업을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예술인 복지재단에 가입을 하고 신청하라는 대로 신청했더니 안 된다고, 대표 번호로 연락했더니 그분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알아보고 그랬었죠.

김**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해금을 연주하는 김**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서울에서 제주 내려온 지 4년 차가 됐어요. 서울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제주도 1년 살이 왔다가 지금 계속 살고 있는데요. 제주가 살기도 좋고, 정착하면서 팀을 꾸려가며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게 서울에서는 제가 주관·주최를 해서 연주를 한 게 아니라 그게 다 실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선 제주도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많아요. 지원조건이 제주도민이어야 하고요. **제주도민을 모아서 새로 팀을 만들었는데 3년 안에 3번의 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니까, 저희가 시작을 하기가 처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지원사업 같은 걸 받기 가요. 그렇다고 대표자 사비로 시작하기에도 세 번의 공연을 해야 하는 건데 비용이 많이 들고요. 지금 뭐 공연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직도 힘든 점이 많더라고요. 공연 실적이 없어도 복합 문화공간을 저렴하게 빌려서 혹은 무료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신진 예술단체나 신진 예술가들을 위해서라도 많이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소위 위원2 안녕하세요. 저도 해금 연주자고 전통분야 현장소통 소위원회 민간위원 ***이라고 합니다. 아까 조**선생님 말씀 듣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외부 기획자가 왔을 때 그 지역의 예술가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지역을 가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서울에 예술인들이 가장 많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예술가가 지방으로 오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방에 있는 예술가가 서울에 있는 예술가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기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었다가 동네 예술가들끼리 해결한 게 뭐냐면, 우리끼리 모이자 해서 이름을 붙이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고 이렇게 1년만 운영하다 보면 해당 지역에서 누굴 찾으려면 그 모임을 통하는 게 간편한 방법이 되더라고요. 제주도 지역의 예술가분들도 거리가 있다면 권역별로 나눠서 예술인 모임을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소위 위원3 3년 실적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서울에서도 워낙, 중심가에는 진짜 많이 몰리잖아요. 실적이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3번을 한다는 게 행사 말고 단독 공연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서울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인은 최초 지원이 있는데 단체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의 실적이나 전체 구성원의 실적을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마추어인지, 전문가인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완화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의견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소위 위원4 저는 ***이고요. 저는 클래식 공부했지만, 인디밴드 활동하고 있고, ****클럽이라는 팀을 하고 있어요. 거의 명맥이 끊기고, 그리고 상수동에 **다방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갑자기 드리는 건, 저랑 같은 처지고 같은 느낌으로 활동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아까 **위원이 말씀한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제주가 타 로컬보다 조금은 나은 환경에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어떤 형식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복합 문화공간이나 아지트 같은 네트워크 공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서로 공연이나 전시를 보며 친해지고 네트워킹되는 과정이 제일 예술가스럽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 지역에 비해서 제주는 그래도 이런 공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인지도 듣고 싶고, 오히려 관광 위주로 흉내만 내는 공간으로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경청해보고 싶습니다.

김** 저번에도 한번 어떤 일을 계기로 예술가분들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미술 하는 분은 자기 작품을 펼칠 곳이 없고 음악 하는 사람은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구나.** 네트워킹을 같이 해서 콜라보를 하든 아니면 문학을 하든, 어쨌든 그런 공간이 있으면 굳이 비행기를 타고 밖으로 나가고 하지 않겠다는 생각. 저는 계속 음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홍대 쪽이 중심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인디음악을 독립음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제주는 독립인디 아일랜드 느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한꺼번에 있어서 네트워킹도 하고 공연도 하고 즉흥 춤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인디 아일랜드 공간이 건물로 세워져서 그곳에서 이뤄지는 제주만의 그런 거. 직접 우리끼리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네트워킹을 하고 펼쳐 보이고, 정보도 주고받고 관계자들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 이제 조금 생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선택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갈 문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소위 위원4 말씀 주신 것처럼 대규모 공연장이 아니라 소규모, 주류나 음료를 파는 곳들도 공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소규모 공연장이 되고요. **작은 공연을 편하게 하더라도 실적화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문턱이 높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 있기는 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기가, 막상 문의하고 그러면 섭외가 어렵더라고요.

현소위 위원4 섭외 방식인가요?

김** 그런 식으로 복잡한 것도 있고, 비용도 저렴하지 않고요.

현소위 위원4 **복합 문화공간인데 자연스럽게 뮤지션들이 섭외가 먼저 되고 그런 공연장은 없다**고 느끼시는 거죠? 인디음악이나 전통 예술하시는 분들도.

고** 제주도에서 탐라문화제나 큰 행사를 하거나 하면, 해변공연장이나 이런 데를 데려가 주시거든요. 그런데 청춘 마이크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전 제주도민인데도 청춘 마이크 하면서, 제주도에 이런 공연장이 있었나 할 정도로요. 사려니숲길 안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있더라고요. 저는 제주에서 음악을 하고 공연도, 합창단 다니고 했는데도 제가 생각하는 공연장은 문예회관, 아트센터, 아라뮤즈홀, 아니면 관악제가 이뤄지는 해변공연장 정도였거든요. 이런 데만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했지, 관광지 안은 생각도 안 했어요. 이번에 탐라문화제에서 찾아가는 문화여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게 위가 공연장인 카페가 해안도로 쪽에 있더라고요. 많이는 생기고 있는데 홍보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살면서 저도 음악활동하면서 뭐 찍는다 해서 가 보면, 도두에도 초등학교 옆인가에 스튜디오처럼 밴드 공연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극 공연용으로 만들긴 했지만 작은 무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노형에도 있다고 하고요. 직접 전해 듣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문예회관, 아트센터, 아라뮤즈홀 같이 들으면 알 만한 곳들 외에는 막상 공연 포스터도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지원사업하면서 대관하고 어디에 홍보할까 보면, 큰 데 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작은 카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 위의 무대 같은 곳이고요. **다양한 공간이 많이 생기고는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아직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시설이 있더라도 공연이 많이 안 이뤄지니까 우리가 이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현소위 위원1 지금 네트워크 이야기로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내 여러 문화예술 행사 관련 공간이 있는데 발굴이 안 돼서 안 알려진 것도 있고, 인적 네트워크도 분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송 관련해서 도서 지역이든 어디든 사업 안에서 운송료 측정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도서 지역에서 육지로 왕복 이동할 때 그 비용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술위원회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큰 작업이 배를 이용하게 되면 편도 300만 원 이하로 나올 텐데요. 제가 이론적으로, 행정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사업에 운송료를 다 담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기관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규정이나 지침상에 어떤 물품은 얼마의 운송료가 들어간다고 정확한 규정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금액이 일종의 행정담당자 재량이라고 할 수 있죠. 물품 운송 금액이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범위가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안됐던 경험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조** 그 부분이 안 되지는 않아요. 전제는 이게 실제 비용이고 정산처리가 되는 거면 재단에서도 받아주려고 합니다. **다만 사업을 따서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운송료가 700~800만 원이 넘어가면 전시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권** 제가 시각예술을 다루는 기획자로 운송비 관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스튜디오** 이라는 시각예술 베이스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권** 큐레이터라고 하고요. 공간 운영하면서 재단의 지원금 받는 형태로 외부 기획이나 전시기획을 진행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운송비 같은 경우 공모에서 1,000~2,000만 원 규모 사업에 운송비가 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운송비로만 반 정도 금액이 든다고 하면 재단 입장에서는 지역 내에서 기획할 수 있는 게 운송비로 버려지는 형태가 되니까요. 저도 서울에서 활동하다 제주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하고 다양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기획자로서 답답한 부분은 **기획이 들어간 다음에 작가 섭외가 돼야 하는데 다양성이 떨어지다 보니 역으로 기획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작가를 섭외해놓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고, 타 지역과의 교류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적었습니다. 운송비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입니다.

홍** 제주 작가회의 홍**입니다. 사실 타 장르 분들하고 교류 기회가 없어서 다른 장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게 1차 참가 목적이고요.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아까 고** 선생님 말씀 중에 예술인 활동 증명 관련해서 통화하기가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도 지금 와 계시는데, 이 업무를 지역 재단하고 나눠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주도는 작년부터 코로나로 문화예술지원금 때문에 예술활동 증명을 많이 신청했어요. 선정하기까지 3개월, 어떤 경우는 3개월이 넘거나 그래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부분은 지역문화예술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계는 불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 우선 지금 겪으신 걸 저도 겪었어요. 전화가 안된다라는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됐냐면, 대표번호는 아무도 안 받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3개월 내내 안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직통번호를 알게 되니까 바로 받고 바로 설명해주더라고요. 어쨌건 기다려야 된다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선인지 알고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전국에 있는 예술인 증명발급 여부 평가를 하는데, 그걸 담당자 세분이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밀릴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진행하는 게 쉽지도 않고, 그러니 **계속 밀리고 밀리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증명증 그거 하나에 모든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결정돼버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작가나 예술인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최소한 전화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 싶어, 계속 컴플레인을 걸어서 알게 된 거죠. **최소한 사이즈는 만들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소위 위원4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는데, 이건 예술위원회 내부의 일은 아니더라도 진짜 공론화가 돼서 개선이 바로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서 업무 과중으로 쓰러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못 받아서 쓰러지는 예술가들도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끝나지 말고 공론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허** 제주에서 시각예술을 하고 있는 허**입니다. 저의 고민이나 이번 토론회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아까 나왔던 이야기의 연장선이 되는 거 같아요. 예술가도 많고 예술을 펼칠 수 있는 장소가 많은데 어째서인지 결합이 되지 못하는 상황, 결국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첫 번째로 조** 작가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제주도에서 사실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트워크 자리를 만들거나 단체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죠. 조** 작가님은 단체와 여러 작가분들과 활동하고 계시고 계속 네트워킹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 작가고 그 안에서도 다른 분야의 예술가분들과 협업하고 싶지만,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문제점을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부족하고 서로 맞닿은 손이 짧아서 닿지 못한 건가. 이게 결국은 한계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그에 대한 보완을 정부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눠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저는 코로나 시점에서부터 작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전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인터넷으로 대체된다 거나. 그런 **정보가 남발되고 있는데, 집합적으로 모이는 곳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내용을 모으거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작가나 기관이나 단체나 공간이 연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코로나로 인터넷 어쩌고 하지만 **결국은 정보전달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지점인 거죠.** 이걸 모아줄 수 있는 활동이나 노력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건 자료를 모아서 집약적으로 볼 수 있는 아카이빙과 정보전달, 그게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저희도 얼마나 전시와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는 공간이 빈다고 하고 또 어디는 작가가 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하고, 이 상황을 뭔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소위 위원2 저 같은 경우 제가 재단을 많이 귀찮게 했어요. 지금 지역 예술가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가뜩이나 이 동네가 서울에서 예술의 불모지라고 불리는데, 다 떠난다. 1년을 씨름을 한 끝에 지지난주에 지역 예술인 모임을 열어주셨어요. 재단에서 오픈 톡방도 열고 모임 공간도 주고, 모임 지원도 하면서 그 모임에 어떤 운영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예술가에게 일임을 한 거예요. 재단이 처음 설립되어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견고한 시스템이나 문화가 있는 데는 그게 힘에 부칠 수밖에 없겠죠. 그 지역에 있는 예술자원들을 발굴해서 아카이빙 한 것들을 예술가들에게 나눠주고 예술가들이 그걸로 창작을 해서 지역에 보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예술재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소위 위원4 지금 젊은 신진 예술가들이 그런 공간에서 공연하기 위한 네트워킹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원받고 있는 공간들이 대체로 전시공간인지 공연 공간인지도 궁금하고요.

김**(제주문화예술재단) 공연 공간도 있고 전시공간도 있습니다.

현소위 위원4 공연도, 공연에 대한 서포트들이 들어가는 거죠?

김**(제주문화예술재단)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애매하긴 한데, 저희는 공간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작가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랑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작가들이 예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죠?

현소위 위원2 저희 지역에서는 올해부터 예술가들에게 무료로 대관해주는 공간을 오픈했어요. 피아노도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그 공간 관리를 시각장애인 직원분이 하세요. 그 정도로 자발적 운영이 가능한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얼마나 잘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래도 그 자체로 예술가들은 반가워하세요. 대관료 부담 자체가 없으니까. 공간이 부족하면 예술가들은 한계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허** 제가 봤을 때 제주는 기관에서 많은 일을 해주고 계세요. 그게 너무 한 곳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닌가. 예시인데, **에서는 교육도 이뤄지고 전시도 이뤄지고, 다양한 게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세분화하고 분산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공간은 교육을 위한 공간, 다른 곳은 공간은 전시를 위한 공간, 공연을 위한 공간 등 나중에 그게 잘 발달하면 협업이나 콜라보를 할 수 있도록요. 되게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신데, **한 공간이나 건물에 집중되니까 작가나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건물색이 너무 강해지는 거죠.** 여기는 한번 해봐서 피하고 싶은데, 혹은 이번 전시와는 어울리지 않는데 하며 다른 공간 찾다가도 계속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공간이 인기가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조**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허**작가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당연히 실현되면 좋은데 스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공간도 제대로 모이지 않는 마당에,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공간으로 들어가는 지원이 정말 쉽지 않아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인 문제라서,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한 공간이라도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생활예술인, 동호회 구분을 짓는다고 하는데 100%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제가 느낄 때, 지금 상황에서 전문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은 저기 어디 멀리 보내는 상황이에요. 시내 안에는 생활예술인들을 위한 지원들이 많아지고 전문예술인들은 여기서도 어떤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의 인프라가 있잖아요. 전문예술인이니까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수 있지만, **자꾸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들의 틀을 너무 빨리 바꾸니까. 그런 부분들이 증폭되지 않는 게 있어서 그런 고민을 기관도 해야 하지만 외부에서도 해야 하고요.** 기관에서도 메인으로 운영하는 데는 잘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해서 꼭지를 만들어 당길 건지에 대한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 저는 서울에서는 원래 극단 생활하면서 연극 연출을 했었고 제주도 와서는 지금 나** 작가랑 다원예술 제작이랑 독립출판사를 하나 차려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 온지는 2년 정도 돼가고 있고 제주도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세대의 예술인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서울에서 하다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 **같은 이름의 같은 사업인데 지역에선 규모가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은 같은데, 같은 예술하는 건데…. 그때는 재단이 다르다는 개념도 없으니까. 나라에서 하는 지원사업인데 신진 예술가 대상으로 했을 때 규모가 3배 이상 다른 게 처음에는 이해도 안 갔어요.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도 제도적으로 개인 사례비 측정이나 그게 안 돼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개선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부차원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제주도 처음 왔을 때 그게 안 돼서 당황했고요.
제가 작년 예술공간**의 상주작가 지원의 수혜자이기도 한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제주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그걸 제가 모르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현실에 맞게 작업했죠. 처음에 여기 와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쭉 검색을 다 해봤었는데 예술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 시각예술 중심으로 지원해주시다 작년에는 전 분야로 확대해주셔서, 저희 작가들끼리는 반갑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기간이 짧고 코로나 때문에 예정됐던 계획이 다 틀어져서 직원분들도 고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 때 훈훈하게 마무리되었고 앞으로 계속 볼 것 같은 다양한 분야 분들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술공간** 작업하면서 작업실에 좋은 컴퓨터랑 장비들이 있으니까. 제주에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그 덕분에 책을 너무 잘 낼 수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엄청 바빴거든요.. 책도 내고 공연도 하고 여기서 자리 잡고 이 사업도 내고, 저 사업도 내고.

올해는 뭐 여건이 갑자기 엄청 좋아진 게 아닌데도 *내가 여기서 살기로 결정했고, 여기에는 이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구나로 시각이 좀 바뀌는 것 같거든요.* 연극 생활할 때도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시선이 바뀌면서 지금은 내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렇다고 안주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거기서 부터가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쌓여온 불만들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감정들이 빠지고 건강하게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2년밖에 안됐지만 자리를 잘 잡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 있는 에너지로부터도 도움을 많이 받고.
저번에 이사장님과 하는 포럼을 다녀왔었는데 거기서도 오늘도 네트워크를 많이 이야기해주셔서 생각난 게 서울에 있을 때 제가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1기였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는데도 거기 직원분들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자체로도 다양한 분야가 모여있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짜주시고요. 1년 사업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시더라고요. 2기 사업 종료됐을 때도 1기까지 모여서 파티를 열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신경 많이 써주셔서 재밌게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앙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이나 **작가 분들 만나보면 다들 서로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자리가 있으면 나오고, 만나고 싶은 의향은 있으신데 그런 자리가 생기는 것도 무겁고 진지하고 그럴까 봐. 꼭 작업이랑 연계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랑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홍** 제가 어쨌든 오늘 지역 간담회 참가하는 입장에서 혹시나 싶어서 회원 몇 분에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건의사항이나 의견 제시할 게 없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뭐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이 문학 파트라 더 그럴지도 몰라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책 발간 사업, 그 정도는 관심을 기울이시는 데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 공모할 엄두를 잘 못 내세요. 문학 파트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도서관 상주작가 사업을 예술위원회에서 하시죠. 주변 작가들을 몇 년간 봐왔는데 도서관 상주작가로 근무를 했던 작가가 없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 작년인가 **도서관에서 상주작가를 지원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서가 작가예요.. 그래서 아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공공도서관 수도 많고요.. 그런데 **왜 상주작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들이 안 이뤄지는지**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도 어쨌든 제주 문학의 집을 겸하고 있어서 한국문학관협회에서 상주작가 관련해서 공문 받기는 하거든요.. 제가 실무를 맡아서 몇 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원서를 열어보면 엄두가 안 나요.. **지원사업 관련해서 서류 간소화 문제**는 지역재단 간담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도서관 입장에서 상주작가를 쓰려고 신청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역할과 업무가 증가할 텐데 제가 도서관 직원이면 신청 안 할 것 같거든요.. 도서관 상주작가를 제주에서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현소위 위원1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서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서 실무 업무를 맡은 분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 업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제주도 안에 있는 여러 도서관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예술위원회가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홍** 작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서관에서 신청을 안 해주면 정말 없는 사업인 거죠.** 도서관에서 상주작가 신청할 수 있게끔 간소화를 해주시던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던가 아니면 일정 부분 의무사항을 둬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현소위 위원3 도서관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게 지원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홍**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데, 제주문학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라 실무를 맡은 제 입장에서는 작가 선정도 힘들어요. 어느 작가를 선정했을 때 단체에서 그 작가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는 민원제기 확률이 100%니까. 근데 도서관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도서관에서 이 사업을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건지 그 여부도 사실 궁금합니다.

예술위원회 간단히 설명드리면 해당 사업은 1차적으로 도서관이 신청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들이 해당 지자체 공무원 소속이고, 거기에 작가인 직원을 1명 추가로 채용하는 개념인 거예요. 작가 분에게 그 8시간의 근무시간 중에 4시간의 근무를 하고 4시간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배분해서 문화예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가 이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국고, 체육기금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역 자체적으로 작가라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본인이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 예상치 못한 환경에 대해 부담을 갖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지자체에다가도 이런 신청이 필요하다고 같이 이야기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부담스러워하는 것까지 체크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뭘 부담스러워하는지, 그 부분을 알면 신청하기도 용이하고 신청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용이할 것 같아요.

문** 저는 음악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 출신이고 오랜 시간 다른 곳에 있다가 제주도에 다시 온 지 6년 정도 됐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우수 기획도 여러 번 했고, 작년에는 지역 양성 프로그램 심화에서 1등을 했고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원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 재단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회적 기업 등 공모가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아르코도 많이 열어보고 있어요. 특별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제약들이 있었지만, 저도 제주문화예술재단 통해서 여러 성과를 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중에 건의사항이나 제안이 있어서요. 제가 준비한 건 건의사항 1개, 제안 2개가 있어요.

저도 음악을 하지만, 음악을 전시 형태로 만들어가면서 서울에서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심사를 가면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매번 왜 제주에서 하지 않고 서울에서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돼요.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물론 제주 안에서 융통되면 좋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지역에 국한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라봉을 제주에서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에 가서 먹어야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는 것처럼 오히려 더 큰 틀에서 보면 예술 생태계의 순환구조가 되기 때문에, 제주에서의 예산이지만 결국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열어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보니까 지역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지원사업을 제주도민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다양한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고 꼭 제주에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가님이 재단 사업으로 서울에서 하는 것도 봤거든요. 가능성을 봐서 저도 '내가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활동했으니 이걸 기반으로 서울에서 좀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도에서 2018년부터 작년까지 굉장히 많은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결국 네트워크의 문제가 됐던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른 예술가들 만나고 싶어 하고, 공간을 통해 영감받고 싶어 하는데, 그냥 만남만 필요한 거라면 그냥 만나면 되거든요. 사적으로 만나면 되는데 공공성을 띠어야 된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요.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이 없으면 그 모임 자체가 서로의 이익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려면 또 개인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참여는 가능하게 하되 적어도 **기획 프로그램, 재단에서 주최한 프로그램 이수한 사람들만이라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걸 기관에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열정이 있거든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기화 돼서 양성 프로그램을 시도했던 심화반이나 기초반 분들이 모여서 공공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마련해주고, 훨씬 더 좋은 생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점이 필요한 부분이 복합공간이 있어야만 자꾸 편하게 들락거리면서 활동하게 되거든요. 서울 가면 동숭동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동네의 아우라들이 있거든요. 제주도도 원도심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원도심이란 곳이 여러 환경들, 다른 환경들이 있어서. **복합 문화공간이 정해져 있다면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공공 프로그램이 계속 있겠지만, 민간도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함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안은 서류에 관한 문제인데요. 서류에 관한 것들이 어떤 건 서류를 잘 써서 통과가 되고, 어떤 건 미흡해서 떨어지는 걸 피드백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작년에 저도 기획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나의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어떻게 키트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너무 유익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예술가들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류에 자신의 예술세계를 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복되는 말을 많이 하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행정인들은 행정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단순한 게 필요한데 어디서 배울 곳이 없기 때문에 실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그 해의 키워드, 비전, 그런 목표치가 있었던 가장 높은 점수의 서류가 있다면 하나 정도는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기준으로 이 정도는 써야, **우리도 서류를 이렇게 써야겠구나 하는 기준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어려워하시거든요.** 콘텐츠나 이런 마케팅 쪽은 예시가 많이 노출되어있는데 반해서 예술 쪽은 부족해요. 재단이든 다른 곳에서든 그 해 우수 기획이라던가 하나라도 올려주시면 그걸 기반으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하나는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사업을 보면서 1차, 2차, 기초, 예술, 지역 양성, 특성화 지역 마을이 있고, 공간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심사위원들이 오시지만 음악 파트는 한 분이 계속 오셨어요. 제가 지원하지 않아도 관심이 가기 때문에 보게 돼었고, 모든 심사평은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같은 분이 음악 파트의 몇 백명의 서류를 봤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물론 시간을 두고 몇 년의 루틴이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월부터 5월까지 3~4개월 본거거든요. 그 사이에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급증했기 때문에 적어도 300~400개는 됐을 텐데. 그 한 사람의 생각으로 제주의 전반적인 음악 파트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다원예술리부트를 신청하긴 했지만 새롭게 심사제도가 바뀌어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를 해요. 그런 절차의 시도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보고, 서로의 기획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었거든요. 물론 행정의 많은 희생이 필요하긴 하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소위 위원4 처음 말씀 주신 이건 왜 제주에서 안 하고 서울에서 하려고 하는지 물었다는 게 예술위원회 사업인가요?

권** 제주 사업이었고, 우수 기획이 2년 차 사업이었거든요. 1년 차는 제주도에서 했고, 2년 차였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2년 차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서울에서 기획을 하고, 좋은 롤모델을 만들어서 제주에서 하고 싶었던 거죠. 우선 심사를 받을 때, 인터뷰할 때 많은 분들이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심사위원을 부를 때, 심사위원 풀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다원예술이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활동하고 계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열려계신 분들이 오셔서 피드백이라도 주시면 도움이 될 텐데 오셔서 왜 서울에서 하려고 하냐, 이런 말을 반복하니까. *자기 예술세계를 더 확장하고자 하는 건데 서울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리고 지원사업 내에서 지역에 대한 자체 제한은 없었어요.

김** 저는 김**이고, 나**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기획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술가는 창작을 하고 실연을 하잖아요, 공연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원서를 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난 창작만 하고 살자 하면서,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기획 안 하는 예술가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는 노** 님이 기획 쪽을 더 하고 정리하는데 그 기술, 그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워요. 기획이라는 말이나 정산이라는 말 들으면 겁부터 나고요. 그걸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게…. 여기에서 하루 살지, 이틀 살지 모르는데, **창작을 하고 공연하고 실연하는데 에너지를 더 쓰고 싶은데 서류 공부를 해야만 공연을 할 수 있고, 창작을 할 수 있고,** 이걸로 밥을 벌어먹으면서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어.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어려워요. 아까 네트워킹, 다시 말이 나오는 거 같아요. 기획하는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기획하는 분들이랑 조인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하자면 사례비를 정확히 책정할 수 있어야 하고 기획자, 공연자, 공연자도 공연을 하고 작품을 써서 사는 거니까 당연히 사례비는 들어가야 합니다.

현소위 위원2 본인 사례비 책정 안 되나요?

김** 되긴 하는데, 조금 됐던 게 최근에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 와서 할 때는 안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서울 문화재단에서 첫 책 발간 사업을 했는데 그때 1,0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게 책만 내면 돼요, 책 5권. 그게 내 결과물이니까 따로 정산할 게 없어요. 하다못해 소규모의 금액이 지원이 되든, 공간을 지원해주시든, 활동비를 주시든 어쨌든 예술가는 공연을 하고 책을 내고, 연극을 올리니까요. **결과물이라는 게 꼭 나오는 거니까. 그걸 영상으로 찍든 어쨌든 그게 제일 최고의 정산인 거니까 그런 식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현소위 위원3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연구사업인가요? 그게 시상금 개념이라 정산을 안 해도 돼요. 지원금은 전체 정산을 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김**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건 무리일 수 있겠지만, 소규모라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공연하기 위해서 위로 가고, 전시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아까 한라봉 이야기하셨지만, 한라봉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한라봉이 나와야 하잖아요. 제주 햇볕

받고, 제주에서 바람맞고, 제주에서 잘 키워서 맛있게 돼서 이걸 가지고 한라봉이 서울로 가든, 외국으로 가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익을 수 있도록, 제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은 한라봉도 있는 거니까. *뭔가 제주에서도 꾸준히 나가서 공연하고 들어오고, 비행기 안 타고 그럴 수 있는….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순수한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해봤어요.* 서울에다가는 지역에서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역에 살아도 상관없이 무방하게 서울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섬이고. 정부차원에서도 지원금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해도 무관하게, 많이 할 수 있게.** 이쪽에서 많이 돌아갈 수 있게. 좀 더 독립, 인디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조**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에 할 말이 많은데요. 그냥 넘길까 하다,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게 분명 있어요. 지역의 유동인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오고 가고 하는 템포의 호흡이 위랑 분명히 다르거든요. 사실은 저도 청년작가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태계가 공존하려면 사실 권력화가 되면 안 되는 데 지역이다 보니 권력화가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경계하고, **기존 권력화돼 있는 단체가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들과 끊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대표성을 띠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사실은 주목받는 단체로서의 고민인 거고, 예를 들어 지금 허** 작가 나이대 작가들, 굉장히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간단계, 그 윗단계, 이렇게 편하게 뭔가 같이 해가면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건데. **1차적으로 섬이라는 갇힌 반경 안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더 큰 문제는 유입된 인구랑 지역에 고정된 인구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원론적인 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희석되는 분위기면 상관없는데 그게 완고하게 여기저기 벽이 있는 상태에서 모여서 '만들어 보세요' 하는 건 정말 쉽지 않고요. 재단에서 몇 년 전부터 토론회도 하고 이걸 풀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런 부분을 머리 맞대고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작가들 인력풀(Pool). 사실 제주도가 섬이어서 장점인 것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거든요.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들이 스텝 바이 스텝이 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각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나오는 작가분들 인력이 없어요. 점점 줄어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남는 작가들이 있고, 기획해주신 분들이 있고, 그런 걸 재단에서 아트 노크라는 사업으로. 왜냐면 그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했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의 담론이 있고, 여기서 토론하고 뭔가 하나 플랫폼을 만들고, 뭘 해보려고 해도 동력이라는 게 그걸 추진하는 재단 내에서도 인력들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예산이 받쳐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허** 작가 이야기한 걸, 처음부터 그렇게 간다면 좋지만 그 전 스텝이라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서로 평가를 다시 하고 보충해서 가야 하는 게 있어요. **시작할 때 해보자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가더라도 이게 다 사라져요.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고요.** 전국단위로 활동하다 보면 어떤 데 가입하시면 작가 인력풀이 전국에 오픈됩니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중간에 있었어요. 그런 것도 서울에 있는 작가들에게 물어보면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 딱 붐업할 때만 눈에 보이지 사라져요.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고 우선 가입부터 하세요, 우선 뭐부터 하세요, 그 플랫폼이나 어떤 공간을 통해서 엮어져서 가야 하는 것들, 힘을 갖고서 끌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국구로 해도 힘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필요한 거고요. 특히나 여기서는 기획자라는 인력풀이 있지만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펼칠 공간도 없어요. 본인이 운영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작가도, 저도 1~5월 작업을 거의 못했거든요. 작은 단체 대표니까 기획서 써야 되고, 떨어지고 재단에 이걸 계속하느라고 작업을 못해요. 그런 고민들을 왜 하냐면,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으면 나는 내 작업을 하고, 내걸 계속 올리다 보면 본인의 기획에 맡는 사람과 컨택해서 같이 재밌는 전시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역량을 같이 늘려 가면 좋은데 기획자는 기획서 쓰느라 바쁘고 작가도 기획서 쓰느라 바쁘고.*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 늦어졌잖아요. 지금 5~6월에 사업이 다 시작됐는데 11월에는 끝나야 정산을 하는데… 이게 과연 생산적인 행위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 범주 안에서 재단에 저희가 요구할 게 있고 지역의 특징들을 이해하셨을 때 위에서 큰 틀에서 끌고서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허** 조** 작가님 말씀 이어서 비슷한 고민인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지역에서는 소액 다건 형식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중앙정부 사업밖에 없는 구조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바쁘고. **그렇게 연초에 몰리면 새로운 걸 기획한다기보다는 기존 상황에 맞춰서 이어서 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창작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중앙정부랑 지방정부의 사업기간이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없는 건가요?

현소위 위원1 예술위원회는 올해 10월에 정기 공모가 나갈 거예요. 비율상으로 따지면 정기 공모가 종합적으로 나가니까 덩어리가 많죠. 근데 예술 현장에서도 너무 몰리는 것도 있고, 별도 공모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정기공모 외에 별도 공모 비율이 35% 정도는 되거든요. 배분해보려고 노력은 해보고 있으나 저희의 별도 공모, 정시 공모 비율과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른데 각 지자체 공모 시기를 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광역, 기초 문화재단끼리 협의체는 있어요. 그런 협의체 단위에서 그런 사안들이 의제화가 된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쉽지 않고, 오히려 중앙이나 지역 단위에서 별도 공모를 시기별로 잘 배분하는 핸들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소위 위원4 현장소통 소위원회가 제주까지 온 건 지역 현실에 맞는 고민들, 섬이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을 더 듣고 싶어서였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당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여기가 제주기 때문에 이주하는 분들, 원래 계셨던 분들의 갈등 해소라든지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조** 사실 저는 3지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면 제주도 출신이지만 부모님이 여기 분이 아니고, 여기서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여기 들어왔더니 섞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서울에선 섬사람이고, 여기선 육지. 그랬을 때 여기서 작업을 해야지,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양쪽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섞이지 못하는 여기 작가들이랑 작가회를 만들어서 하고 사실은 지역 작가들하고만 작가회를 해야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가는 이유는, 절대 못 들어와요. 부담스러워서. 왜냐면 저만 제주대 출신이 아니고 다 제주대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일을 잡고서 집행부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분이었는데 위에서 공부하다 들어온 분들, 우연히 왔는데 좋아서 그런 분들이랑 어떤 매개되는 연결고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나마 섞일 수 있었던 건 저의 의지도 있었지만 섞일 수 있는 공통분모가 조금이나마 있다는 건데, 그 부분마저 없기 때문에 서로 데면데면하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아는 작가님이 정도 이상으로 더 발전되는 단계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기와 2기,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얼굴을, 거의 대부분 처음 뵙거든요.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시각 베이스 빼고는 다 처음 봐요. 별로 크지 않은 필드에서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게 빤한데, 그런데도 스쳐 지나가지도 않았다는 게 신기하고요. 사실 이곳 풍류 공간 생겼을 때, 재단에서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 고민을 다시 해야 하는 시점 같고,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게 같은 **하나의 공간, 협업에서 자연스럽게 스치는 것부터 돼야 하는데 명료하게 어디 가면 뭘 할 수 있다가 없어요.** 미술관은 본인들이 기획하고 재단은 지원사업을 하고 본인들 공간 운영은 하지만 그것들도 사실은 들어오는 작가들이 있고요. 일부러 막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있어서, 계층마다 이야기를 듣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 저는 진짜 제주도에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활동하면서 느낀 건 제주도 사람은 다 알아요. 활동을 하다 보면 부르는 데만 부르고. 여기 오신 분들도 제주도 분이 별로 안 계시고 타지 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잖아요. 원래 제가 처음 들어갔던 팀에 제주도 분이 저랑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주도 분들은 모임을 만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타 지역 분들은 모여서 으쌰 으쌰 해보자 하세요. 지역의 특수성을 더 잘 아는 건 도민인데, 주도를 안 하시니까 이질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팀을 하다 보면 확실히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훨씬 많으시고요. 저희는 그냥 있으면 선생님이 '너 와서 연주해라',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팀 필요한데 팀 좀 만들어라', '우리 팀 어떻게 만들어볼까'해서 제주대 동기, 선배, 후배 해서 팀을 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까진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은 안 나는데, 이 이질감을 해소를 하다 보면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곳에 가면 누굴 만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제주도민인 나도 선생님이 불러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동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동화구연에 맞춰서 내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거길 가볼까 하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도민으로 뭔가 시도하고 싶은데, 지나가면서 팸플릿 같은 것도 보면 몇 회 정기연주회, 합창 이렇게 이미 했던 공연들이 많아요. 저도 시각디자인 전시를 가고 싶었는데, 전시를 좋아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면 알긴 하지만 팸플릿이 걸려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시도하고 싶은데 내가 정보를 모르는 건지, 오히려 육지에서 오신 분이 여기가봐 하고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분들은 또 이 정보를 어떻게 아시는 건지, 도민 입장에서는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이질감이 줄어들게 되면 네트워킹에 관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만나고 싶은 쪽이긴 하지만 솔직히 모든 도민이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안주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으로서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재단에서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고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타지 분들도 와서 텃세를 안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이야기했을 때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관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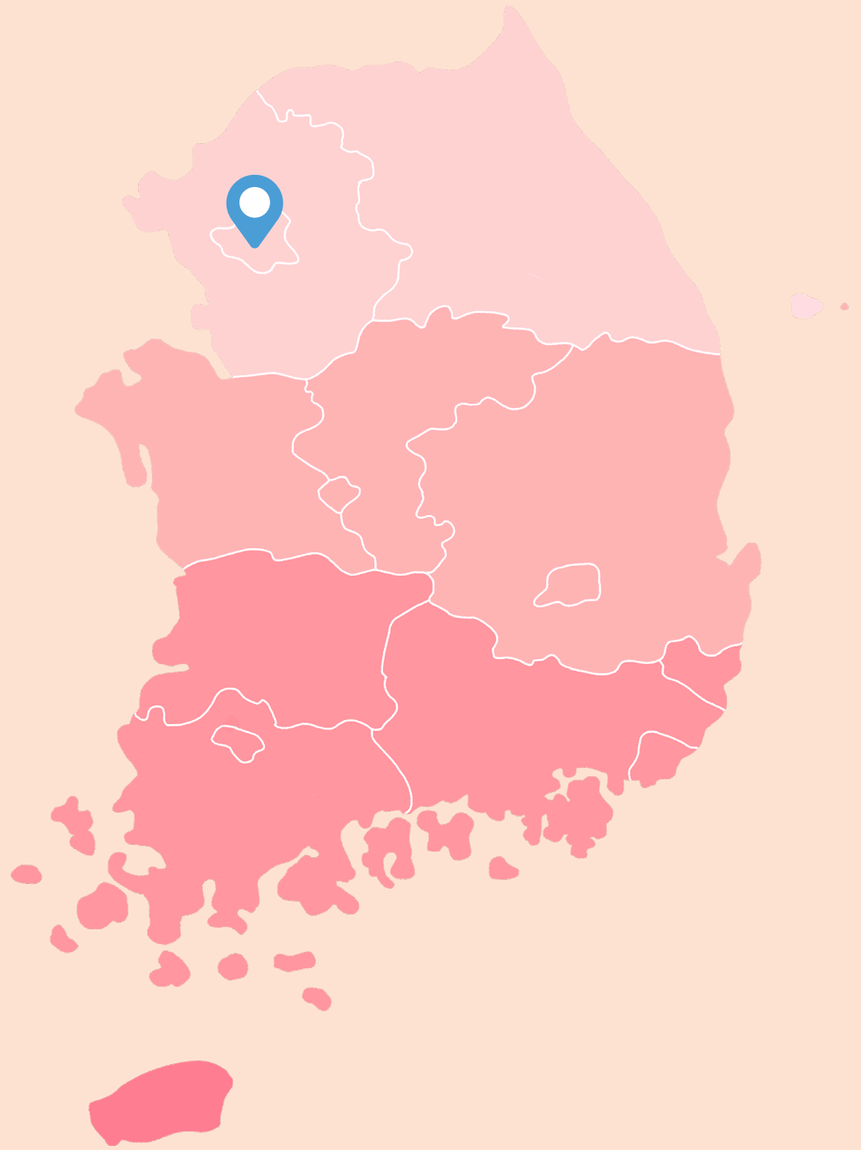
조** 그 부분을 사실은 아트 노크에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본인들이 아웃풋 내는 걸 올리고 1년 차 사업을 하고, 2년 차 사업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면, 내가 어떤 기획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거기서 어떤 게 메이드 되고, 그걸 재단에서 사업으로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야기했고요. 시각 베이스만 국한하자면 저는 이런 작업 할 건데 예산이 이만큼 듭니다. 그럼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 기업이나, 돈을 재단 지원금이 아닌 개인이 후원을 하고 매칭을 하는 것까지 다 고민을 했는데 이게 실현이 안돼요. 오프라인에서 편하게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아이디어를 붙이고 붙여서 우리가 사업을 만드는 거죠. 역 제안을 하고. 그런 예산들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 분명 가능해요. 왜냐면 몇 안되니까. 섬이 갖고 있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데, 정말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라가는 것도 예를 들어, 거기서 만약에 뭔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 사업을 서울에서 하고 싶으면 운송비를 다른 예산에서 당겨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재단에서 담당자 선생님이랑 아트 노크를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실은 하면서도 고민이었던 게 작가들이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못 올려요.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내겠어요.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기 것 이미지를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도 이걸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황당한 게 제 나이 또래였거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예산에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그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풀려서 일 년을 보내고, 거기서 못 버티는 사람들은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현소위 위원1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 갔을 때랑 제주지역은 확연하게 딱 나오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예술가 네트워크로 응집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부각이 안 됐는데요.** 오늘 들은 이야기, 기록한 이야기 중에 정부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게 지역문화진흥법상에서 풀어내야 할 부분일 수도 있고 다른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풀어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술위원회 단위에서 거시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부분들은 공개토론회라든지, 저희가 온라인 공론장을 올해와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거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심화시켜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fin.

서울·경기·인천권 — 서울

2021. 6. 9.(수)
아르코미술관 3층



수도권 간담회는 예술인 사전신청 인원이 가장 많았기에 기대가 컸으나, 아쉽게도 당일 불참 인원도 최다였다. 비교적 수도권에서는 다양한 간담회나 토론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간담회의 필요성이 덜 느껴진 것 같았다. 문화예술 기관의 간담회 자리에서 토로 이후, 별다른 개선이 없다는 점 때문에 간담회 형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간담회 이후 후속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어 했다. 한편 수도권에는 다양한 예술인들이 몰려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 얘기되지 않았던 장르, 융복합 기술 등 새로운 주제를 논의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가 적은 대신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볼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다.

주제	주요 의견
지역 창작활동의 어려움	○ 예술과 기술 접목의 방법 및 교류 네트워크 기회 확대
지원사업 관련	○ 실제 예술과 지원 신청서 간 괴리 - 예술 창작·활동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다른 층위로의 보완 방법 - 예술지원사업 행정의 복잡성 문제 ○ (단발적 지원사업의 문제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 필요 ○ eL나라도움 사용의 어려움 ○ 창작에서 기술 중심으로의 변화되는 예술지원 정책에 대한 아쉬움
청년예술가에 대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	○ 신진예술가의 어려움, 경력 중심의 신청서 평가 문제 - 신진예술가들의 높은 진입장벽, 수혜자 지속 수혜에 대한 문제
기타	○ 예술인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 지역(서울) 예술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 ○ 창작과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및 인식 개선 ○ 국가 정책에 포섭되는 예술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 ○ 예술활동증명서, 창작지원금 사업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 증빙 서류의 복잡함 및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 기회 확대 - 예) 하우스밴드 활동은 단순 음식점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인해 예술 활동 증빙 불가 ○ 지원사업이 아닌 국가 구입으로 개념 전환 - 국민의 기본권인 문화향유권에 대한 국가 책임 ○ 예술계 담론을 쌓아가는 자리 필요 - 예술계 미래사회에 대응 방안 및 정체성, 가치관 형성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현장소통소위원회(이하 현소위 위원)

현소위 위원1 이번 지역간담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주요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 문화 분권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저희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만큼 예술가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싶으나, 오늘 한 번씩은 의견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간략한 소개를 함께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 저는 미술을 전공했고요. 현재 문화정책과 관련된 활동하고 있는 김**이라고 합니다. 원래 오늘 참관하려고 왔는데 참여까지 하게 됐습니다. 간담회 자리여서 준비를 해와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단상이나 느낌 정도로 말문을 띄우겠습니다. 이런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간담회 자리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날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예술인과 문화 행정 간에 의사소통하는 기구나 창구나 통로 같은 게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예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화행정기관이나 기구들이 귀 기울이려고 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피로감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실제로 예술인들이 발언하거나 의견을 냈던 내용들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 실체화 과정이 잘 공유되지 않거나 결과로써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의 예술인이나 현장에서의 피로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지역간담회 또한 어떤 형태로 결과가 정리되고, 추후에 어떤 형태로 아르코에서 이뤄지는 사업에 반영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번이 9번째로 알고 있는데, 각 회차별로 지역에서 나눠 간담회를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간담회 앞부분에 붙는 표현이 '지역'이라는 개념인데 실제로 지역에 특화된 지역문화, 지역의 특수성이나 고유성이 반영된 얘기들을 오늘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들고. 특히나 서울형, 서울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 예술인 플랜이라고 예술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랜이 수립되면서 이른바 서울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실제로 서울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술인뿐만 아니라 현장 전반에서도, 그리고 지원사업이나 정책에서도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역간담회 혹은 서울에서 하는 간담회라고 했을 때, **서울에서는 실제로 어떤 의미와 정체성을 가지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은 자치구가 비수도권 지역의 시와 맞먹는 규모의 인구를 갖고 있잖아요. 보통 한 자치구에 40만, 50만. 이러한데. 그런 맥락에서 자치구도 서울 안에서의 또 다른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서울특별시라는 광역단위 지역 포함해서 행정자치구 단위의 예술 활동은 어떠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안고 오늘 지역간담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저는 음악을 하고 있는 안**입니다. 이름이 여자 이름 같아서 오해를 많이 받기는 합니다. 일단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잠깐보다 보니까 사전 의견 접수 정리에 신진 예술가의 어려움 하고,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요. 일단 먼저 지원을 했었는데, 근거 자료나 제출이 미흡하다고 해서 반려가 된 뒤에 신진 예술인 지원사업이 또 나와가지고, 이건 되겠다 싶어서 지원했거든요. 아,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단지 서류로서 증명될 수 있는 것 말고 활동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직접 출연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증빙자료가 성립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위아츠라고 해서 오픈 카카오톡 방마다 1,500명씩 있는 곳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버스킹 쪽은 10년 이상 연주했는데도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실제로 거리공연이나 버스킹 하시는 분들은 자료 제출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려면 코로나 상황이 끝나야 하는데** 그에 대해 이야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 철학 공부하고 있는 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동화 쓰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자리를 자세히 알고 참석한 건 아닌데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기도 하고요. 예술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한다면, 제가 활동하면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다른 분들이 뭐하는 분이세요?라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해를 잘 못 합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과 저의 직업은 관계가 없는데, 항상 제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느냐에 따라 저의 정체성이나 직업을 이해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굶어 죽을 걱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다, 언제든 제가 하는 활동을 놓는 순간에 저의 직업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요. 제가 바라는 게 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술이라는 것이 삶을 살아내는 힘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창작이나 예술 활동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삶을 다른 분들이 가치 있게 인정해줄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인식이 많이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저는 김**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선배님들의 사전 접수 의견이나 제가 궁금해하던 것들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저 혼자 장르에 VR이라고 쓰여있는데, 제가 대학교를 포함해서 10년 동안 원래 페인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워낙 초현실적인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에 메타버스, AR, VR, 이런 기술과 예술을 융합해서 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처음 VR 세계를 접했는데 보니까 무궁무진하게 예술이 기술과 융합해서 이미 서양권에서는 관련 전공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해보고 싶어서 지금은 잠깐 페인팅을 접고 AR, VR에 관련된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이번에 아르코에서 예술과 기술 융합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술가들은 기술과 접목을 시키고 싶어도 해당 기술의 개발자나 기술적인 면, 필드에 계신 분들을 잘 모르니까.** 그분들과 어떻게 연결돼서 작업해야 하는지, 그분들이랑 하려면 인건비가 꽤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거든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빔프로젝터나 미디어아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질문이 아마 지역 창작활동의 어려움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미국을 가서 9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젊은 작가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선배님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문**

저는 회화 일러스트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이라고 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여기 참석하게 됐는데요. 제도에 불만도 좀 많고 해서 말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고 직설적이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사전 의견에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예술인인데 신청서로, 글로 나를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정확하게 기승전결로 보여줘야 하는 게 어렵고, 또 e나라도움이 뭔가 직관적이지 않고 너무 불편합니다. 그것조차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UI가 직관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지원사업을 하면 우리나라는 성과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지원했으니 1년 이내에 콘텐츠나 이만큼의 성과를 내놔라.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예술은 장기적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 성과가 드러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 한번 지원자를 뽑았으면 후속 지원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년 지원사업을 하는데 매년 새롭게 해야 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옆에서 AR, VR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좀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흐름에 따라 많이 바뀌어서 요즘 **지원사업이 AR, VR 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책, 물론 중요하지만, 콘텐츠가 꼭 기술로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이 그렇다고 문화예술도 계속 융합 쪽만 지원사업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저도 예술인이지만 그런 개발자들 인맥은 전혀 없어요. 제가 지원 사업할 때 그런 사람 섭외해서 협의해서 지원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애초에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관계자분이 와계신 것 같은데 여기 사업도 불만이 많습니다. 먼저 창작지원금이요.. 가족의 소득이 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작인이 소득이 0원일 수도 있는 건데, 부모님이 생계비를 버시면 이건 지원을 해도 못 받는 구조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고요. **예술인은 가난해야 지원해 준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살짝 기분도 나쁘고요.** 그리고 파견기관 지원사업(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추정)도 떨어졌는데 선정기준도 잘 모르겠어요.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들이 내놓은 심사평을 봤는데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올해 심사평 내용을 봤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술인들이 너무 자기 경력을 어필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아니, 당연히 어필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사업 받으려면. 그런 부분을 심사평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쉽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파견 사업을 하실 거면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매칭되도록 하고 매칭이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

저는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

창작지원금을 준다면 창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서를 봐야지 그 사람의 소득과 가족의 소득을 판별해서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술가는 가난해야 이런 걸 받나?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창작지원금인데 왜 가족의 소득을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소위 위원2

그게 원래 긴급지원 성격으로 나왔던 건데, 이름만 창작지원금으로 바뀐 거지 사실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에 처한 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드리자는 취지라서 중위소득을 따지는 게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직계 가족을 다 아우르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은 배우자랑 본인까지, 자제도 안 넣어요. 본인이랑 배우자 정도만 따져서 드리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소위 위원3

제안 속에 가장 많이 포괄된 것은 예술인은 누구인가, 예술인 증명 절차와 요건에 대한 회의,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 시행상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이것에 대한 필요성과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 어떤 편향성. 이런 우려에 대한 지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창작지원의 방안, 대안까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논의들을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사항으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부분의 제안이 겹쳐서 나온 예술인의 정체성과 그걸 증명하는 현행 제도의 어려움, 복잡함. 이런 거에 대한 대안까지도 의견을 주시면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안해주신 예술인 증명에 대해서 예술인은 누구인가. 그것이 꼭 직업화되는 게 바람직한가. 또한, 예술인 증명을 성과나 기존 서류 요건으로 객관화시켰을 때 거기에 제외될 수 있는, 실제 증빙할 수 없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의 미흡함. 이걸 받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이런 걸, 직접 제안은 하지 않더라도 장르별로, 또 활동 현장에서 느끼신 걸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술인 증명 제도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정리 너무 감사합니다. 와닿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인 증명을 보면, 팸플릿이나 자기 출연자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미술 쪽에서는 전시회 날짜, 장소,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나온 서류가 동봉돼야 하거든요. 함께하시는 분들 서류를 작성해서 넣어드렸는데 그분들은 다 됐는데, 저만 안됐더라고요. 접수할 때 그런 내용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문서로 남지 않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사진이나 현장에서 공연장면이라던가, 요즘은 조그만 그림판으로도 그릴 수가 있으니까 동그라미로 자기 이름 체크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그런 것도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소위 위원1 저는 대중문화에서 배우고 활동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예술인 증명을 받았습니다. 대중문화는 계약서를 많이 안 쓰기도 하고,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촬영 장면이 나오는 화면을 캡처해서 증명하기도 하고요. 공연했던 것은 팸플릿에 저의 이름이나 사진을 증명해서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중문화예술인은 인증 기간이 3년으로 나옵니다.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다른 분야는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기준일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소위 위원3 지금 말씀하신 예술인 증명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아주 복잡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하는 데 지원은 별로 없더라고요. **현장에서도 초기에는 예술인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졌는데, 이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예술인 증명을 하나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안된 내용 중에 보면 성과 중심, 전시회 몇 번, 작품 몇 개. **사실 이것은 활동 성과가 높은 분들이 유리한 제도인데, 처음 진입하거나 신진의 경우에는 실적과 성과가 부족하죠.** 이러면 정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분에게 더 지원하고, 정말 어렵고 새로 출발하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지원제도가 되는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무엇이 좋을까 한번 여쭙습니다.

현소위 위원4 증명에 대한 이슈가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신진 예술가 증명이 개선됐거든요. 특례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전문적 예술 활동 경험 1회 이상, 사실 그 기준 때문에 진입하는 시기에 예술인들이 증명받기가 어려웠던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됐거든요. **대학 생활하면서 진행했던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새롭게 설계할 것인가는 더 고민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명보다 예술인 복지재단이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재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사는 문제들이 비슷하고 먹고사는 거나, 돈 버는 거나 집이나 어떻게 할 것 인가가 고민인 건데, **사실 예술인들은 대출이 거의 안 되잖아요. 프리랜서 형태로 되어 있고,** 학교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정부 정책, 부동산 정책도 사금융으로 연계해서 풀리는 거니까. 부분적으로 예술인 증명을 통해서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해주기는 하지만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야 되나. 새로운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은 들었었던 거 같아요. 최근에 사례로 재밌게 봤던 게 코로나 상황에서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예술인들에게 대출을 해줬거든요. 재단이 신협과 연계를 해서 예술인들에 대해 보증을 대신 서주는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공공정책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걸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주어진 복지가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복지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은 하고. 세 번째는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소위 위원5 예술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예술인이 누구냐 했을 때 국가 정책상으로는 등록한 사람이 예술인이다. 이런 개념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예술 활동을 하는데 국가 정책에 포섭돼야 예술인인가? **그런 제도는 계속 등록하고 증명해야 하니까. 자꾸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국가 정책에 포섭되는 거예요. 국가 정책이 이끄는 대로 예술의 방향이 끌려가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복지재단이 등록 예술인 기준으로 복지사업이 펼쳐지지만, 번외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찾아서 그 부분도 소외되지 않고, 포섭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노** 저는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전에 예술인 증명을 받았고 2년 동안 군대 갔다 왔습니다. 지금 다시 재심사 들어가서 지원하고 있는 중인데 군대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작품을 낸 게 2곡이 있어요. 1곡이 모자라서 못한 경우인데, **저는 저녁마다 하우스 밴드 활동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계약해주실 때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계약서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걸로 돈을 벌고 있는데도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예술인에 대한 계약이 없으니까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애매한 상황이 되고, 보완 요청이 와서 보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로는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에는 팸플릿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매주 월요일만 빼고 매일 저녁에 하는 하우스 밴드 연주라 따로 팸플릿이 없거든요. 이런 애매한 상황들인 경우에도 증명이 수월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소위 위원3 저도 공공기관에 민원 넣을 때 가장 짜증 나는 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쪽이라는 말인데, 예술인 증명에 대한 논의는 더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고민과 문제들은 현장소통 소위원회 장도 있으니까 필요성을 크게 공감했으니 이후 논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창작지원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제안 중에 보면 정산의 문제, 당사자가 아닌 가족의 재정적 상황이나 이런 걸 포함하는 문제, 심의위원 제도의 신뢰성 이런 걸 포괄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 e나라도움이 참 비직관적인 시스템인 것 같고요. **일단 저도 지원사업 볼 때 e나라도움이면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예술가 입장에서는 수치나 시스템이 익숙지 않고 남들보다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 직관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e나라도움 들어가 보긴 했는데 이상한 것까지 세세하게 선택을 해야 하더라고요. 예술가들을 위한 직관적인 시스템으로 개선되길 바라고, 차라리 워드나 한글로 지원서 받았던 때가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산도 모르겠어요. 아르코는 안 지 얼마 안 돼서 받아본 적 없는데, 정산도 e나라도움이면 까다롭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개선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술위원회1 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보조금법의 전반적인 걸 하더라도 정부**

부처의 개별적 특수 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화 분야의 예외를 둘 수 없을까. 전반은 아니더라도 개인 창작자 지원에 대해서 정산을 안 받는 방법은 없을까. 예외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보조금법 상으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침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각 중앙부처의 장이 만들 수 있다, 혹은 문화부 장관이 만들 수 있다면 문화부가 이런 예술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지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문화부도 부담스럽겠지만 어쨌든 기재부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문화부에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법제화 하는 방법들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술가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 보조금 정책이 맞는가. 그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순회사업 같은 경우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정책으로 예술활동을 일반 국민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술활동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예술 현장의 예술가들이 주체가 되고 국가가 보조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예술가로부터, 말하자면 그런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작품을 사서 보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정당한 예술가의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런 활동을 보조사업을 통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구입을 해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이라는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져야지 왜 민간 예술가들이 책임지는 구조인가.** 보조사업이라는 건 주체가 민간이거든요. 이 개념을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계약금을 주고 정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 대한 변화가 중요하지 않겠나.**
아까 보조금법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의 한계를 그 제도 안에서 푸는 방식과 우리가 하는 예술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속에서 정책적 변화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유사사업을 보니까 청년수당에선 교육을 시킬 때 수당을 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조금이 아니라 장려금 형태의 지원제도를 만들 수 없을까. 일반적인 지원사업을 바라보는 게 기존의 틀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치를 다시 확인하면서 변화시키는 이런 고민들이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확산하고 국회까지 가서 법제화까지 가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정산에서 출발했던 고민들이 그런 식으로 확대돼서 본질적인 문제까지 제기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문**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긴 합니다.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하고 싶어하는 예술가와 기관들이 서로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도록하고, 매칭이 이뤄지면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현소위 위원6 아까 복지재단 심사평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 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심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떨어졌는데 심사위원 명단 보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작업을 어필한다는 걸 심사평에 써놓으면 모순되는 건데, **심의를 주관하는 운영팀들이 심의위원들에게 그런 건 제대로 한번 주지시키고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심의받는 사람보다 지원서 내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고, 심의하는 사람들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저는 심의 관련은 아니고 아까 시스템 관련해서 갑자기 질문이 생겨서요. 서울문화재단은 서울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이라고 자체 지원시스템을 개발해서 3월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아르코도 그런 자체 시스템 개발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예술위원회2 원래 저희가 갖고 있던 시스템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인 NCAS이고, 서울문화재단은 아마 최근에 만들어져서 명칭을 정확히 모릅니다만 근본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서울문화재단 사업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보조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다 국비로서 문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 비용은 다 e나라도움을 써야 되고,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저희를 통해서 가는 예산은 e나라도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마 모든 사업이 서울문화재단 시스템으로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안** 저도 이 자리에 오게 된 큰 요인 중 하나가 보통은 젊은 청년, 아주 굉장히 영하신 분들이 예술사업의 주 타깃이 되고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함께하는 악단이 있는데, 거기는 다 중장년층, 경찰 근무하셨던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서 음악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 보면 87세도 있고. 평균 나이가 일흔이 넘습니다. **대체로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보면 시니어를 위한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는 그냥 현금으로 받았고, 근거 그런 것도 없어요. 저도 e나라도움을 한번 해보니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여하튼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고령층이 굉장히 많아질 건데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60년 이상을 음악하고 연주하고 살았는데 누가 나를 평가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소위 위원6 혹시 한국문화원연합회라고 아시나요. 문체부 산하기관 중 하나고 마포에 사무실이 있어요. 사실 예술위원회나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은퇴하신 분들의, 취미보다 생계로 하는 직업 예술인을 위한 지원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오히려 전문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은퇴하고, 취미활동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하는 시니어 지원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실버스타 가요제도 있고 동아리 전체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정산도 하고 있어서 그쪽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원연합회를 검색해서 보시면 거기에 필요한 지원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고, 지역별로 다 있어요.

현소위 위원3 창작지원은 앞서 다른 지역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던 현안이긴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 이야기 나누기 어려워서 세 번째 주제인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개선이나 어려움, 고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들이 산업 측면에서의 예술성 이런 데서 규모를 키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추세인 기술적 역량과 예술의 콘텐츠를 결합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드신 기존 예술가들은 뛰어난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기술 역량 때문에 배제된다거나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괄해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 **VR, AR 쪽 사업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추세이고 그러려니 합니다만 그렇다면 창작 쪽도 지원을 계속 똑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작 지원사업은 점점 보이지 않고, VR, AR 쪽 사업만 눈에 들어오다 보니 콘텐츠 창작 예술인으로서는 지원사업 받을 게 없네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없어지는 게 눈에 너무 보이니까요. 정부 정책 흐름상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창작도 같이 키우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고요. 저는 창작하는 시각 예술인이지만 VR, AR 이걸 하고 싶어도 개발자를 찾기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나 어디서 도움을 줬으면, 뭔가 매칭을 도와준다든지 창작자와 개발자를 뽑아서 매칭을 시켜준다든지 그래서 새로운 융합창작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지원사업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 저도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국가 훈련 지원금을 받는 그런 교육을 6개월짜리로 듣고 있었어요. 이번 달에 수료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공모전에 지원할 때, 실무에 계신 분이 선생님으로 오셔서 제가 그분한테 요청을 드려서 공모전 제출할 수 있었던 거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맥 부분에 있어서, 전 아날로그 감성이라 되게 그런 기술자 분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직접 마주치지 않는다면 구하기도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모전 지원하면서 그 지원금의 50% 이상은 기술비로 쓰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기술자분들이 가져가는 금액은 프로젝트 단위 기간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예술가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공간 대여비 이런 걸 제외하면 정말 빠듯하게 작성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에 약한데도 재정을 나누다 보니까 되게 빠듯한 예산으로 기술과 협력해서 미디어아트를 만들어내라. 이게 트렌드니까 이렇게 해봐라. *저도 10년 동안 유화로만 그림을 그렸는데 갑자기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발전하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자들과 예술가를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술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예술에 관심이 있느냐가 예요. 아티스트들이 난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난 철학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기술자들은 기술만 배운 분들이라서 인풋 아웃풋이 뚜렷하거든요. 그분들과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 연결해서 매칭을 시켜준다고 해도 기술자와 아티스트의 커뮤니케이션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매칭됐어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돼야 하는데, 만약 그게 공모전이라면 짧은 기간에 얼마나 작업이 진행될까,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닐까. **기술을 통해서 예술을 보여주고 싶은데 결국 기술자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공모전 지원하면서 느꼈습니다.

문** 방금 김** 선생님 말씀처럼 분명 예술가와 기술자가 만나면 대화가 안 될 건 분명해요.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콘텐츠 창작지원사업을 먼저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창작 콘텐츠를 만들고, 그 이후에 구현시킬 개발자를 뽑아서 문화예술융합 CT 하는 분들을 추후에 뽑아서 디지털화하거나 미디어아트로 구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제가 3D 모델링부터, Unity나 엔진이라던가 개발 프로그램을 다 아울러서 배우고 있는데 그것도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내놓으면 개발자들은 그걸 구현하려면 문장별로 작업해야 하거든요. 내가 뭘 했다. 이걸 했다. 그걸 단위로 끊어서 기계로 입력을 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인 건데 예술가들이 상상력도 풍부하고 창작성이 뛰어나시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거 되겠지 해서 만들어도, 기술자분들에게 넘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기술자분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프로젝트 할 건데요, 네트워크 접속해서 비대면으로 전시를 보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네트워크요? 그거 구축하는 데 몇 개월 걸려요.'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작가분들이 이 프로젝트 하고 싶어요 해서 그게 뽑혔다고 한들 예술위원회든 공모전을 주최한 기관에서 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와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기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아쉽지만 스케일을 작게 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저도 머릿속으로는 이거 안되냐고 여러 가지 물어봤었는데, 그분들 인건비도 비싸고, 기술은 발전하고 트렌드는 변해가지만, 예술가들이 거기에 따라가기에는 돈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든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현소위 위원3 예술과 기술이라는 영역이 이질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것을 융합한다는 것이 새로운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테고, 그 과정을 탐색해 나가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고, 아르코에도 예술 기술 복합 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 말씀처럼 하나의 대안으로써 과도기적으로라도 **예술적 역량이 뛰어난 작품이 기술적 한계 때문에 포기되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 거꾸로 예술적 수준이 낮은데 기술적 역량만으로 선정돼서 지원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하나의 대안을 주셨습니다. 현재의 사업, 예술가가 기술적 제작까지 다 감당하게 하는 완성된 작품을 요구하는 선정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그걸 구별해서 예술가는 원 소스가 되는 콘텐츠로 선정하는 방안과 그것을 가공하고 기술적으로 결합하는 투트랙으로 세분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을 고심해야 하지 않나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걸 포괄해서 좀 더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저는 첼로를 전공한 첼로 연주자고, 현재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유튜브 개인 채널과 앙상블 채널 오픈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지원사업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모아놓고 시작했는데도 벌써 동이 났거든요. 연주자지만 제가 영상편집을 배워서 하고 있고, 연주자들 카메라로 자체 촬영하고, 처음엔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했으나 정말 돈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알고 난 뒤에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홈레코딩을 하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달부터는 저희 돈으로 메꿔야 하지 않을까 할 만큼 유튜브 작업도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반대로 제 자신이 대견한 건, 예술밖에 모르던 제가 살고자 하니까 이런 기술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과 가능성을 배워서 한편으로는 코로나에게 고마운 부분도 있어요.* 안 그랬으면 평생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첼로 연주를 했지만 반대로 언젠가는 영상 쪽으로 부수익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사실 아르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오지는 않았고 각종 문화지원사업들에 많이 도전하면서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은 없지만, 연주자 입장에서 저희 연주자들의 실태, 비정규직의 실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르코 비슷한 기관들의 지원사업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시각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곳, 무용 등 장르별로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위원회3

아트누리라는 사이트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문화재단의 공모사업까지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소위 위원7

저도 연주자로서 아트누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어요. 맞춤형을 검색했을 때 완전히 다 뜨지는 않고, 과거 사업이나 이미 기간이 끝난 게 뜬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앞으로 쌓여가고 개선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김**

끝날 무렵이라 소감 정도 말씀드리면 오늘 자리가 예상한 것과 달라서, 저는 어쨌든 기술적 행정적 문제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긴 한데 **예술계 전반에 대한 담론을 쌓아나갈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아까 심의 부분 계속 나왔는데 저는 예술가가 행정이 익숙하지 않다는 관점이나 관념들이 하나의 알리바이를 만든다는 생각도 해요. **민원자,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하는 건 아닌가. 시스템의 배제나 차별, 감시나 검열 같은 것들의 여지를 생산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열에 대한 발언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디지털 기술 관련해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아르코 비전 2030에서도 미래사회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아르코나 예술계 전반은 미래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관련 이야기들이 얼마만큼 나오고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르코는 어떤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르코 공모사업도 살펴보면 거의 장르 중심의 지원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지역간담회라고 했을 때, 그 지역간담회 사전 신청서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며 예술 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요. 지역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장르 중심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부분 포함해서 **창작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개념도 아르코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종관입니다. 우선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 몇 가지는 답을 안 드릴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르코 사업과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저희 예산이 꾸준히 늘거든요. 그래서 3천억을 넘었는데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제가 2018년도 연말쯤 왔을 때보다 수천억 늘었는데, **지역과 관련된 예산은 끊임없이 줄어듭니다. 지역대표공연 예술제는 100억 가까이 되는데, 전부 다 아웃소싱 했거든요. 그 외에도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2019년도에 시작한 중장기 창작지원이라고 전국에 50개 정도 우량한 공연예술단체를 3년간, 한 해에 1억씩 지원하는 제도였는데 50개 중에서 지역 5개 뽑았어요. 끊임없이 국가가 재정을 쓰는데, 지방자치제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에 의해 움직이는 예산들은 끊임없이 지역으로 아웃소싱하라는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국가 재정을 쓰는 명확한 상황 안에서 다 펼칠 수 없는 자기 한계가 있었던 거죠.
사실 창작준비금은 복지재단 사업이지만 융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을 져야 할 영역이 있어서 옳게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나갈 생각입니다. 복지재단이거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나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적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니까, 현장소통 소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민원 해결 부서처럼 되어서 각종 예술계의 모든 문제들이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땅히 저희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받은 기관에서는 자기 기관 일이 아니라면 전달해서 대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제도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가진 심의제도는 동료 심의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동료 위원님들이세요. 위원들은 다 단일한 지위이고요, 그분들의 단일한 지위는 예술계를 대표한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는 펀드레이징 전문가, 아니면 법조인, 이런 사람을 포함하는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위원회는 100%

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술계의 대표가 위원도 하고, 심의위원도 해당 장르 분들이 하시는 동료 심의제도에 기초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고작 내세운 목표라는 것은 전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겠다. 이거는 **블랙리스트를 겪은 우리 기관이 과정의 투명성을 선택한 거거든요.** '명확한 지원 방침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희는 버전 1.0에서 2.0으로 간다면 지원 방침이라던가 이런 걸 명확하게 움직여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술가로서 융복합 관련해서 예술, 기술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술만 하고 나머지는 매칭으로 해결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앞집이 콘텐츠진흥원인데 MOU 체결해서 그거 하거든요. 알아들었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 제기를 받고 움직이겠다는 약속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 관련한 **선생님, 청년지원, 다원 지원, 비전문인 지원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 하세요. 말씀하신 내용 알거든요. 예술이 어떻게 전문 예술로만 구성되냐. 신진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원도 있고 비전문도 있는 거 아니냐. 각종 기관과 협의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술 안에서 관통되도록 대안을 내보겠습니다. 융복합 관련해서도 말씀드려야 하는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제가 추경에서 149억 얻어서 광역 17개, 광역단체들하고 매칭 해서 지원했어요. 어떤 데서는 지원사업으로 못 풀고 기관이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발생했는데요. 저희로서는 협업을 선택한 건, 기존 콘텐츠를 디지털로 옮기는 것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장르나 매체를 사용하는 것까지 저희가 사업 영역으로 집어넣고서 매칭 해서 사업을 한 경우가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요청하는 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플랫폼 제공하면 안 되겠냐, 그건 저희도 버거운 문제고요. 그리고 저작권 문제, 명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다음 기술이라는 건 여전히 어려운 문제인데 선점하고 있어서 성과 내는 게 대부분 어려운 일이다.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올해 이 사업을 제대로 견지를 못 하고 사업이 48억 정도로 축소된 형태로 지원 발표하는 시점까지 끌고 왔습니다. 기술 융복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사업으로 풀 것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프로젝트성 지원을 얼마만큼 예술가 생존과 예술가 개인 지원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에 결국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는 오늘 지역간담회에서 가늠할 수 있었지 않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것의 효과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과제를 던지고 저희는 해결하는 겁니다. *다만 이걸 위해 부탁드리는 건 저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술계라고 하는 단일 전선이 어떻게 권고한 관료의 한계, 국가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느냐이지 않습니까.** 현장으로부터 받는 지지 없이는 어떤 것도 풀어내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으나 *위원회라는 게 예술인들의 신뢰 바탕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니 저희를 강하고 견고하게 지원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 주신 데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fin.

기타 의견

- 저렴한 임대 공유 작업실과 레지던시 문제 → 공용 스튜디오 필요
- **(지원 범위 확대 필요)** 현 실연자 중심, 기획자를 위한 지원제도나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부재
- 지원제도 내 성평등 매뉴얼 필요성, 창작물 준비-결과 발표에 있어 배리어 프리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 등
- 지원기관의 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고용보험 등)
  - 현실적이고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 대국민 소통 창구 부족
- 문화예술교육의 예술인 복지 포함 요청
- 예술가 기본소득 제도, 국공립 미술관 전시 작가 섭외 기준 등
-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예술 향유를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 필요

2021 현장소통 소위원회 지역간담회 결과자료집

총괄 | 정창호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사무국장/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장)
기획운영 | 심수진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간사)
| 조준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대리)

내용편집 | 김선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
| 이건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

기록 | 김태희 (파종모종)
디자인 | 양지애 (파종모종)

발행일 | 2021년 8월
발행인 | 박종관
발행처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주소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2층
홈페이지 | karaa.kr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참여자 및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에 있습니다.
내용을 인용할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발간된 책자입니다.